

목 차

Power 국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한자성어 완전정복

01 주제로 보는 한자성어	04
02 한자성어와 뜻이 통하는 속담	24

Power 영어

핵심만 뽑은 마무리 어법·구문 정리

01 마무리 어법 정리	30
02 마무리 구문 정리	41

Power 한국사

흐름을 잡는 테마별 마무리 한국사

01~13 마무리 한국사	54
---------------	----

Power 사회복지학개론

핵심 키워드로 파악하는 사회복지학개론

01~04 마무리 사회복지학개론	100
-------------------	-----

Power 행정법총론

통으로 암기하는 행정법총론

01~05 마무리 행정법총론	122
-----------------	-----

Power 사회

출제 포인트를 꼭 잡아주는 마무리 사회

01~03 마무리 사회	146
--------------	-----

기초의
답이다

Power

국어

01 주제로 보는 한자성어

02 한자성어와 뜻이 통하는 속담

01 주제로 보는 한자성어

진정한 친구

쓰면서 암기!

肝膽相照

간 간, 쓸개 담, 서로 상, 비출 조

肝膽相照 肝膽相照 肝膽相照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친밀히 사귀

管鮑之交

대롱 관, 절인 물고기 포, 갈 지, 사귄 교

관중과 포숙처럼 친구 사이가 다정함을 이르는 말로,
(1) 친구 사이의 매우 다정하고 허물없는 교제
(2)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허물없는 친구 사이

金蘭之契

쇠 금, 난초 란, 갈 지, 맺을 계

쇠처럼 단단하고 난초 향기처럼 그윽한 사귀의 의리를 맺는다는 뜻으로, 사이좋은 벗끼리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고, 우정의 아름다움은 난의 향기와 같음

金石之交

쇠 금, 돌 석, 갈 지, 사귄 교

금석의 사귀이라는 뜻으로, 쇠와 돌처럼 변함없는 굳은 사귀를 이르는 말

莫逆之間

없을 막, 거스를 역, 갈 지, 사이 간

막역한 벗의 사이 ▶ 莫(없을 막, 저물 모, 덮을 먹)

莫逆之友

없을 막, 거스를 역, 갈 지, 벗 우

마음이 맞아 서로 거스르는 일이 없는,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친밀한 벗

刎頸之交

목 벨 문, 목 경, 갈 지, 사귄 교

목을 벨 수 있는 벗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벗

<p>伯牙絕絃</p> <p>만 백, 어금니 아, 끊을 절, 줄 현</p>	
--	--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어 버렸다.’는 뜻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절친한 벗, 즉 지기지우(知己之友)의 죽음을 슬퍼함을 이르는 말

<p>水魚之交</p> <p>물 수, 물고기 어, 갈 지, 사귄 교</p>	
--	--

‘물과 물고기의 사귄’이라는 뜻으로,
(1) 임금과 신하 또는 부부 사이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
(2)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사이

<p>竹馬故友</p> <p>대 죽, 말 마, 연고 고, 벗 우</p>	
--	--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며 자란 친구를 이르는 말

<p>知音</p> <p>알 지, 소리 음</p>	
----------------------------	--

‘거문고 소리를 듣고 안다.’는 뜻으로, 자기의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친구. 백아(伯牙)와 종자기(鍾子期) 사이의 고사로부터 (거문고)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에서 유래

상황의 변화

<p>桑田碧海</p> <p>뽕나무 상, 발 전, 푸를 벽, 바다 해</p>	
---	--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 볼 정도로 바뀐 것이나 세상의 모든 일이 엄청나게 변해버린 것을 의미함

<p>吳越同舟</p> <p>성씨 오, 념을 월, 한 가지 동, 배 주</p>	
--	--

‘서로 원수의 사이인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탄다.’는 뜻으로,
(1)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수라도 협력하게 됨
(2) 뜻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됨

<p>天旋地轉</p> <p>하늘 천, 돌 선, 땅 지, 구를 전</p>	
---	--

세상일이 크게 변함

뛰어난 인재	
<p>干城之材</p> <p>방패 간, 재 성, 갈 지, 재목 재</p>	
방패와 성의 구실을 하는 인재란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인재를 이르는 말	
<p>股肱之臣</p> <p>넓적다리 고, 팔뚝 꺾, 갈 지, 신하 신</p>	
다리와 팔뚝에 비길 만한 신하라는 뜻으로,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중신을 이르는 말	
<p>群鷄一鶴</p> <p>무리 군, 닭 계, 한 일, 학 학</p>	
닭의 무리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란 뜻. 즉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사람을 이르는 말	
<p>囊中之錐</p> <p>주머니 낭, 가운데 중, 갈 지, 송곳 추</p>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띄게 뿔을 이르는 말	
<p>棟梁之材</p> <p>마룻대 둥, 들보 량, 갈 지, 재주 재</p>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이라는 뜻으로, 나라의 중임을 맡을 만한 큰 인재를 이르는 말	
<p>白眉</p> <p>흰 백, 눈썹 미</p>	
마씨 오형제 중에서 가장 재주가 뛰어난 맏이 마량이 눈썹이 희었다는 데서 나온 말로 여러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	
<p>社稷之臣</p> <p>모일 사, 피 직, 갈 지, 신하 신</p>	
나라의 안위(安危)를 맡은 중신	
<p>柱石之臣</p> <p>기둥 주, 돌 석, 갈 지, 신하 신</p>	
나라에 아주 중요한 신하	
<p>鐵中錚錚</p> <p>쇠 철, 가운데 중, 쇠소리 쟁, 쇠소리 쟁</p>	
쇠 중에서 소리가 가장 맑다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 중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비유함	

위태로운 형세	
<p>累卵之勢</p> <p>여러 누, 알 란, 갈 지, 형세 세</p>	
알을 쌓아놓은 위태로운 형세라는 뜻으로, 몹시 위험한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p>百尺竿頭</p> <p>일백 백, 자 척, 뉘십대 간, 머리 두</p>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함을 이르는 말	
<p>如履薄冰</p> <p>갈을 여, 밟을 리, 얹을 박, 얼음 빙</p>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다.'는 뜻으로, 몹시 위험함을 가리키는 말	
<p>危機一髮</p> <p>위태할 위, 툄 기, 한 일, 터럭 발</p>	
머리털 하나로 천균(千鈞)이나 되는 물건을 끌어당긴다는 뜻으로,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위험한 순간을 비유해 이르는 말	
<p>一觸即發</p> <p>한 일, 닿을 축, 곧 즉, 필 발</p>	
'한 번 닿기만 하여도 곧 폭발한다.'는 뜻으로, 조그만 자극에도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를 이르는 말	
<p>焦眉之急</p> <p>탈 초, 눈썹 미, 갈 지, 급할 급</p>	
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란 뜻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매우 다급한 일이나 경우를 비유한 말	
<p>風前燈火</p> <p>바람 풍, 앞 전, 등 등, 불 화</p>	
<p>바람 앞에 놓인 등불이란 뜻으로,</p> <p>(1) 사물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매우 위급한 자리에 놓여 있음을 가리키는 말</p> <p>(2) 사물이 덧없음을 가리키는 말</p>	

원수지간	
犬猿之間 개 건, 원숭이 원, 갈 지, 사이 간	
개와 원숭이의 사이처럼, 매우 사이가 나쁜 관계	
氷炭之間 얼음 빙, 숯불 탄, 갈 지, 사이 간	
얼음과 숯의 사이란 뜻으로, (1) 둘이 서로 어긋나 맞지 않는 사이 (2)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	
戴天之讐 일 대, 하늘 천, 갈 지, 원수 수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대한 원수는 하늘을 함께 하고 살지 않음	
不俱戴天 아닐 불, 함께 구, 일 대, 하늘 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 죽여 없애야 할 원수	

견문이 좁음	
管見 대롱 관, 볼 건	
(1) 대롱 구멍으로 내다본다는 뜻으로 넓지 못한 견문(見聞)을 말함. 소견(所見)이 좁음 (2) 자기의 의견을 겸손하게 일컫는 말	
井底之蛙 우물 정, 밑 저, 갈 지, 개구리 와	
(1) 우물 밑의 개구리 (2) 소견이나 견문이 몹시 좁은 것	
坐井觀天 앉을 좌, 우물 정, 볼 관, 하늘 천	
우물 속에 앉아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으로, (1) 견문이 매우 좁음을 말함 (2) 세상 물정을 너무 모름	

用管窺天 쓸 용, 대롱 관, 엿볼 규, 하늘 천	
-------------------------------	--

대롱을 통해 하늘을 살핀다는 뜻으로, 소견이나 견문이 좁음을 이르는 말

夜郎自大 밤 야, 사내 랑, 스스로 자, 큰 대	
-------------------------------	--

'아랑이 스스로 크다고 한다'는 뜻으로, 중국 한(漢)나라 때의 오랑캐 중에서 아랑국이 가장 세력이 강하여 오만하였으므로, 용렬(庸劣)하거나 우매(愚昧)한 무리 중에서 세력이 있어 잘난 체하고 뽐남을 비유하는 말

때가 늦음

渴而穿井 목마를 갈, 말 아을 이, 뚫을 천, 우물 정	
-----------------------------------	--

목이 마르니까 비로소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1)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아무 소용이 없음
(2) 자기가 급해야 서둘러서 일을 함

亡羊補牢 망할 망, 양 양, 기울 보, 우리 뢰	
-------------------------------	--

양을 잃고서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1) 실패한 후에 일을 대비함
(2)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

死後藥方文 죽을 사, 뒤 후, 약 약, 모 방, 글월 문	
------------------------------------	--

죽은 뒤에야 약방문(藥方文)을 쓴다는 뜻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

晚時之歎 늦을 만, 때 시, 갈 지, 탄식할 탄	
-------------------------------	--

때늦은 한탄(恨歎)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

雨後送傘 비 우, 뒤 후, 보낼 송, 우산 산	
------------------------------	--

비 온 뒤에 우산(雨傘)을 보낸다는 뜻으로, 이미 지나간 일에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보태는 경우를 말함

失馬治廐 잃을 실, 말 마, 다스릴 치, 마구간 구	
---------------------------------	--

말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으로, 실패한 뒤에 손을 쓴다는 말

十日之菊	
열 십, 날 일, 갈 지, 국화 국	

국화(菊花)는 9월 9일이 절정기인데 10일의 국화라는 뜻으로, 무엇이나 한창 때가 지나 때늦은 것을 비유함

부부 사이의 금실

琴瑟相和	
거문고 금, 큰 거문고 슬, 서로 상, 화할 화	

거문고와 비파(琵琶) 소리가 조화를 잘 이룬다는 뜻으로, 부부 사이가 다정하고 화목함을 이르는 말

琴瑟之樂	
거문고 금, 큰 거문고 슬, 갈 지, 즐길 락	

거문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소리라는 뜻으로, 부부 사이의 다정하고 화목한 즐거움

百年偕老	
일백 백, 해 년, 함께 해, 늙을 로	

부부가 서로 사이좋고 화락하게 같이 늙음을 이르는 말

比翼連理	
견줄 비, 날개 익, 잇닿을 연, 다스릴 리	

암수가 각각 눈 하나에 날개가 하나씩이라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비익조(比翼鳥)와 한 나무의 가지가 다른 나무의 가지와 맞붙어서 서로 결이 통한 연리지(連理枝)라는 뜻으로, 부부의 사이가 깊고 화목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

偕老同穴	
함께 해, 늙을 로, 한 가지 동, 구멍 혈	

부부가 한평생 같이 지내며 같이 늙고, 죽어서 같이 무덤에 묻힌다는 뜻으로,

(1) 부부의 사랑의 굳은 맹세

(2) 부부의 금실이 좋아서 함께 늙고 함께 묻힘

가난

桂玉之嘆	
계수나무 게, 구슬 옥, 갈 지, 탄식할 탄	

식량 구하기가 계수나무 구하듯이 어렵고, 땀감을 구하기가 옥을 구하기만큼 어려움

上漏下濕	
윗 상, 눈물 루, 아래 하, 젖을 습	

위에서는 비가 새고, 아래에서는 습기가 차오른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을 비유하는 말

<p>三旬九食</p> <p>석 삼, 열흘 순, 아홉 구, 밥 식</p>	
---	--

한 달에 아홉 번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는 말

가혹한 정치

<p>苛斂誅求</p> <p>가혹할 가, 거둘 렴, 벌 주, 구할 구</p>	
---	--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

<p>苛政猛於虎</p> <p>가혹할 가, 정사 정, 사나울 맹, 어조사 어, 범 호</p>	
--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의 폐해(弊害)를 비유하는 말

<p>塗炭之苦</p> <p>진흙 도, 숯불 탄, 갈 지, 쓸 고</p>	
---	--

진흙이나 숯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는 것

<p>炮烙之刑</p> <p>통째로 구울 포, 지질 락, 갈 지, 형벌 형</p>	
--	--

- (1) 중국 은(殷)나라 주왕이 쓰던 매우 심한 형벌. 기름칠한 구리 가둥을 숯불 위에 걸쳐 놓고 죄인을 건너가게 했다고 함
(2) 달군 쇠로 지지는 극형(極刑)을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함

<p>見危授命</p> <p>볼 견, 위태할 위, 줄 수, 목숨 명</p>	
--	--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는 뜻으로, 나라의 위태로운 지경을 보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을 말함

<p>見危致命</p> <p>볼 견, 위태할 위, 이를 치, 목숨 명</p>	
---	--

나라의 위급함을 보고 몸을 바침

<p>大義滅親</p> <p>큰 대, 옳을 의, 꺼질 멸, 친할 친</p>	
--	--

- 큰 의리를 위해서는 혈육의 친함도 저버린다는 뜻으로,
(1) 큰 의리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의를 버림
(2)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의 정도 버림

減私奉公 <small>꺼질 멀, 사사 사, 받들 봉, 공평할 공</small>	
사(私)를 버리고 공(公)을 위해 힘써 일함	
先公後私 <small>먼저 선, 공평할 공, 뒤 후, 사사 사</small>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움이란 뜻으로, 사사로운 일이나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움	
枉尺直尋 <small>굽을 왕, 자 척, 곧을 직, 찾을 심</small>	
짧은 것은 굽히고 긴 것을 편다는 뜻으로, 소(小)를 희생시켜 대(大)를 살림	
至公無私 <small>이를 지, 공평할 공, 없을 무, 사사 사</small>	
자극히 공평하여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음	

향수(鄉愁)	
看雲步月 <small>볼 간, 구름 윤, 걸음 보, 달 월</small>	
고향 생각이 간절하여, 낮에는 고향쪽 구름을 보고, 밤에는 달을 보며 거닌다는 뜻	
首丘初心 <small>머리 수, 언덕 구, 처음 초, 마음 심</small>	
여우가 죽을 때에 고향을 향(向)해 머리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1) 근본을 잊지 않음 (2)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 마음	
胡馬望北 <small>오랑캐 호, 말 마, 바랄 망, 북녘 북</small>	
북쪽의 말은 북풍이 불 때마다 머리를 들어 북쪽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몹시 고향을 그리워함'을 비유하는 말	

환경의 중요성	
橘化爲枳 <small>귤 귤, 될 화, 할 위, 탕자 지</small>	
강남(江南)의 귤을 강북(江北)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뜻으로, 사람도 환경에 따라 기질이 변한다는 말	

<p>近墨者黑</p> <p>가까울 근, 먹 묵, 놈 자, 검을 흑</p>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뜻으로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하면 악에 물들기 쉽다는 말	
<p>近朱者赤</p> <p>가까울 근, 붉을 주, 놈 자, 붉을 적</p>	
붉은빛에 가까이 하면 반드시 붉게 된다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	
<p>斷機之教</p> <p>끊을 단, 틀 기, 갈 지, 가르칠 교</p>	
학업을 중도에 폐(廢)함은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과 같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뜻으로,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	
<p>三遷之教</p> <p>석 삼, 옮길 천, 갈 지, 가르칠 교</p>	
맹자(孟子)의 교육을 위하여 그 어머니가 세 번이나 집을 옮겼다는 고사로, 생활환경이 교육에 큰 구실을 함을 뜻함	

입장의 변화	
<p>客反爲主</p> <p>손 객, 돌이킬 반, 할 위, 임금 주</p>	
<p>손이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한다는 뜻으로,</p> <p>(1) 주객(主客)이 전도(顛倒)됨을 이르는 말</p> <p>(2) 사물의 대소, 경중, 전후를 뒤바꿈</p>	
<p>本末顛倒</p> <p>근본 본, 끝 말, 엇드러질 전, 넘어질 도</p>	
<p>(1) 일의 처음과 나중에 뒤바뀜</p> <p>(2) 일의 근본은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힘</p>	
<p>賊反荷杖</p> <p>도둑 적, 돌이킬 반, 멜 하, 지팡이 장</p>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	
<p>主客顛倒</p> <p>임금 주, 손 객, 엇드러질 전, 넘어질 도</p>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어 한다는 것으로, 입장이 뒤바뀜을 이르는 말	

지금까지 없었던 일

空前絶後 빌 공, 앞 전, 끝을 절, 뒤 후	
-----------------------------	--

- (1)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2) 비교할만한 것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음

曠前絶後 빌 광, 앞 전, 끝을 절, 뒤 후	
-----------------------------	--

앞에는 비었고, 뒤에는 끊어짐

未曾有 아닐 미, 일찍 중, 있을 유	
-------------------------	--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음

前代未聞 앞 전, 대신할 대, 아닐 미, 들을 문	
--------------------------------	--

지난 시대에는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뜻으로, 매우 놀랍거나 새로운 일을 이르는 말

前無後無 앞 전, 없을 무, 뒤 후, 없을 무	
------------------------------	--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음

前人未踏 앞 전, 사람 인, 아닐 미, 밟을 답	
-------------------------------	--

이전 사람이 아직 밟지 않았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대거나 밟을 디딘 일이 없음

모순

矛盾 창 모, 방패 순	
-----------------	--

창과 방패라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일치되지 아니함

二律背反 두 이, 법칙 율, 등 배, 돌이킬 반	
-------------------------------	--

- 두 가지 규율이 서로 반대된다는 뜻으로,
(1) 동일 법전에 포함되는 개개 법문 간의 모순
(2) 같은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다고 주장되는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

自家撞着 스스로 자, 집 가, 칠 당, 붙을 착	
-------------------------------	--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음

태평한 세월

康衢煙月 편안 강, 네거리 구, 연기 연, 달 월	
--------------------------------	--

강구(康衢)는 사통오달의 큰길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거리, 연월(煙月)은 연기가 나고 달빛이 비친다는 뜻으로,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

擊壤老人 칠 격, 흙덩이 양, 늙을 노, 사람 인	
--------------------------------	--

태평한 생활을 즐거워하여 노인이 땅을 치며 노래함

鼓腹擊壤 북 고, 배 복, 칠 격, 흙덩이 양	
------------------------------	--

배를 두드리며 흙덩이를 친다는 뜻으로, 배불리 먹고 흙덩이를 치는 놀이를 한다. 즉, 매우 살기 좋은 시절을 뜻함

道不拾遺 길 도, 아닐 불, 주울 습, 남길 유	
-------------------------------	--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뜻으로,
(1) 나라가 잘 다스려져 백성의 풍속이 돈후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
(2) 형벌이 준엄(峻嚴)하여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아니함의 뜻으로도 쓰임

堯舜之節 요임금 요, 순임금 순, 갈 지, 마디 절	
---------------------------------	--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뜻으로 태평한 시대를 이르는 말

太平聖代 클 태, 평평할 평, 성인 성, 대신할 대	
---------------------------------	--

어질고 착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

실속이 없음

虛禮虛飾 빌 허, 예도 레, 빌 허, 꾸밀 식	
------------------------------	--

예절, 법식 등을 겉으로만 꾸며 번드레하게 하는 일

<p>虛張聲勢</p> <p>빌 허, 베플 장, 소리 성, 형세 세</p>	
--	--

헛되이 목소리의 기세만 높인다는 뜻으로, 실력이 없으면서도 허세로만 떠벌림

<p>號曰百萬</p> <p>이름 호, 가로 알, 일백 백, 일만 만</p>	
---	--

말로는 백만을 일컬으나, 실상(實相)은 얼마 안 됨

후배나 제자가 더 뛰어남

<p>靑出於藍</p> <p>푸를 청, 날 출, 어조사 어, 쪽 람</p>	
--	--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하는 말

<p>出藍之譽</p> <p>날 출, 쪽 람, 갈 지, 기릴 예</p>	
--	--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평판이나 명성

<p>後生可畏</p> <p>뒤 후, 날 생, 옴을 가, 두려울 외</p>	
--	--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려운다는 말

<p>後生角高</p> <p>뒤 후, 날 생, 뿔 각, 높을 고</p>	
--	--

뒤에 난 뿔이 우뚝하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뛰어날 때 이르는 말

실력 향상

<p>刮目相對</p> <p>긫을 괄, 눈 목, 서로 상, 대할 대</p>	
--	--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함

<p>日進月步</p> <p>날 일, 나아갈 진, 달 월, 걸음 보</p>	
--	--

날로 달로 끊임없이 진보, 발전함

<p>日就月將</p> <p>날 일, 나아갈 취, 달 월, 장수 장</p>	
--	--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뜻으로 학업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진보함을 이룸

<p>三餘之功</p> <p>석 삼, 남을 여, 갈 지, 공 공</p>	
--	--

독서하기에 가장 좋은 '겨울, 밤, 음우(陰雨)'를 일컬음

<p>韋編三絕</p> <p>가죽 위, 엮을 편, 석 삼, 꿰을 절</p>	
--	--

옛날에 공자(孔子)가 주역을 즐겨 열심히 읽은 나머지 책을 맨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한 권의 책을 몇 십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음을 비유하는 말

<p>晝耕夜讀</p> <p>낮 주, 밭 갈 경, 밤 야, 읽을 독</p>	
--	--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공부한다는 뜻으로, 바쁜 틈을 타서 어렵게 공부함을 이르는 말

<p>晴耕雨讀</p> <p>갠 청, 밭 갈 경, 비 우, 읽을 독</p>	
--	--

갠 날에는 밖에 나가 농사일을 하고 비오는 날에는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공부함을 이르는 말

<p>汗牛充棟</p> <p>땀 한, 소 우, 채울 충, 마룻대 동</p>	
--	--

'수레에 실어 운반하면 소가 땀을 흘리게 되고, 쌓아올리면 들보에 닿을 정도의 양'이라는 뜻으로, 장서가 많음을 이르는 말

전쟁

<p>乾坤一擲</p> <p>하늘 건, 땅 곤, 한 일, 던질 척</p>	
---	--

하늘이나 땅이나를 한 번 던져서 결정한다는 뜻으로,
 (1) 운명과 흥망을 걸고 단판으로 승부나 성패를 거름
 (2) 오직 이 한 번에 흥망성쇠(興亡盛衰)가 걸려 있는 일

<p>捲土重來</p> <p>거둘 권, 흙 토, 무거울 중, 올 래</p>	
--	--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
 (1)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
 (2) 패한 자가 세력을 되찾아 다시 쳐들어옴
 (3) 한 번 실패하고 나서 다시 그 일에 도전함

<p>背水之陣</p> <p>등 배, 물 수, 갈 지, 진 칠 진</p>	
---	--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으로,
 (1) 물러설 곳이 없으니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지경을 이르는 말
 (2) 물을 등지고 적과 싸울 진을 치는 진법

<p>死灰復燃</p> <p>죽을 사, 재 회, 다시 부, 탈 연</p>	
---	--

다 탄 재가 다시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
 (1) 세력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세력을 잡음
 (2) 곤경에 처해 있던 사람이 훌륭하게 됨을 비유하는 말

<p>臥薪嘗膽</p> <p>누울 와, 씹 신, 맛볼 상, 쓸개 담</p>	
--	--

쉴에 눕고 쓸개를 씹는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뎌 이르는 말

<p>破釜沈船</p> <p>깨뜨릴 파, 가마 부, 잠길 침, 배 선</p>	
---	--

‘술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싸움터로 나가면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결전을 각오함을 이르는 말

소문

<p>流言蜚語</p> <p>흐를 유, 말씀 언, 바퀴 비, 말씀 어</p>	
---	--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 뜬소문

<p>道聽途說</p> <p>길 도, 들을 청, 칠할 도, 말씀 설</p>	
--	--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곧 그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뜻으로,
 (1) 거리에서 들은 것을 남에게 아는 체하며 말함
 (2)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

<p>街談巷說</p> <p>거리 가, 말씀 담, 거리 향, 말씀 설</p>	
---	--

(1) 길거리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2) 세상에 떠도는 뜬소문

동정과 연민, 애정과 사랑

同病相憐

한 가지 동, 병 병, 서로 상, 불쌍히 여길 련

같은 병자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도움

相思病

서로 상, 생각 사, 병 병

남자와 여자 사이에 못 잊어 그리워하며 고민하는 나머지 생기는 병

相思不忘

서로 상, 생각 사, 아날 불, 잊을 망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여 잊지 못함

戀慕之情

그리워할 연, 그릴 모, 갈 지, 뜻 정

사랑하여 그리워하는 정

의리나 은덕을 저버림

見利忘義

볼 견, 이로울 리, 잊을 망, 옳을 의

눈앞의 이익을 보면 탐내어 의리를 저버림

過河拆橋

지날 과, 물 하, 터질 탁, 다리 교

다리를 건너고 나서 그 다리를 부수어 목재를 훔쳐간다는 뜻으로 극도의 이기심이나 배은망덕(背恩忘德)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

背恩忘德

등 배, 은혜 은, 잊을 망, 큰 덕

남에게 입은 은덕을 잊고 배반함

기쁨

錦上添花

비단 금, 옷 상, 더할 첨, 꽃 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이르는 말

<p>弄瓦之慶</p> <p>희롱할 농, 기와 와, 갈 지, 경사 경</p>	
---	--

'질그릇을 갖고 노는 경사'란 뜻으로, 딸을 낳은 기쁨을 이르는 말. 참고로 '와(瓦)'는 계집아이의 장난감인 '실패'를 의미함

<p>弄璋之慶</p> <p>희롱할 농, 홀 장, 갈 지, 경사 경</p>	
--	--

'장(璋)으로 만든 구기를 갖고 노는 경사'란 뜻으로, 아들을 낳은 기쁨. 또는 아들을 낳은 일을 이르는 말. 참고로 '장(璋)'은 사내아이의 장난감인 '구슬'을 의미함

<p>多多益善</p> <p>많을 다, 많을 다, 더할 익, 착할 선</p>	
---	--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말

<p>拍掌大笑</p> <p>칠 박, 손바닥 장, 큰 대, 웃음 소</p>	
--	--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음

<p>抱腹絕倒</p> <p>안을 포, 배 복, 끊을 절, 넘어질 도</p>	
---	--

- (1) 배를 안고 넘어진다는 뜻
(2) 몹시 우스워서 배를 안고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웃음

슬픔

<p>哀而不悲</p> <p>슬플 애, 말 이을 이, 아닐 불, 슬플 비</p>	
---	--

속으로는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프지 않은 체함

<p>哀而不傷</p> <p>슬플 애, 말 이을 이, 아닐 불, 다칠 상</p>	
---	--

슬퍼하되 정도를 넘지 아니함

<p>哀苦之情</p> <p>슬플 애, 쓸 고, 갈 지, 뜻 정</p>	
--	--

슬프고 괴로운 마음

분노	
<p>悲憤慷慨</p> <p>슬플 비, 분할 분, 슬플 강, 슬퍼할 개</p>	
슬프고 분한 느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	
<p>切齒腐心</p> <p>끓을 절, 이 치, 썩을 부, 마음 심</p>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다는 뜻으로, 대단히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	
<p>切齒扼腕</p> <p>끓을 절, 이 치, 잡을 액, 팔뚝 완</p>	
'이를 갈고, 팔을 건어올리며 주먹을 꼭 진다.'는 뜻으로, 매우 분하여 버리는 모습을 이르는 말	
<p>天人共怒</p> <p>하늘 천, 사람 인, 한 가지 공, 성낼 노</p>	
<p>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한다는 뜻으로,</p> <p>(1) 누구나 분노할 만큼 증오스러움</p> <p>(2)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p>	
<p>含憤蓄怨</p> <p>머금을 함, 분할 분, 모을 축, 원망할 원</p>	
분을 품고 원한을 쌓음	
무례함	
<p>傍若無人</p> <p>곁 방, 같을 약, 없을 무, 사람 인</p>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	
<p>眼下無人</p> <p>눈 안, 아래 하, 없을 무, 사람 인</p>	
<p>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p> <p>(1) 사람됨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p> <p>(2) 태도가 몹시 거만하여 남을 사람같이 대하지 않는 것</p>	
<p>傲岸不遜</p> <p>거만할 오, 언덕 안, 아닐 불, 겸손할 손</p>	
행동거지가 오만불손(傲慢不遜)하고 잘난체하는 태도	

<p>天方地軸</p> <p>하늘 천, 모 방, 땅 지, 굴대 축</p>	
---	--

하늘 방향이 어디이고 땅의 축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뜻으로,
 (1) 너무 바빠서 두서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
 (2) 어리석은 사람이 갈 바를 몰라 두리번거리는 모습

<p>破廉恥瀚</p> <p>깨뜨릴 파, 청렴할 렴, 부끄러울 치, 한나라 한</p>	
--	--

(1) 수치를 수치로 알지 아니하는 사람
 (2)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p>回賓作主</p> <p>돌아올 회, 손 빈, 지을 작, 임금 주</p>	
---	--

남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쳐놓고 제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방자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

<p>厚顏無恥</p> <p>두터울 후, 낮 안, 없을 무, 부끄러울 치</p>	
---	--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으로,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 모름

불행

<p>鷄卵有骨</p> <p>닭 계, 알란, 있을 유, 뼈 골</p>	
---------------------------------------	--

계란에도 뼈가 있다는 속담으로, 운수가 나쁜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 됨을 이르는 말

<p>雪上加霜</p> <p>눈 설, 윗 상, 더할 가, 서리 상</p>	
---	--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치거나 환난이 거듭됨을 비유하는 말

<p>十顛九倒</p> <p>열 십, 엎드러질 전, 아홉 구, 넘어질 도</p>	
---	--

열 번 엎어지고 아홉 번 거꾸러진다는 뜻으로, 술한 괴로움을 겪음을 이르는 말

<p>前虎後狼</p> <p>앞 전, 범 호, 뒤 후, 이리 랑</p>	
--	--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까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재앙이 끊임없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p>七顛八倒</p> <p>일곱 칠, 었드러질 전, 여덟 팔, 넘어질 도</p>	
--	--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었어진다는 뜻으로, 실패를 거듭하거나 몹시 고생함을 이르는 말

행운

<p>風雲兒</p> <p>바람 풍, 구름 운, 아이 아</p>	
------------------------------------	--

좋은 기운을 타고 활약하여 세상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

<p>遠禍召福</p> <p>멀 원, 재앙 화, 부를 소, 복 복</p>	
---	--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임

만족감

<p>貧而無怨</p> <p>가난할 빈, 말 이을 이, 없을 무, 원망할 원</p>	
---	--

가난해도 세상에 대한 원망이 없음

<p>安分知足</p> <p>편안 안, 나눌 분, 알 지, 발 족</p>	
---	--

자기 분수에 만족하여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함

<p>安貧樂道</p> <p>편안 안, 가난할 빈, 즐길 낙, 길 도</p>	
---	--

- (1)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감
(2)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도를 즐길

<p>悠悠自適</p> <p>멀 유, 멀 유, 스스로 자, 맞을 적</p>	
--	--

여유가 있어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모양이라는 뜻으로, 속세에 속박됨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히 지냄을 이르는 말

02

한자성어와 뜻이 통하는 속담

渴而穿井 목마를 갈, 말 이을 이, 뚫을 천, 우물 정	=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 갑갑한 놈이 송사한다.
--	-----------------------------------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

참고 송사(訟事) : 남과 분쟁이 있는 백성이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기를 관부에 호소하던 일

見蚊拔劍 볼 건, 모기 문, 뱀을 발, 칼 검	= 모기 보고 칼 빼기 = 중을 보고 칼을 뽑는다.
-------------------------------------	---------------------------------

시시한 일로 소란을 피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鯨戰蝦死 고래 경, 싸움 전, 새우 하, 죽을 사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矯角殺牛 바로잡을 교, 뿔 각, 죽일 살, 소 우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다. = 쇠뿔 잡다가 소 죽인다.
---------------------------------------	---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의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그 정도가 지나쳐서 도리어 그 사물이나 사람을 망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口蜜腹劍 입 구, 꿀 밀, 배 복, 칼 검	= 등 치고 간 내먹다.
-----------------------------------	---------------

겉으로는 위하여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를 끼칠 생각을 품고있다는 말

金枝玉葉 쇠 금, 가지 지, 구슬 옥, 잎 엽	=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 쥐면 꺼질까 불면 날까
-------------------------------------	-----------------------------------

‘금 가지에 옥 잎사귀’란 뜻으로, 어린 자녀를 애지중지하여 기르는 부모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騎虎之勢 말 탈 기, 범 호, 갈 지, 형세 세	= 쓰아 놓은 살이요 엇질러진 물이다.
--------------------------------------	-----------------------

이미 시작한 일을 다시 고치거나 중지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p>堂狗風月</p> <p>집 당, 개 구, 바람 풍, 달 월</p>	<p>= 서당(書堂) 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p> <p>= 당구 삼 년에 폐풍월(吠風月)</p> <p>= 독서당 개가 맹자 알 한다.</p>
--	--

서당에서 삼 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p>螳螂拒轍</p> <p>사마귀 당, 사마귀 랑, 막을 거, 바퀴 자국 철</p>	<p>=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p> <p>= 범 모르는 하룻강아지</p> <p>= 비루먹은 강아지 대호(大虎)를 건드린다.</p>
--	--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p>同病相憐</p> <p>한 가지 동, 병 병, 서로 상, 불쌍히 여길 런</p>	<p>= 과부 설움은 홀아비가 안다.</p> <p>= 과부의 심정은 홀아비가 알고 도적놈의 심보는 도적놈이 잘 안다.</p>
--	---

남의 곤란한 처지는 직접 그 일을 당해 보았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잘 알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p>同族相殘</p> <p>한 가지 동, 겨레 족, 서로 상, 잔일할 잔</p>	<p>= 갈치가 갈치 꼬리 문다.</p> <p>= 망둥이 제 동무 잡아먹는다.</p>
--	---

동족(同族)끼리 서로 싸우고 죽임

<p>得隴望蜀</p> <p>얻을 득, 고개 이름 룡, 바랄 망, 나라 이름 촉</p>	<p>= 말 타면 종 두고 싶다.</p> <p>=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p>
---	---

룡(隴)나라를 얻고 나니 촉(蜀)나라를 갖고 싶다는 뜻으로,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

<p>登高自卑</p> <p>오를 등, 높을 고, 스스로 자, 낮을 비</p>	<p>=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p>
--	----------------------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차례를 밟아야 한다는 말

<p>燈下不明</p> <p>등 등, 아래 하, 아닐 불, 밝을 명</p>	<p>= 등잔 밑이 어둡다.</p>
--	---------------------

가까이 있는 것이나,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리어 잘 모를 수 있다는 말

<p>磨斧爲針</p> <p>갈 마, 도끼 부, 할 위, 바늘 침</p>	<p>=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p>
---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고야 만든다는 말

<p>聞一知十</p> <p>들을 문, 한 일, 알 지, 열 십</p>	<p>=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p>
--	------------------------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미루어 안다는 뜻으로, 총명함을 이르는 말

三旬九食 석 삼, 열흘 순, 아홉 구, 먹을 식	= 서 발 막대[장대] 거칠 것 없다.
삼순, 곧 한 달에 아홉 번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는 말	
識字憂患 알 식, 글자 자, 근심 우, 근심 환	= 아는 것이 병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알기는 알아도 똑바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는 말	
我田引水 나 아, 밭 전, 끌 인, 물 수	= 제 눈에 물 대기
자기 눈에만 물을 끌어넣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말	
烏飛梨落 까마귀 오, 날 비, 배나무 이, 떨어질 락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의심을 받거나 난처하게 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一舉兩得 한 일, 들 거, 두 양, 얻을 득	= 썩 먹고 알 먹고 동지 털어 불 땀다.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이르는 말	
走馬加鞭 달릴 주, 말 마, 더할 가, 채찍 편	=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기
형편이나 힘이 한창 좋을 때에 더욱 힘을 더한다는 말	
走馬看山 달릴 주, 말 마, 볼 간, 메 산	= 수박 겉 핥기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대강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草綠同色 풀 초, 푸를 록, 한 가지 동, 빛 색	= 초록은 동색
풀빛과 녹색은 같은 빛깔이란 뜻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과 어울리거나 기운다는 말	

<p>咸興差使</p> <p>다 함, 일 흥, 다를 차, 하여금 사</p>	<p>= 강원도 포수</p>
<p>심부름꾼이 가서 소식이 없거나 또는 회답이 더딜 때를 비유하는 말</p>	
<p>狐假虎威</p> <p>여우 호, 거짓 가, 범 호, 위엄 위</p>	<p>= 원님 덕에 나팔 분다.</p>
<p>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린다는 말</p>	

기초의
답이다

Power

영어

01 마무리 어법 정리

02 마무리 구문 정리

01

마무리 어법 정리

001 look, feel, sound, taste, smell

He **looks** strangely. (×)

This food **tastes** terribly. (×)

※ look(보이다), feel(느껴지다), sound(들리다), taste(맛나다), smell(냄새나다)로 해석될 때만 그렇다.

002 want

He **wants that** his son was involved in drugs. (×)

003 ask

John **asked me that** the parrot can talk. (×)

John **asked** the question **to me**. (×)

The question **was asked to me**. (×)

004 do a favor

He **did a favor to me**. (×)

005 envy, save, forgive, pardon, cost

She **envied** my car **for me**. (×)

My car was envied me by her. (×)

※ save가 '비축, 저축하다'일 때는 그렇지 않다.

006 have, make, let, see, watch, look at, notice, hear, listen to 등의 지각·사역동사

He **had his men to carry** the box. (×)

I **saw her to meet** the man whom you talked about. (×)

I **had the box carry**. (×)

She wants to **have her clothes looked** beautiful. (×)

cf He **got his men carry** the box. (×)

cf He has many books **to read**. (○)

※ 'O가 r.v하도록 시키다'의 의미일 때만 그러하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 그렇지 않다.

007 hope, try, say

He **hoped his son to marry** next year. (×)

I will **try you to pass** the exam. (×)

008 force, enable, urge, cause, allow, permit

They **urged us of approving** the plan. (×)

The plane **enable our travelling** around the world faster. (×)

He **allowed my going** home. (×)

cf I **was allowed going** home. (×)

cf They **allowed smoking** here. (○)

009 graduate, complain, wait, apologize ...

I **graduated the high school**. (×)

He **waited me** for an hour. (×)

He **apologized me** about the accident. (×)

※ 이외에 argue, consent, experiment, sympathize 등도 자동사이므로 전치사가 있어야 명사를 뒤에 사용할 수 있다.

010 hope for A, dream of A

They **hope my success**. (×)
They **dreamed their success**. (×)
They **dream to pass** the exam. (×)

011 marry, discuss, greet, await, mention ...

He will **marry with** her next month. (×)
They **discussed about** the matter for three hours. (×)
He **awaited for** an hour. (×)
※ 이외에 resemble with, leave from, emphasize over, reach at, enter into 장소, inhabit in, greet to 등의 표현도 틀린 표현이다. 이들은 타동사의 속성이 있으므로 목적어를 쓸 때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012 resemble, belong to

He **is resembling** his father. (×)
His father **is resembled** by him. (×)
Dok-do **is belonging** to Korea. (×)
※ belong의 경우 전치사 to(~에 속하다)와 결합하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013 say, explain, suggest, announce ...

He **said me** that he was honest. (×)
They **explained us** the rule of the game. (×)
cf I **was said that** he was innocent. (×)

014 remind, inform, convince, assure

This song **reminds me my mother**. (×)
He **convinced that** he would pass the exam. (×)
He **informed of** his arrival. (×)

015 excited, satisfied, interested, bored, disappointed, bewildered ...

The game **was excited**. (×)
He **is interesting in** the investment. (×)
I like **an interested book**. (×)
※ 이외에도 surprised, perplexed, angered 등도 그러하다.
※ interesting in, satisfying with, concerning about, worrying about, surprising at, involving in, comparing with (to)도 틀린 표현임

016 rise, raise / arrive, reach / sit, seat / wait, await

He **raises the curtain** every morning. (×)
He **seated on** the chair. (×)

017 effect, affect

His decision **effected us**. (×)
His decision will **have an affect** on us. (×)

018 result from, result in

The accident **resulted in the driver's carelessness**. (×)
The accident **was resulted from** the driver's carelessness. (×)
※ result from + 원인, result in + 결과 : 둘 다 수동태 표현 사용 못함

019 thank, appreciate

He will **appreciate for** your help. (×)

020 ago, just now, 의문사 when, in one's day, yesterday, in+특정연도 ...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three days **ago**. (×)

I don't know **when** he **has returned**. (×)

cf I have known him since three years ago. (○)

021 for + 기간명사

I **am** ill **for three days**. (×)

I **was** ill **for three days** when I **met** him. (×)

He **waited for an hour before** I got there. (×)

She **has died for ten years**. (×)

cf I was ill for three days. (○)

cf **During three days**, I stayed in Seoul. (×) : during은 기간명사와 함께 사용 안 됨

022 since + 과거 (~한 이후로)

I **liked** a fantasy story **ever since** I **was** young. (×)

I have met many people **since** I **come** here. (×)

I **knew** him **since then**. (×)

cf It is ten years since I met him. (○)

023 when(시간표시 부사절일 때), before, as soon as, until, till, after, by the time ...

It will not be long **before** he **will** come. (×)

When he **will** come here, I will tell the accident. (×)

cf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 back. (○)

024 no sooner ~ than

They **have no sooner seen** a policeman **than** they **showed** their heels. (×)

They had **no sooner** seen a policeman **before** they showed their heels. (×)

No sooner they had seen a policeman than they showed their heels. (×)

※ hardly[scarcely] ~ when[before]도 용법이 동일하다.

025 lay

He **lay** a trap for the kidnapper. (×)

Let it **lay** there. (×)

026 hung, hanged

He is the last man to **be hung** for murder in this country. (×)

She **hanged clothes** on a line. (×)

027 born, borne

The woman **has born** five children. (×)

The baby **was born by** the beautiful woman. (×)

028 be having

He **is having much money** with him. (×)

She **is having much time**. (×)

cf She is having breakfast now. (○)

cf They are having a terrific time at the hall. (○)

029 as far as ~ be concerned

As far as I concerned, I am an expert at lowering manufacturing. (×)

030 make oneself understood

He can't make himself understanding in English. (×)

031 lack, disappear, originate, occur, happen, take place, remain ...

He is lacked in common sense. (×)

My car was disappeared. (×)

cf I found my car disappeared. (×)

032 be stolen, be robbed

I was stolen last night. (×)

My wallet was robbed. (×)

033 be seen[heard, made] to r.v

She was seen enter the building by many people. (×)

He was made sing a song. (×)

034 be 생각, 말하다 p.p to r.v/to have p.p

He was said to kill himself. (×)

She was believed to be a beauty in her day. (×)

※ '생각, 말하다' 동사 : think, believe, suppose, say, report 등

035 Let (대)명사 be not p.p : 틀린 표현

Let it be not done! (×)

036 be p.p by no+명사 : 틀린 표현

The fact was believed by nobody. (×)

037 be to be blamed : 틀린 표현

You are to be blamed. (×)

038 It is 당위형용사 that 주어 should r.v 또는 r.v

It was imperative that he acted as naturally as possible. (×)

It is necessary that he will go there. (×)

※ 당위형용사 : imperative, important, necessary 등

039 주,요,명,제,추천 동사 that 주어 should r.v 또는 r.v

The doctor insisted that the patient took a rest. (×)

The police gave an order that all weapons were handed in. (×)

※ that절 안의 내용이 당위(올바름, 해야 한다)의 내용일 경우에 적용된다. 단순사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추천 동사

insist, move, demand, request, order, command, suggest, advise, recommend ...

※ 위의 동사의 명사형 다음에 that이 올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040 lest

He lowered his voice lest he should not be heard. (×)

I was afraid lest he came too late. (×)

041 be used to

He **is used to** drive a car. (×)

cf Coils are **used to** store large amount of electricity. (○)

042 must[may, cannot] r.v / must[may, cannot] have p.p

He **must be** ill **three days ago**. (×)

It **may rain** last night. (×)

※ 추측의 경우

043 would rather r.v ~ than r.v

He would rather die **than living** in dishonor. (×)

He **would not rather buy** the book. (×)

044 had better r.v

You **had better to go** out. (×)

You **had not better go** out. (×)

cf You **would do well** follow his advice. (×)

045 may as well r.v ~ as r.v

You **may as well** not know a thing at all **than** know it imperfectly. (×)

046 can't help ~ing

I **cannot help to think** this is very queer. (×)

I **cannot (choose) but to think** this is very queer. (×)

I **have no choice but think** this is very queer. (×)

047 many, much, few, little

I need **many information**. (×)

There is **few money** in the box. (×)

I have **much books** to read. (×)

He has **little wants**. (×)

048 a number of / the number of

A number of people **has** bought the car. (×)

The number of the cars in Seoul **have** increased. (×)

We need **a number of** sugar. (×)

049 information, baggage, evidence, news, furniture, homework 등은 절대적 불가산 명사

We need **an information** about the case. (×)

There are **many furnitures** in that room. (×)

※ 이외에도 clothing, scenery, poetry, machinery, advice(충고)가 있다.

050 family, audience, committee, team, class 등은 집합명사

My **family is all** well. (×)

The **committee was** divided in **their** opinion. (×)

051 put on airs, take pains, customs office 등은 분화복수

They **took pain** to accomplish this work. (×)

He **put on air** when I met him. (×)

※ various goods, savings account, by means of, claim damages 등이 잘 나오는 분화복수이다.

052 politics, economics, statistics 등의 -ics로 끝나는 학과명

Politics are very popular among the students. (×)

cf Statistics shows that the recession will be over soon. (×)

※ 학과명 외의 뜻일 경우에는 복수 취급함

053 (관사) 수사-단수명사 + 명사

He has a three-years-old daughter. (×)

The six-parties talk will be held in June. (×)

054 수사 + 수사

I began with a salary of two hundreds dollars. (×)

cf Hundred of people came to the concert. (×)

055 all, both, double + 중심한정사

Your both hands are dirty. (×)

I paid the double price. (×)

056 Every of, almost of, almost 명사 : 틀린 표현

Every of the student has his own duty. (×)

057 play the 악기명, play 무관사 운동경기명

Can you play (a) piano? (×)

He played a baseball this afternoon. (×)

058 by + the 시간, 길이, 중량의 단위 / by 무관사 교통, 통신수단

Sugar is sold by a pound. (×)

They are paid by a month. (×)

He usually comes here by a bus. (×)

cf I came here by foot. (×)

※ 단위 : yard, pound, kg, feet, day, month, year 등

059 무관사 식사명, 무관사 질병명

He usually has a muffin and a cup of coffee for a breakfast. (×)

He is suffering from a cancer. (×)

※ 식사명 : breakfast, lunch, dinner

질병명 : diabetes, measles, rabies

※ 가벼운 병명(headache, stomachache, cold) 등은 관사 사용함

060 a[the] kind[sort, type] of 무관사명사

He is a kind of a gentleman. (×)

cf The room is kind of dark. (○)

061 so[as, too, how, however] 형 a 명

How a beautiful woman she is! (×)

He is as a kind boy as you are. (×)

You can never do it so a short time. (×)

cf She had so a fright that she fainted. (×)

062 all of, most of, some of, 분수 of, the rest of, the majority of the 명사

All of students are late for school. (×)

Most of the land are dry. (×)

Two-thirds of these books is of no use. (×)

063 one of, each 명사 of, every 명사 of 복수명사

I will buy **one of his work**. (×)
Each of the students **have** his own duty. (×)

064 many a 단수명사 + 단수동사

Many a mother try to act out her unrealized dreams through her daughter. (×)

065 be absent from, be present at

He **was absented** from school yesterday. (×)
He **absented from** school yesterday. (×)

066 make[think, believe, find, keep, leave] + it + 형용사, 명사 + to r.v (that ~, ~ing)

How a beautiful woman she is! (×)
I **believe it possibly to** master English soon. (×)
Many students **find it difficulty to** study regularly. (×)
Many students **find difficult to** study regularly. (×)
I **believe that necessary for him to go** to school. (×)

067 so 조동사 주어 / neither 조동사 주어

Jane has finished her mission and **so Tom has**. (×)
He is not a teacher and **neither I am**. (×)

068 another

I am going to stay **another weeks**. (×)
He lost **another leg** in the war. (×)
I need **another information** about the case. (×)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is **the other**. (×)

069 any

Anyone doesn't believe the fact. (×)

070 both, either, neither

Either of the stories **are** true. (×)
Neither of the stories **are** true. (×)
Neither of the stories **is not** true. (×)
Either of the three sisters is a teacher. (×)
Either you or **he are** a teacher. (×)
Neither you **or** he is a teacher. (×)

071 nor

He is not a teacher **nor you are** a teacher. (×)
He **nor** you are **not** a teacher. (×)
Mary will not go there, **neither will I**. (×)
※ nor가 (대)명사 둘을 연결하여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도치 없음

072 How + 완전, What + 불완전

How do you **think** of the case? (×)
How does it look **like**? (×)
What you say it is as important as **how you say**. (×)

073 how 형, 부 / However 형, 부

However he may try **hard**, he will not finish the work in a week. (×)
How is the lake **deep**? (×)

074 Do you think[suppose, believe, guess 등] + 의문사~ : 틀린 표현

Do you think **where** he lives? (×)
Do you suppose **what** he wants? (×)
cf Do you know what he wants? (○)

075 alive, alike, drunk 등의 서술적 용법 형용사

I want to buy **an alive tree**. (×)
This hat is **alike that hat**. (×)
He is **a drunk man**. (×)
cf He **is drunken**. (×)
※ 'a-'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는 사용될 수 없음

076 형용사 + -thing : 틀린 표현

I need **hot something** to drink. (×)
We want **new something**. (×)

077 Well, Never, Hardly, Scarcely, Seldom, Only + 부사어 등이 문두

Well I remember those happy days. (×)
Never I dreamed that I would pass the exam. (×)
cf I **never have seen** a tiger. (×)
※ 빈도부사는 조동사 다음, be동사 다음, 본동사 앞에 위치함

078 hard, easy, difficult, pleasant, convenient, possible, impossible

If **you are convenient**, I will do that. (×)
If **you are pleasant**, I will do anything. (×)
He **is hard to** please her. (×)
It is easy that I will please her. (×)
※ possible, impossible의 가불형용사는 It is ~ that 진-가주어 사용 가능

079 The English, The Chinese, The French

The English **is** a nation of shopkeepers. (×)
cf English language **is** difficult to learn. (×)

080 be worth

This book **is worth of** reading twice. (×)
This book **is worth to be read**. (×)
This book **is worth being read** twice. (×)
cf This book **is worthy being** read twice. (×)

081 very

Mary **is very more beautiful** than Jane. (×)

082 enough

Allan can walk **enough well to** get around. (×)
He **is enough old to** live alone. (×)

083 only

Only after[not until] I knew the fact **I believed** her. (×)
Only then Ginny **realized** that she still hadn't phoned her mother. (×)

084 every 11수 복수명사 / every 11수 단수명사

The Olympic Games are held once **every four year**. (×)
The Olympic Games are held once **every fourth years**. (×)

085 all, every, next, this 시간명사

We stayed in Seoul **for all week**. (×)
I got up early **in this morning**. (×)

086 home, abroad, downtown ...

He **went to home**. (×)
They **went to abroad**. (×)
cf They came from abroad. (○)

087 until, by + 시간

He **will finish** the work **till four o'clock**. (×)
He **will stay** here **by four o'clock**. (×)

088 In spite of, despite ...

Despite of his poverty, he is honest. (×)
Despite he is poor, he is honest. (×)

089 whom / whomever

I will employ a man **whom is** honest. (×)
I will employ a man **whom I think is** honest. (×)
I will give it to **whomever wants** it. (×)

090 the only one of 복수명사 관계대명사

She is **the only one of the girls who were** given the award. (×)

091 whose 명사

This is the word **the whose** meaning I don't know. (×)
This is the word **whose the** meaning I don't know. (×)

092 관계대명사 that

I have been to Paris, **that is** famous for art. (×)
This is the house **of that** he spoke. (×)

093 want[need, deserve, be worth] ~ing

The shoes **need being repaired**. (×)
He **deserves being praised**. (×)

094 enjoy, finish ~ing

They **enjoyed to play** basketball. (×)
They **give up to smoke**. (×)
They **are considering to write** his uncle. (×)
※ 이외에도 quit, give up, practice, anticipate, allow, permit, consider, suggest, avoid, dislike 등이 있다.

095 stop to r.v / ~ing

He caught a cold, and so **stopped to smoke**. (×)
You should **stop thinking** before you act. (×)

096 remember, regret, forget to r.v / ~ing

I **remember to send** the letter yesterday. (×)
She **forgot turning** off the radio, and so it is still on now. (×)

097 look forward to ~ing

I **look forward to see** you soon. (×)

※ look forward to 외에 admit to, confess to, object to, fall to, take to, be opposed to, be used to('익숙하다'일 때), when it comes to, what do you say to, with a view to 도 뒤에 ~ing형이 와야 한다.

098 know wh- to r.v

I don't know to swim. (×)

099 would[could, might] have p.p

If he **were** rich, he would have gone abroad last year. (×)

100 Were it not for~

Was it not for water, nothing could live. (×)

cf **Have it not been for** bread, he couldn't have lived then. (×)

101 otherwise

He **was** busy; **otherwise**, he **would come**. (×)

102 wish 주어 동사

I **wish** that I **am** rich. (×)

I **wish** I **could go** with them **that day**. (×)

103 superior, inferior, senior, junior

He is **more senior** to me. (×)

He is **seniorer** to me. (×)

He is **senior than** I. (×)

104 of the two, of the twins, between A and B

Tom is **taller of the two**. (×)

Miranda is **the most attractive of the twins**. (×)

105 any other 단수명사, all the other 복수명사, anything else

He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s** in his class. (×)

He is taller than **any student** in his class. (×)

106 much[still] more / much[still] less

He **speaks** French, **still less** English. (×)

He **can't speak** English, **much more** French. (×)

107 부정의 중복

He **won't hardly** go to church. (×)

She wouldn't go with him **unless** I **didn't** come too. (×)

There is **no one but doesn't love** his country. (×)

108 not to r.v / not having p.p

He tries his best **so as to not make** the same mistake. (×)

Having not finished the work, he couldn't go home. (×)

109 prefer ~ing to ~ing

I prefer taking taxi to go on foot. (×)

110 succeed in ~ing, 명사

He succeeded to pass the exam. (×)

111 know better than to r.v

He knows better than do such a thing. (×)

112 The 비교 주어 동사, the 비교 주어 동사

The more carefully you write, fewer mistakes you will make. (×)

※ 문법 및 어법 문제 풀이

1. 주요 어법 단어들을 먼저 살펴본다.
2. 문장구조를 살핀다 : 주요소와 수식요소를 나눈다. 주요소가 모두 있는지를 살핀다.
3. 주어 또는 서술어에 밑줄이 있으면 주어와 서술어의 수일치를 본다. (동사가 현재형이거나 be 동사일 경우)
4. 동사를 볼 때는 수일치, 시제, 태, 종류(자·타동사, 수여동사)를 살핀다.
5. 명사의 경우 단·복수 문제가 나온다. 특히 명사 앞에 수·양 표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6. and가 보이면 병치를 살핀다.
7. 형용사 또는 부사의 경우 둘의 구별 문제를 주로 살핀다.
8. ing형과 p.p형의 구별을 살펴본다.
9. 동사가 둘 이상인 경우 접속사 유무를 본다. 생략되는 경우가 아니면 접속사가 있거나 준동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comma)는 동사 둘을 연결하지 못한다.
10. 관용적 표현은 그대로 써야 한다.
11.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별을 살핀다. 이때, 의미 파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12. 관계사가 나오는 경우 문장의 완전, 불완전 여부를 살핀다.
13. 전치사는 숙어 문제로 주로 나오는 앞의 단어와의 호응을 살핀다.
14. would[should, might, could] have p.p형은 가정법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으로 시제를 살펴야 한다.
15. 추측 표현은 시제 관련 문제로 출제된다.
16. to 부정사와 동명사 구별이 필요하다. 특히 타동사 뒤에 있을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02

마무리 구문 정리

001 It is 형용사 for 목적격 to r.v ~

It is not necessary for a woman to shake hands with a man.

002 It is 인성형용사 of 목적격 to r.v ~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the poor.
※ 인성형용사 : cruel, nice, considerate, sensible 등

003 It is 형용사 that ~

It is strange that you should disagree with me.
It is doubtful whether they will win the game.

004 It seems that ~ : that ~ 인 것 같다 (추측)

It seems that he has much to do with the scandal.
= He seems to have much to do with the scandal.

005 It is said[believed, thought] that ~ : that ~ 라고 말해진다[생각된다]

It is said that she was a beauty in her day.
= She is said to have been a beauty in her day.
cf He is believed to be rich.

006 It is ~ that 표현의 강조용법

It was in this coffee shop that I first met my wife.
It is not what he has but what he is that is important to me.
It is the conceit that[which] corrupts man.

007 It is not until B that A [not A until B] : B 해서야 비로소 A 하다

It was not until I met him that I knew the value of the document.
= I didn't know the value of the document until I met him.
= Not until I met him did I know the value of the document.

008 타동사 it 형용사/명사 that ~ (to r.v.절 등)

I found it difficult to study English regularly.
I make it a rule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I take it for granted that he should support his family.
※ make, think, believe, keep, find, leave 등의 동사가 주로 사용됨

009 타동사 +(대)명사 to r.v 구조의 5형식 : (대)명사가 to r.v의 의미상 주어

He wants me to pass the exam.
I think him to be innocent.
He got his men to carry the box.
※ 주로 인식(think, believe) 기대(expect, want), 행위 유발(명령, 강요, 허가, 가능 유발 동사 : order, urge, force, compel, allow, permit, enable, cause, get 등) 동사가 이 구조에 사용됨

010 지각·사역동사 + (대)명사 + r.v(원형부정사) 구조의 5형식

He **had his man carry** the box.

I **saw her enter** the building.

※ 사역동사 : have, make, let(준사역 : help, bid- to r.v 구조도 가능)

지각동사 : see, watch, look at, notice, observe, hear, listen to, feel 등

014 금지동사 + A(명사, 대명사) + from + ~ing : A가 ~ing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The heavy rain **prevented** me **from going** there.

His low salary **dissuaded** him **from buying** the car.

cf They talked me into doing the job. : into를 사용하면 '하게 하다'는 의미가 된다.

※ 금지동사 : stop, hinder, prohibit, keep, dissuade, discourage, ban, forbid(forbid는 5형식 구조로도 사용 가능)

011 타동사 + (대)명사 + p.p 구조의 5형식

He had **the box carried** by his men.

I found **my watch stolen**.

cf I saw **him entering** the building.

015 타동사 A as B : A가 B라고 생각하다, 말하다

Americans **look upon** automobiles **as** nothing but a means of transportation.

※ 주로 사용되는 동사 : consider, regard, look on, think of, refer to, define 등

012 타동사 + (대)명사 + 형용사 구조의 5형식

Mother always keeps **our house neat and tidy**.

He left **the window open**.

They believe **him honest**.

※ 주로 make, find, believe, keep, leave 등의 동사가 사용됨

016 완료형(A) since 과거(B) : B 이래로(이후로) 계속 A하다

Ten years **have passed since** he **went** to America.

I **have known** him **since four years ago**.

cf It is[has been] ten years **since** he **went** to America.

※ It is 시간 since ~ : ~ 한지 시간이다.

013 기본동사 + 행위명사 + 전치사(of) : 명사형 문체

He **made careful study of** the event.

cf He **was ignorant of** the fact. (형용사형 문체 : be 형용사 of)

※ 기본동사 : have, do, make, take, give, do 등

017 It will not be long before ~ : 머지않아 ~ 할 것이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Korea plays a key role in the world.

※ before 뒤에 will, would, shall 등의 단순미래를 사용할 수 없음

018 주어 had not p.p ~ before A : 채 p.p 하지 않아 A 했다.

I **had not walked** a mile **before** I was tired.

019 주어 had no sooner p.p(A) ~ than 주어 과거동사(B) : A 하자마자 B 했다

They **had no sooner seen** a policeman **than** they ran away.

No sooner had they **seen** a policeman **than** they ran away.

They **had hardly seen** a policeman **when** they ran away.
Hardly[Scarcely] had they **seen** a policeman **when[before]** they ran away.

On seeing a policeman, they ran away.

As soon as they saw a policeman, they ran away.

※ as soon as 대신 the moment, the instant, instantly,
 immediately 사용 가능

020 주어 be p.p to r.v 구조의 5형식 수동태

He **is expected to complete** his mission.

cf He **is said to have killed** himself.

cf The book **is used** (to study English).

021 be p.p형의 형용사 + 전치사 (상태수동)

He **is interested in** English literature.

He **is satisfied with** the result.

He **was devoted to** his art entirely.

They **are concerned about** his son.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

※ 희비/경악/분노 : at, 만족/불만/도구 : with, 헌신/귀속/관련 :
 to, 걱정/근심 : about, 흥미/종사 : in, 자격/적합 : for

022 should have p.p : p.p 했어야 했는데(과거사실에 관한 유감표현)

You **should [ought to] have said** the fact to me.

You **should not have said[ought not to have said]** the fact to your parents.

023 need not have p.p : p.p 할 필요가 없었는데(그러나 했다)

You **need not have written** the letter to me.

= You **didn't have to write** the letter to me, **but** you **wrote**.

024 seem to r.v : r.v 인 것 같다 / seem to have p.p : p.p 이었던 것 같다

He **seems to be** ill.

cf He **seems to have been** ill.

025 must r.v : r.v 임에 틀림없다 / must have p.p : p.p 이었음에 틀림없다

He **must be** honest.

cf He **must have been** honest.

026 may r.v : r.v일지도 모른다 / may have p.p : p.p 이었을지도 모른다

He **may be** ill.

cf He **may have been** ill that day.

027 cannot r.v : r.v일 리가 없다 / cannot have p.p : p.p 이었을 리가 없다

It cannot be true.

cf It cannot have been true.

031 cannot help ~ing : ~ing 할 수 밖에 없다

I cannot help laughing at the sight.

= I cannot but laugh at the sight.

= I have no choice but to laugh at the sight.

028 ~하는 것이 좋다 : 권고, 충고의 표현

You may as well not know a thing at all as know it imperfectly.

I would rather die than live in dishonor.

You had better buy a second hand car.

032 be 형용사 to r.v

Money is bound to tell.

Such a trend is likely to continue.

He is going to retire next month.

The car is able to leap a tall building with a bound.

※ 이외에, be apt[prone, inclined] to r.v(r.v하는 경향이 있다), be supposed to r.v(r.v하기로 되어 있다), be due to r.v(r.v 할 것이다), be about to r.v(곧 r.v 할 것이다), be willing to r.v(기꺼이 r.v 하다), be sure to r.v(반드시 r.v 하다) 등이 있다.

029 cannot ~ too : 아무리 ~ 해도 지나치지 않다

We cannot treat a child too well.

= It is impossible too treat a child too well.

※ too 외에 enough, to excess, over 등이 cannot과 함께 쓰이기도 함. not 대신 hardly, never 등의 준부정어도 사용 가능

033 used to r.v : r.v 하곤 했다 / r.v이었다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at that village.

I used to be afraid of computers.

cf He is used to eating American foods.

030 cannot ~ without ... (cannot ~ but 주어 동사) :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I can't see this picture without being reminded of my mother.

= I never see this picture but I am reminded of my mother.

= Whenever[Everytime] I see this picture, I am reminded of my mother.

034 동사 + to r.v

He has to keep his promise.

Nowadays, family fails to provide the basic satisfaction.

※ tend to r.v(r.v하는 경향이 있다), seem to r.v(r.v인 것 같다) continue to r.v(계속하여 r.v 하다), need to r.v(r.v 할 필요가 있다)

035 have the 추상명사 to r.v : r.v 할 정도의 그런 추상명사를 가진다

He **had the kindness to show** me the way to the store.
 = He was **so kind as to show** me the way to the store.
 = He was **so kind that** he showed me the way to the store.

036 소유격 + 행위명사 : 명사질의 변화

John's **success** is out of question.
 They came to **his protection**.

037 few, a few, not a few의 쓰임

He has **few** friends. (부정)
 He has **a few** friends. (긍정)
 He has **not a few** friends. (긍정)

038 little, a little, not a little의 쓰임

I have **little** money with me. (부정)
 I have **a little** money with me. (긍정)
 I have **not a little** money with me. (긍정)

039 not so much A as B : A라기 보다는 B이다

He is **not so much** a scholar **as** a statesman.
 = He is a statesman **rather than** a scholar.
cf She can **not so much as** write her own name.
cf He left **without so much as** saying good bye to me.

040 전치사 + 재귀대명사

Tom does everything **for himself**.
 He lives in that house **by himself**.
 The candle went out **of itself**.
 ※ 이외에도 **beside oneself**(제정신이 아닌), **in itself**(본질적으로), **in spite of oneself**(자신도 모르게) 등이 있다.

041 It takes A 시간 to r.v : A가 r.v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걸리다)

It takes him three years to master the skill.
 = It takes three years for him to master the skill.
cf It costs me five hundred dollars to make that product.

042 Those who ~ : ~하는 사람들

Those (who are afraid of asking) are ashamed of learning.
cf He **who** likes borrowing dislikes paying.

043 such as ~ : ~와 같은 (예시 표현)

Autumn gives us fruits **such as** pears, persimmons, and apples.
cf They will choose **such** men **as** Washington and Lincoln as their leader.
 ※ such A as B : B와 같은 그런 A

044 that of 명사 / those of 명사

The population of China is much larger than **that of** Korea.
 Austrian wine styles are similar to **those of** Northern Germany.

045 so 조동사 주어 : 주어 또한 그렇다 / neither 조동사 주어 : 주어 또한 아니다

Jane is so pretty and so is Mary.
Jane didn't attend the meeting and neither did Mary.

046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 A와 B는 별개의 것이다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is another.

047 thing을 이용한 관용적 표현

He is anything but a scholar. (= never)
The fact has nothing to do with the event.
The paper leaves nothing to be desired.
※ 관련의 정도에 따라 have to do with(관련이 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약간 관련이 있다), have much to do with(많은 관련이 있다), have little to do with(거의 관련이 없다) 등으로 표현한다.

048 not + 전체표현 : 부분 부정

I don't know both of them.
I did not invite all of them.
※ 전체 표현으로는 이외에도 completely, always, necessarily, every + 명사 등이 있다.

049 의문사 do you think[believe, suppose, imagine ...] 주어 +동사 ...?

What (do you think) he wants?
What (do you think) made him so angry?
How (do you think) he completed the mission?
※ 의문사 do you think[believe, suppose, imagine ...] 뒤에 바로 동사가 올 수도 있음(의문사가 주어 역할)

050 How + 형용사/부사 : 얼마나/매우

Do you know how many mistakes he made?
You know how astonished I am at the news.

051 be 난이(가물)형용사 to r.v ~

English is difficult to master in six months. (○)
(= It is difficult to master English in six months.)
He is possible to persuade. (×)
※ 난이형용사 : hard, difficult, easy, convenient, pleasant 등
가물형용사 : possible, impossible 등

052 전치사 in 생략 관용적 표현

They had difficulty (finding the building).
He is busy (studying English).
She used to spend her most time (helping the disabled).
※ have difficulty in ~ing 경우 difficulty 대신 a hard time, trouble을 사용하기도 함. 또한 명사가 뒤따를 경우에는 with를 사용. (be busy도 명사가 뒤따를 때는 마찬가지로, spend는 on 사용)

053 전치사 + ing

In speaking to others, be polite.
On entering the room, he fell asleep.
Reporters can cause untold suffering to individuals by publishing details about their private lives.
He has a habit of biting his nails.
cf In spite of his poverty, he is honest.
※ 전치사 뒤에 동명사(~ing) 외에 행위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054 to[into] + 명사 : 결과를 표현하는 경우 (이때 동사는 주로 수단, 방법으로)

The dog was beaten **to death**.
 She was moved **to tears**.
 He broke the vase **into pieces**.
 They forced him **into doing** the job.
cf They forced him **out of the job**.
cf They drank afternoon **away**.
cf He was locked **out of the car**.

055 전치사 of : ~이, ~가, ~를, ~가진, ~의 등

Society **is of** the opinion that all men are equal before law.
 The examination **of** the event will reveal the truth.
 This device slows down the permeation **of** water.
 ※ be of는 have의 느낌으로 해석함

056 not A but B : A가 아니라 B

Emerson's faith was **not** in machinery **but** in man thinking.
 He is **not** making a general statement about vegetable cookery **but** voicing a criticism of American food.
cf Emerson's faith was in man thinking, **not** in machinery.
 ※ but 이하의 내용에 중심, 핵심이 있다.

057 not only A but also B :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Ecology must aim **not only** at optimum use **but also** at optimum conservation of resources.
 He wants to be taken seriously **not only** as a musician **but also** as a poet.
cf **Not only** does he want to be taken seriously as a musician **but also** as a poet.
cf **As well as**[Besides, In addition to] cultivating grain, he runs a grocery store.
 ※ A와 B 둘 다를 말하지만, 강조가 B에 있음.
 ※ not only가 문두에 있으면 도치된 문장.

058 부정어 ~ but 구문 : ① 부정어 so ~ but : 너무 ~ 해서 but 이하 하지 못하지 않다 ② 부정선행사 but 동사 : 동사 하지 않는 명사는 없다(이중 부정)

No one is **so** old **but** he may learn.
 (= **No** one is **so** old **that** he may **not** learn.)
 There is **no one but** loves his country.
 ※ 부정선행사 : no[little, few] + 명사

059 not A until B : B해서야 비로소 A하다

It was not until I met him **that** I knew the fact.
 I didn't know the fact **until** I met him.
Not until I met him **did I know** the fact.
 ※ not until이 문두에 있으면 도치된 문장

060 동사원형을 이용한 양보표현

Say what he will, no one believes him.
Be it true or not, it is not worth considering.
Be it ever so hum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Try as you may, you can never do it in a week.
cf **Poor as** he is, he is honest.
cf **Hard as** he may try, he can't finish the work in a week.

061 so 형용사, 부사 that ~ : 너무 형용사, 부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 that 이하 하다

The power of the Chinese monk is **so** great **that** he can lift a grown-up man up.

The argument grew **so** tempestuous **that** they punched each other.

cf **So great is the power** of the Chinese monk **that** he can lift a grown-up man up.

※ so 형용사, 부사가 문두에 있으면 도치된 문장

※ so 다음의 어순(형 + a + 명)에 주의

064 Many people think [say, believe ...] that ~ : 통념 표현

Many people worry needlessly **that** they do not have a good sense of humor.

Most people believed that they can drink and be alert drivers.

※ 주로 통념 표현은 비판할 때 많이 사용, 그러므로 but, owever 등과 함께 자주 사용됨

062 too 형, 부 to r.v : 너무 형, 부 해서 r.v할 수 없다.

He was **too** fat **to** get through the door.

= He was **so** fat **that** he **couldn't** get through the door.

The box is **too** heavy **for** him **to** lift.

= The box is **so** heavy **that** he **can't** lift it.

cf One is **never too** old **to** learn.

cf I was **too** glad **to** meet you.

※ too 다음의 어순(형 + a + 명)에 주의

※ to r.v 다음에 주어와 동일한 대명사가 사용되면 안 됨

065 첫 문장의 수적 개념 : 열거표현

The four[Several] essential attributes are needed for success.

※ 첫 문장의 수 개념(two, three..., several, many)등은 열거할 경우 주로 사용, 뒤에 열거 장치 확인이 필요

063 접속사, 접속부사 : 문장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장치

Helen thinks Tom is a good artist; **but** she can't trust him.

She always thinks of what she can never do. **In short**, she is a dreamer.

cf She always thinks of what she can never do. She is, **in short**, a dreamer.

066 명사 뒤에서 사용되는 형용사어의 여러 모습

The man (**who is talking with my father**) is my teacher.

The man (**with information power**) can manipulate a man (without such power).

Dok-do is an island (**belonging to Korea**).

Some people become blind because a part of the eye (**called the cornea**) doesn't let in enough light.

He has an opinion (**different from mine**).

He has many books (**to read**).

※ 명사 뒤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어의 모양으로는 ① [관계사절 : wh-], ② [전치사구], ③ [분사절 : ~ing, p.p. 형용사+전치사+명사], ④ [to 부정사절]이 있다.

067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전치사 + which, 전치사 + whom, 전치사 + whose 명사

We should get back the right **of which** they deprived us.
There are many ways **by which** man arrives at a truth.

cf This is the word **the meaning of which** I don't know.

※ 전치사 +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치사구를 이룬다. 주로 문미 쪽으로 이동시켜서 문맥을 파악하면 효과적이다. 전치사 +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068 관계사의 생략 : 명사 + (대)명사 + 동사

He gave me the pen (**he had written his book with**).
The man (**you saw yesterday**) is my English teacher.

069 what과 관련된 관용적 표현 : A is to B what C is to D, what one has, what one is, what we call

Reading **is to** the mind **what(as)** exercise **is to** the body.
= **Just as** exercise is to the body, **so** is reading to the mind.

You should judge a man not by **what he has** but by **what he is**.

He is **what we call**(**what is called**) a self-made man.

※ **A is to B what C is to D**(A가 B에 대한 관계는 C가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what one has**(가진 것), **what one is**(인격 · 성격), **what we call**(소위)

070 관계부사가 명사절을 이끌 때 : 대표선행사 생략

That is **where he lives**.

That is **why I was angry with him**.

cf. This is because cordless drills are not as powerful.

※ 관계부사가 명사절을 이끌 경우 대표선행사 생략이므로 ~하는 시간, ~하는 장소, ~하는 이유, ~하는 장소로 해석. 의문부사의 경우도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 없음

071 복합관계사 : 양보 표현

However hard you may train, you will never make a top-class athlete.

Whichever you may choose, you will be satisfied.

※ 특히 복합관계사가 부사절을 이끌 때는 양보의 부사절임

072 wh- + to r.v : 명사절로 사용

I don't know **what to do**.

Jim told us **where to find** the book which I had lost.

Please tell me **how to get** to the station.

※ know와 관련하여 know to r.v는 틀린 표현이며 know wh- to r.v가 올바른 표현임

073 With 분사구문 : with 명사 + ~ing/p.p/형용사/전치사구

With the children going out, placidity came in.

With an eye bandaged, she could not write properly.

He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with his hat on**.

Don't speak to others **with your mouth full**.

※ with 다음의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임. 때, 이유, 양보, 조건, 동시상황의 부사절로 해석. 문미에 있을 경우에는 동시상황(부대상황)으로 해석

074 ~ing : and 동사가 바뀐 것 : 그리고 동사 하다, 동사 하면서

The plane blew up, **killing** all the people on board.

She was seated on the chair, **reading** a book.

※ 연속상황 또는 동시상황으로 해석

075 Without + 명사 : ~이 없다면, ~이 없었다면

Without your timely advice, I would not have succeeded.

= Had it not been for your timely advice, I would not have succeeded.

Without water, nothing could live.

= Were it not for water, nothing could live.

cf I could have done the work with your help.

※ without 대신 in the absence of를 사용해도 됨. 무관사의 경우 if there had no 명사, if there were no 명사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음

076 But that 직설법, 가정법 주절 : but that ~ : ~이 아니라면

But that he had a family, he would have left England long ago.

cf He would have come, but he was so busy.

※ 가정법 주절이 나올 경우 but으로 but that을 대신함

077 S wish (that) 가정법 : 현재 또는 과거의 불가능한 소망 표현

He wishes that he had gone with us that day.

He wishes he were rich.

078 The 비교 주어+동사~(A), the 비교 주어+동사~(B) : A하면 할수록 더욱더 B하다

The more carefully you write, the fewer mistakes you will make.

The higher the tree, the stronger the wind.

※ 두 문장에 모두 be동사가 사용될 경우 둘 다 생략 가능

079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Mt. Everest is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in the world.

Mt. Everest is higher than all the other mountains in the world.

Time is more precious thing than anything else.

※ 비교급 than 다음에 any other 단수명사, all the other 복수 명사, anyone else, anything else가 사용되면 최상급의 의미가 됨

080 부정주어+비교급 than, 부정주어+as(so) ~ as : 최상급 표현

No mountain is higher than Mt. Everest.

No mountain is so high as Mt. Everest.

There is no mountain higher than Mt. Everest.

cf The exam can't be more difficult.

※ can't 또는 never가 비교급과 함께 사용되어도 최상급 표현임

081 A is no more B than C is D : A가 B가 아닌 것보다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양자 부정)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a fish).

A whale is not a fish any more than a horse is.

cf He is no less guilty than you are.

※ no less ~ than을 이용하는 경우 양자긍정이 됨

082 완곡부정의 표현

He was the last man to tell a lie.

Your proposition is far from perfect.

He is anything but a scholar.

083 도치 구문 (조동사+주어+동사, be+주어)

Never did I dream that he made the mistakes.

So great was his power that he could lift that box.

※ 부정의 부사 never, seldom, hardly, scarcely 등이 문두에 오거나, not until, only after, so 형, 부가 문두에 오면 도치 시킴. nor 뒤에서도 도치를 시킴

084 도치 구문 : 자동사+명사주어 - 장소의 부사표현 뒤에서

At the end of the garden was a swimming pool.

Among the more curious questions that can be asked about love is this: is it staccato or legato?

085 무생물 주어구문 : 주로 이유부사절의 의미를 가짐

His father's sudden death forced him to give up school.
= As his father died suddenly, he was forced to give up school.

What made him so angry?

= Why did he get angry?

cf The examination of the event will reveal the truth.
※ 무생물 주어는 대개 이유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만, 조건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086 ~ing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동명사절, 분사절)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Jane.

Walking fast is good for health.

※ ~ing로 시작되는 경우, (comma)와 주어에 있는 경우 분사절로서 부사절이 사용된 것이다(때, 이유, 양보, 조건, 동시상황으로 해석). 동사 앞에 따로 주어 없다면 ~ing는 동명사로서 명사절이 사용된 것이다.

087 이유표현의 특별한 접속사 : on the ground that ~, now that ~, in that ~

He refused to come on the ground that he was not feeling well.

Now that[Since] he is ill, he can't be present at the meeting.

Men differ from brutes in that they can think and speak.

※ in that은 '~라는 점에서' 또는 '~ 때문에' 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주로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됨

088 so that : , so that : 결과 / so that ~ may[can] : 목적

His Parents died suddenly, so that he had to earn his living.

He works hard so that[that, in order that] he may pass the exam.

※ 결과를 표현하는 so that의 경우 대개 ,(comma)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음

089 Whether ~ or not :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니든지 간에

Whether he will come or not matters to me.

You must do it, whether you like it or not.

cf You must do it, whether or not you like it.

※ that은 or not과 함께 사용되지 않음

090 It is true that ~ , but ... : ~는 사실이지만 ... (일단 긍정 후 뒤집을 때 사용)

It is true that he is clever, but he has no common sense.

It is true that she is rich, but she is not generous to us.

※ that절 안의 내용과 but 이하의 내용이 서로 대조 관계

기초의
답이다

Power — 한국사

흐름을 잡는
테마별 마무리 한국사

01 선사 시대

구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굴, 강가(막집) • 평남 상원 검은 모루 동굴, 경기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가, 바닷가 → 정착 생활 • 움집 : 바닥 - 원형 또는 모가 둥근 사각형, 중앙 - 화덕과 저장 구덩 • 봉산 지탑리,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산임수의 취락(대체로 직사각형 움집), 화덕은 모퉁이에 위치 → 점차 지상 가옥화 • 고인돌, 돌무지무덤, 돌널무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널무덤, 독무덤
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뎀석기 : 주먹 도끼 · 찌개 → 사냥 • 굽개 · 밀개 → 조리 • 뼈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석기 : 돌괘이, 돌삽, 돌보습(농기구) • 가락바퀴 · 뼈바늘(의복, 그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석기 :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 청동기 :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기 : 철제 농기구, 무기, 도구 • 청동기 :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거꾸집(鬚) - 청동기의 독자적 발전 • 중국과의 교류(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붓)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마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덧띠 토기, 검은 간토기	
경제	채집과 사냥	사냥, 어로 → 농경 시작(잡곡류)	발농사(조, 보리, 콩) 중심, 벼농사 시작	철제 농기구 사용으로 생산량 증가, 교역 활발
사회	무리 생활, 이동 생활 → 평등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족 사회 → 족외혼 → 부족 사회 • 평등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급, 사유 재산제 발생 → 군장 사회 → 군장 국가(고조선) •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 선민사상 	부족 연맹 사회 → 연맹 국가 성립
신앙 · 예술	고래 · 물고기 조각(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시 종교 출현 :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조상 숭배 • 조개 껍데기 가면 • 흙으로 빚어 구운 얼굴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동제 의기(儀器), 토제품 - 주술적 의미 • 바위그림, 짐승 · 물고기 그림 - 풍요 기원 	

02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1. 고조선과 위만조선

고조선	위만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건국 •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성립 • 8조법(생명 존중, 농경 사회, 사유 재산, 가부장적 사회, 계급 사회) • 거친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고안돌, 비파형 동검 •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전 194년 유이민 출신인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수립 • 단군 조선의 정통 계승 • 철기 문화 수용 · 발달 • 중계 무역 전개 → 한과의 갈등 초래 • 한의 공격 이후 지배층의 내분으로 멸망(기원전 108년)

2. 여러 나라의 성장

구분	정치	경제	풍속	제천행사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부족 연맹체 → 왕 +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농, 반목 • 말, 주옥, 모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제점법 • 형사취수제 • 순장, 1책 12법 	12월 영고
고구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부족 연맹체 • 왕, 대가(사자, 조의, 선인) • 제가 회의 	악탈 경제(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옥제 • 형사취수제 	10월 동맹
옥저	읍군, 삼로(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 해산물 풍부 • 고구려에 공물을 바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머느리제 • 가족 공동묘 	×
동예		명주, 삼베,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족외혼 • 책화(타 부족 침범 시 배상) 	10월 무천
삼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분리 – 정치(신지, 읍차) – 제사장(천군 – 소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농사(저수지 축조) • 철 생산 多 → 낙랑 · 일본에 수출, 화폐로 이용(덩이쇠) 	두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수릿날 • 10월 계절제

03

삼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의 흐름

1. 왕대별 주요 사건

	고구려	백제	신라				
2세기	태조왕(53-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대 국가의 기틀 확립계루부 고씨 독점 왕위 세습옥저 정복 고국천왕(179-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왕위의 부자 상속진대법 실시	가야 연맹 <table><tr><th>전기 가야 연맹</th><th>후기 가야 연맹</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김해의 금관가야 중심532년 금관가야 병합(신라 법흥왕)</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고령의 대가야 중심562년 대가야 멸망(신라 진흥왕)</td></tr></table>		전기 가야 연맹	후기 가야 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김해의 금관가야 중심532년 금관가야 병합(신라 법흥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령의 대가야 중심562년 대가야 멸망(신라 진흥왕)
	전기 가야 연맹	후기 가야 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김해의 금관가야 중심532년 금관가야 병합(신라 법흥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령의 대가야 중심562년 대가야 멸망(신라 진흥왕)						
3세기	동천왕(227-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안평 공격 시도	고이왕(234-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대 국가의 기틀 확립한강 유역 점령, 율령 반포백관의 공복 제정					
4세기	미천왕(300-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낙랑 축출(대동강 진출) 고국원왕(331-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평양성 전투에서 전사 소수림왕(371-384) <ul style="list-style-type: none">불교 수용(순도)율령 반포태학 설립	근초고왕(346-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왕위의 부자 상속 확립『서기』 편찬(고흥)마한 정복요서 · 산동 · 규슈 진출왜왕에 칠지도 하사 침류왕(384-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불교 수용(마라난타, 384)	내물마립간(356-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왕호 변경(이사금 → 마립간)광개토 대왕의 지원으로 왜구 격퇴				
	5세기	광개토대왕(391-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초의 연호 사용(영락)후연 격퇴, 요동 장악한강 이북 진출 장수왕(412-491) <ul style="list-style-type: none">광개토대왕릉비 건립평양 천도경당 설치한강 유역 완전 장악 문지왕(491-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여 복속, 최대 영토	비유왕(427-455)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라와 나 · 제 동맹 체결 문주왕(475-477) <ul style="list-style-type: none">웅진 천도(475, 충남 공주) 동성왕(479-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나 · 제 동맹 강화(결혼 동맹)	눌지마립간(417-458) <ul style="list-style-type: none">왕위의 부자 상속불교 전래(수용 ×, 목호자)백제와 나 · 제 동맹 체결 소지마립간(479-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주에 동시 설치나 · 제 동맹 강화(결혼 동맹)			

	고구려	백제	신라
6세기	영양왕(590-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수대첩(을지문덕) 	무령왕(501-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담로 설치(특수 행정 구역) 성왕(523-5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비 천도(538, 충남 부여) • 국호 변경(백제 → 남부여) • 22부 설치 • 일본에 불교 전래(노리사치계) •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지증왕(500-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호 변경(마립간 → 왕) • 국호 변경(사로 → 신라) 법흥왕(514-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령 반포 • 불교 수용 • 연호 사용(건원) • 금관가야 병합 진흥왕(540-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하류 확보 • 대가야 정복 • 『국사』 편찬(거칠부)
7세기	영류왕(618-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리장성 축조 시작 보장왕(642-6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개소문 집권 • 안시성 전투 • 고구려 멸망(668) 	무왕(600-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 천도 계획(실행 X) • 익산 미륵사지 석탑(현존 최고 석탑) 의자왕(641-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야성 공격 • 황산벌 전투(계백) • 백제 멸망(660) 	선덕여왕(632-6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룡사 9층 목탑 건립 • 분황사, 첨성대 건립 진덕여왕(647-6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골 출신 마지막 왕 • 집사부, 창부, 좌이방부 설치 • 나 · 당 연합 결성(648) 무열왕(654-6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진골 출신 왕 문무왕(661-6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 당 전쟁 • 삼국 통일(676)
	통일신라		발해
	신문왕(681-6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주 5소경, 9서당 10정 확립 •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 국학(최고 국립 교육) 설치 		고왕(698-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조영 • 발해 건국(698) • 연호 사용(천통)
8세기	성덕왕(702-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 지급 경덕왕(742-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전 폐지, 녹읍 부활 • 국학을 '태학'으로 개칭 혜공왕(765-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각간의 반란 원성왕(785-7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삼품과 실시(788) 		무왕(719-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무예 • 산동성 공격(장문휴) • 연호 사용(인안) • 돌궐 · 일본과 교류하며 당 · 신라를 견제 문왕(737-7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흠무 • 수도 천도(중경 → 상경 → 동경) • 연호 사용(대흥) • 당과 친선관계, 신라와 교통로 개설

	통일신라	발해
9세기	<p>헌덕왕(809-8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헌창의 난 <p>흥덕왕(826-8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해진 설치(장보고, 전남 완도) • 사치 금지령 <p>문성왕(839-8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고의 난 <p>진성여왕(887-8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치원의 「시무 10조」(수용 ×) • 원종과 애노의 난(사벌주) • 적고적의 반란(서남해안 일대) 	<p>선왕(818-8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수 • 최대 영토 확보(해동성국) • 5경 15부 62주 정비 • 연호 사용(건흥) • 말갈족 복속, 요동 지역으로 진출
10세기	<p>경순왕(927-9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왕건에게 귀부 • 신라 멸망(935) 	<p>대인선(906-9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란에 의해 발해 멸망(926)

2. 주요 비문

구분	비문	내용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4(장수왕 2) 만주 집안에 건립, 3부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부 : 고구려 건국신화와 광개토대왕의 행장 기록 – 2부 : 광개토대왕 때의 정책활동, 신라에 들어온 왜구 정벌 및 금관가야 공격 내용 – 3부 : 수묘인에 관한 내용 • 일제의 조작 : '도해'의 주체를 왜로 보고 이를 근거로 임나일본부설 주장
	총주고구려비	장수왕의 남진 정책,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우월성이 엿보임
신라	영일생수리비	신라의 비석 중 가장 오래된 비석, 재산 분쟁에 관한 내용
	울진봉평신라비	법흥왕의 율령 반포에 관한 내용
	단양적성비	진흥왕 때 남한강 확보와 복속민에 대한 회유책, 관직명과 율령 정비 내용
	진흥왕순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산비 : 한강 하류 진출(19세기 김정희가 고증) • 창녕비 : 대가야 정벌 • 황초령비, 마운령비 : 함흥 지방 진출
	임신서기석	신라 화랑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음을 기록
백제	사택지적비	의자왕 때 건립, 도교적

3. 발해를 우리 민족사로 볼 수 있는 근거

- 지배층 : 고구려인 → 고구려 역사 계승 의식 표명(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
- 고구려 문화 : 정혜공주 무덤(굴식 돌방무덤, 모줄임 천장 구조), 온돌, 연꽃무늬 기와, 석등, 이불병좌상

04 고려 시대의 흐름

1. 왕대별 주요 사건

전기	태조(918-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 건국(918) 훈요 10조 북진 정책, 거란 강경책 송불 정책 호족 통합 정책 역분전 지급 흑창 설치 	광종(949-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비안검법 실시 과거제 실시 연호(광덕, 준풍), 청제건원 주현공부법 	성종(98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무 28조」(최승로) 연등회 · 팔관회 폐지 의창 · 상평창 설치 12목 설치 분사제도 실시(서경) 건원중보 주조(최초의 철전) 강동 6주 획득(서희)
	현종(1009-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도 양계 정비 귀주 대첩(강감찬) 『7대실록』 편찬(현전 ×) 	문종(1046-1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정전시과 시행 남경(한양) 설치 	
중기	숙종(1095-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적포 설치 삼한통보 · 해동통보 · 해동중보 · 활구(은병) 주조 별무반 조직(윤관) 	예종(1105-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무 파견 동북 9성 설치(윤관) 7제, 양현고 설치 북원공(도교 사원) 설치 	인종(1122-1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 6학 설치 이자겸의 난(1126) 서경 천도 운동(묘청, 1135) 『삼국사기』 편찬(김부식)
무신집권기	이의방(1170-1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방 정치 서계민란, 김보당의 난 	정중부(1174-11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방 정치 공주 명학소의 난 	경대승(1179-1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방 정치
	이의민(1183-1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민 출신 김사미 · 효심의 난 	최충헌(1196-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정도감, 흥녕부 설치 만적의 난, 동경의 난, 최광수의 난 교종 탄압, 선종 지지 봉사 10조 건의 	최우(1219-1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방, 서방, 삼별초, 마별초 몽골 침입 → 강화 천도 팔만대장경 조판 시작 이연년의 난 『상정고금예문』(1234)
원 간섭기	충렬왕(1274-1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민변정도감 설치 섬학전 설치 일연, 『삼국유사』 이승휴, 『제왕운기』 	충선왕(1298, 1308-1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방 일시적 폐지 사림원, 만권당 설치 소금 · 철의 전매 	공민왕(1351-13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방,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쌍성총관부 탈환 원의 연호 · 몽골풍 폐지 전민변정도감 설치(신돈) 홍건적의 1·2차 침입
말기	우왕(1374-13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산대첩(최영) 화통도감 설치(최무선) 황산대첩(이성계) 진포대첩(최무선) 위화도 회군(1388) 	공양왕(1389-13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전법 실시(1391) 고려 멸망(1392) 	

2. 대외 관계의 변화

구분	대외 관계	
전기	거란의 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 : 친송 배거 정책, 복진 정책 •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침입(성종, 993) : 서희의 담판(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 확보, 거란과 교류할 것 약속) – 2차 침입(현종, 1010) : 계속된 친송 정책과 강조의 정변 계기로 침입, 현종이 나주로 피난, 개경 함락, 양규의 선전 – 3차 침입(현종, 1018) : 강감찬의 귀주 대첩(1019) •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송, 거란 사이의 세력 균형 유지 – 국방 대책 : 개경에 나성 축조, 천리장성 축조(압록강 어귀에서 동해안의 도련포)
	친송 복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종 때 수교(962) • 수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 경제적 · 문화적 목적 – 송 : 정치적 · 군사적 목적
중기	여진의 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기 초 만주 하얼빈 지방의 원예부 추장이 여진족 통일 • 윤관의 별무반(기병 – 신기군, 보병 – 신보군, 승병 – 항마군) 여진 토벌(1107) → 동북 지방에 9성 축조 • 여진족의 금 건국(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에 군신 관계 요구 – 이자겸의 사대 외교로 금의 요구 수용, 정권 유지 목적
무신집권기	몽골의 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란족 토벌 구실로 첫 만남(강동성 전투) → 몽골 사신 저고여 피살 사건을 구실로 침공(박서의 항전) → 개경 함락(강화 천도 성립) • 최유의 강화도 천도 → 몽골의 초토화 작전 개시(김윤후의 항전, 농민과 천민들의 적극적 항쟁) : 용인 처인성(살리타 사살), 충주성 전투 → 막대한 피해 발생(황룡사 9층 목탑 소실 등) • 몽골과의 강화, 무신 정권 몰락 → 삼별초의 항쟁(진도 → 제주도)
원 간섭기	원의 내정 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 · 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1274, 충렬왕) : 둔전경략사 설치 → 실패 – 2차(1281, 충렬왕) : 정동행성 설치 → 실패 • 영토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성총관부 : 철령 이북 직속령화 → 공민왕 때 탈환 – 동녕부 : 자비령 이북 차지 → 충렬왕 때 반환 – 탐라총관부 : 삼별초 항쟁 진압 후 제주도에 설치 → 충렬왕 때 반환 • 관제 격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성(중서문하성 · 상서성) → 첨의부(1부) – 6부 → 4사 • 내정 간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동행성 : 일본 정벌 기구로 설치 → 내정 간섭기구로 변화 – 다루가치 : 감찰관으로 파견 – 순마소 : 반원 인사 색출을 위한 감찰기구 – 응방 : 매 징발
말기	홍건적, 왜구의 침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건적의 침입 → 공민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 • 왜구의 침입 : 최영(홍산 대첩) / 최무선(진포 대첩, 화통도감) / 이성계(황산 대첩) • 홍건적과 왜구 토벌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 등장

05 조선 시대의 흐름

1. 왕대별 주요 사건

조선 전기	태조(1392~1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건국(1392) 의흥삼군부 설치 정도전의 요동 정벌 계획 1차 왕자의 난 	태종(1400~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평의사사, 사병 폐지 6조 직계제 실시 의금부 설치, 사간원 독립 신문고 제도 실시 호패법, 호적 제도 정비 서얼차대법, 재가금지법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 제작 계미자 주조 도첩제 강화 	세종(1418~1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부 서사제 실시 집현전 기능 강화 공법 시행(연보9등법, 전분6등법) 4군 6진 개척(최윤덕, 김종서) 쓰시마섬 토벌(이종무) 갑인자 주조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칠정산』, 『의방유취』 편찬 훈민정음 반포
	세조(1455~14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조 직계제 부활 집현전·경연 폐지 직전법 실시 『경국대전』 편찬 착수 간경도감 설치 원각사 10층 석탑 건립 	성종(1469~1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국대전』 완성 홍문관 설치 경연의 부활 및 강조 사림파 등용 도첩제 폐지 관수관급제 실시 	연산군(1494~15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오사화, 갑자사화 신문고 폐지
	중종(1506~15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광조의 개혁 정치 → 기묘사화 현량과 실시 군적수포제 실시 삼포왜란, 비변사 설치 	명종(1545~15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법 폐지 임격경의 난 을사사화 	선조(1567~1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인·서인 분열(붕당정치) 임진왜란 발발 비변사 최고 기구화 훈련도감 설치
조선 후기	광해군(1608~1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인 집권 실리적 중립 외교 기유약조 경기 지방 대동법 실시(1608) 『동의보감』, 『동국지리지』 편찬 	인조(1623~16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인 집권 이괄의 난 영정법 실시(1결당 4두 고정) 어영청·총융청·수어청 설치 정묘호란·병자호란 발발 	효종(1649~16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벌론 강조 나선 정벌 시현력 도입 설점수세제 시행
	현종(1659~16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해예송(서인의 1년설 채택) 갑인예송(남인의 1년설 채택) 	숙종(1674~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신·기사·갑술환국 대보단, 만동묘 설치 대동법의 전국적 시행 상평통보 전국적 유통 → 전황 백두산정계비 건립 	영조(1724~17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론 탕평 정치 주도 균역법, 노비종모법 실시 서원 정리, 신문고 부활 『속대전』, 『동국문헌비고』, 『속오례의』 편찬
	정조(1776~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론 탕평 정치 주도 규장각, 장용영 설치 수원 화성 축조 신해통공(1791), 공장안 폐지 서얼 출신 규장각 검서관 등용(박제가, 유득공) 초계문신제 실시 『대전통편』 편찬 	순조(1800~18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동 김씨 집권 통신사 중단(일본과 국교 단절) 공노비 해방(1801) 신유박해(1801) 홍경래의 난(1811) 	철종(1849~1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동 김씨 집권 신해하통(1851) 동학 창시(최제우, 1860) 임술 농민 봉기(1862)

2. 집권 세력과 대외 관계의 변화

구분

조선 전기

집권 세력

신진사대부
(고려 말)

혁명파
(정도전, 권근)

온건파
(정몽주, 길재)

관학파(훈구)
• 세조 때 진출
• 사장 중시
• 부국강병 중시
• 중앙 집권(대자주)
• 단군 중시, 민족적, 자주적

사학파(사림)
• 성종 때 진출
• 건국 반대, 학문 연구
• 경학 중시
• 왕도 정치(의리·도덕)
• 향촌 자치(중소 지주)
• 기자 중시, 사대 주의

대외 관계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명

• 15세기 : 실리적 자주 외교
• 16세기 : 존화주의 사상 확대

여진

• 교린 정책 : 귀순 장려
• 강경책 : 4군 6진 개척(세종)

일본

• 3포 개항(1426) : 세종 때 부산포, 제포, 염포 개항
• 계해약조(1443) : 세종 때 제한된 조공무역 허락(세경선 50척, 세사미두 200석)
• 삼포왜란(1510) : 중종 때 발발, 임시기구로서 비변사 설치
• 임신약조(1512) : 중종 때 계해약조의 반으로 조건 개정(세경선 25척, 세사미두 100석)
• 사랑진왜변(1544) : 중종 때 발발, 무역 단절
• 정미약조(1547) : 명종 때 세경선 25척, 인원 제한규정 강화
• 을묘왜변(1555) : 명종 때 발발, 국교 단절, 지역 방어체제를 제승방략체제로 전환, 비변사 상설기구화
• 임진왜란(1592~1598) : 선조 때 발발, 비변사 최고기구화

15세기

구분

조선 전기

집권 세력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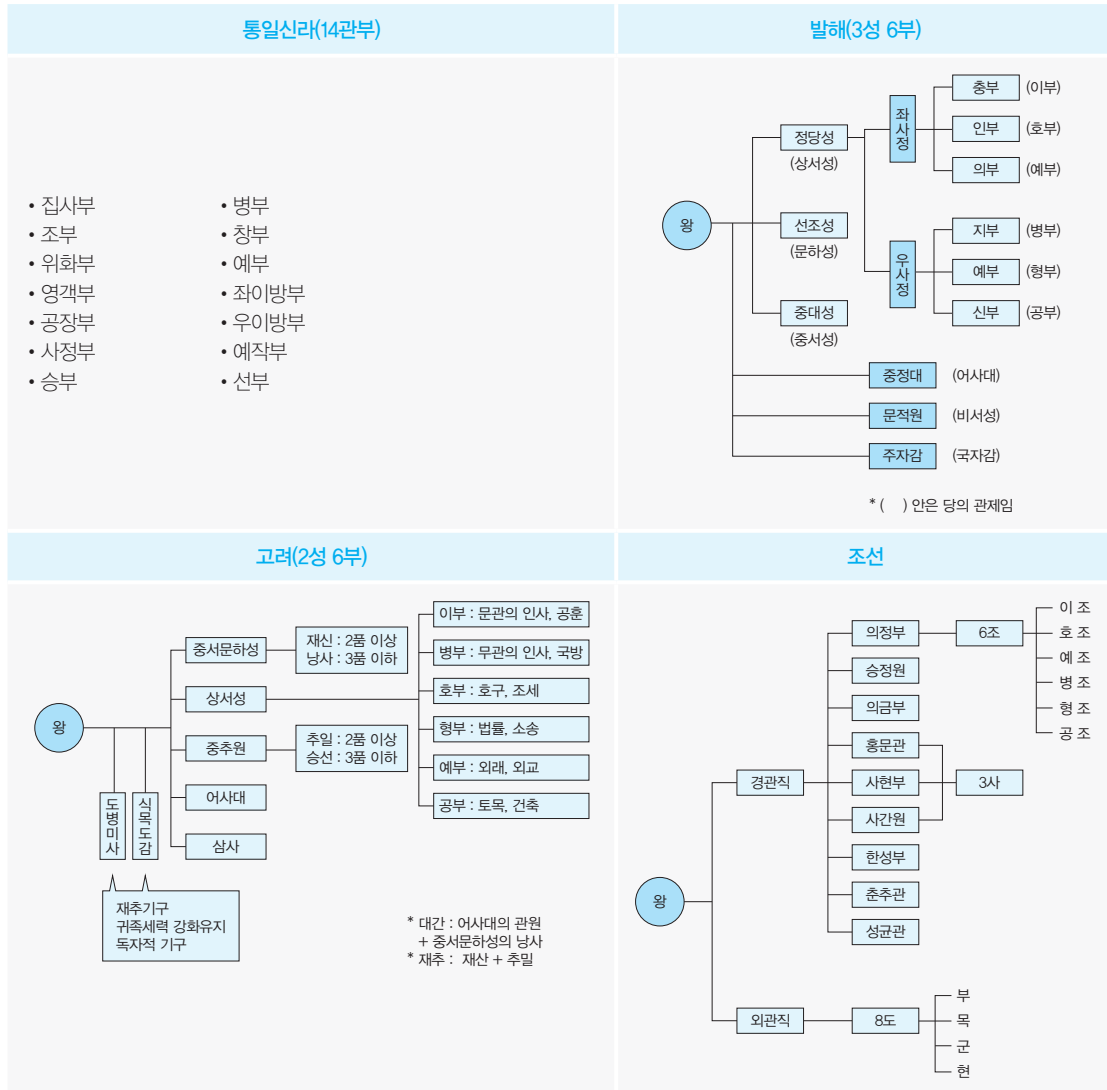
연산군 ~ 명종

연산군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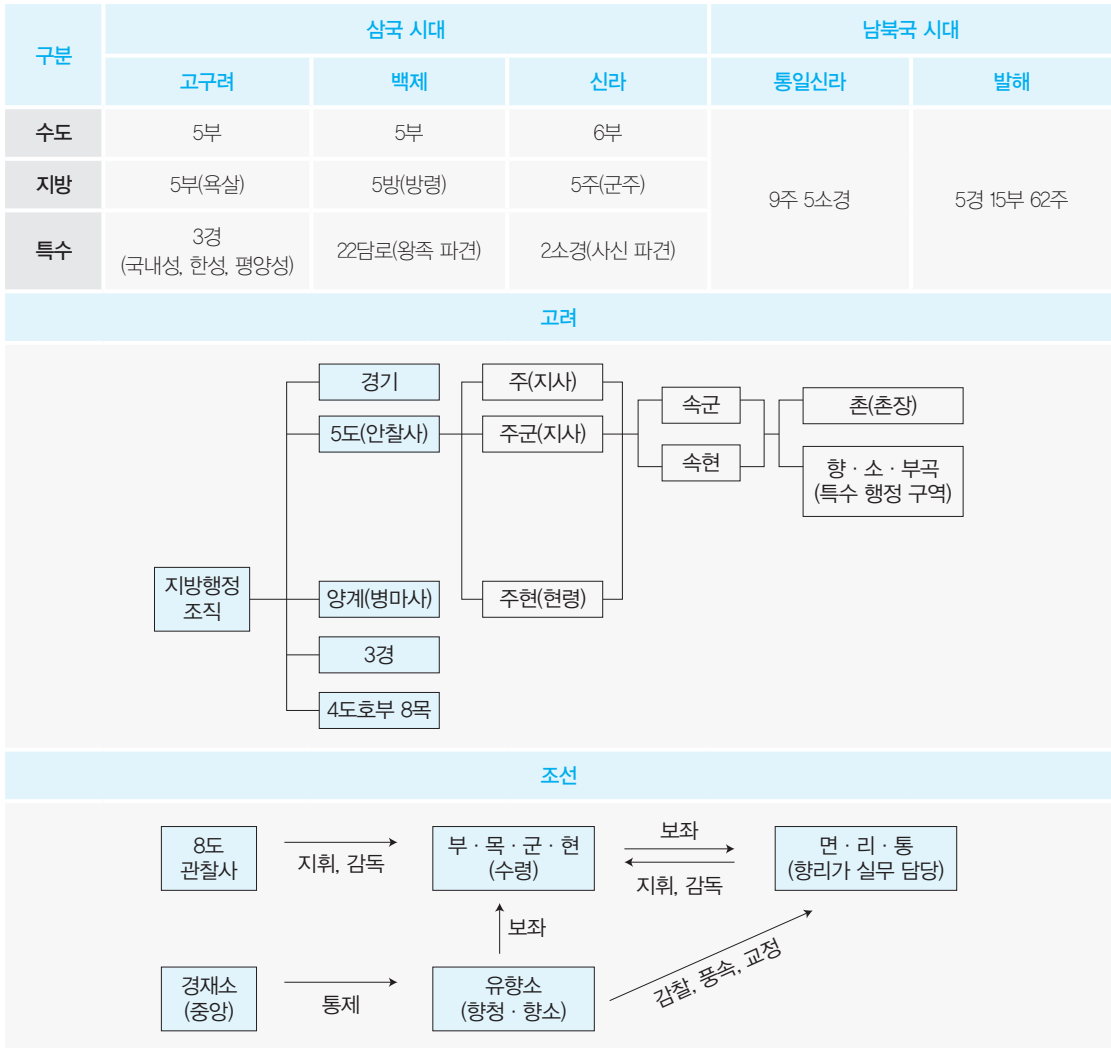
구분		집권 세력				대외 관계									
조선 후기	17세기	광해군	★북인	남인	서인	정묘호란 <table><tr><td>원인</td><td>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 이괄의 난</td></tr><tr><td>결과</td><td>형제 관계 체결</td></tr></table> 병자호란 <table><tr><td>원인</td><td>조선에 군신 관계 요구 → 거절</td></tr><tr><td>결과</td><td>삼전도에서 굴욕적 강화 체결, 군신 관계 체결, 봉림대군과 소현세자를 볼모로 청에 압송, 존화주의 심화(만동묘, 대보단 설치)</td></tr></table>		원인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 이괄의 난	결과	형제 관계 체결	원인	조선에 군신 관계 요구 → 거절	결과	삼전도에서 굴욕적 강화 체결, 군신 관계 체결, 봉림대군과 소현세자를 볼모로 청에 압송, 존화주의 심화(만동묘, 대보단 설치)
	원인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 이괄의 난													
결과	형제 관계 체결														
원인	조선에 군신 관계 요구 → 거절														
결과	삼전도에서 굴욕적 강화 체결, 군신 관계 체결, 봉림대군과 소현세자를 볼모로 청에 압송, 존화주의 심화(만동묘, 대보단 설치)														
	18세기	숙종	<div>▼ 경신환국 ▼ ★서인 남인 ▼ 기사환국 ▼ ★남인 서인 ▼ 갑술환국(남인 몰락) ▼ ★서인 장희빈 처리 문제 + 왕세자 폐위론 ▼ 노론 소론 ★소론 노론</div>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일본 - 기유약조(1609) : 광해군 때, 제한된 범위에서 교섭 허용 - 통신사 파견 : 도쿠가와 막부는 쇼군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권위를 받고자 통신사의 파견 요청, 1607~1811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파견, 비정기적 사절단 • 청 - 북벌론 : 명에 대한 의리라는 성리학적 명분을 제시하며 청을 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실패,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 강화, 효종 때 어영청 개편, 숙종 때 만동묘 설치 - 북학론 : 18세기 후반, 진보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발전									
		경종	<div>▼ 신임사화 ▼ 노론 ▼ 임오화변 ▼ 시파 벽파</div>												
		영조	<div>노론 ▼ 임오화변 ▼ 시파 벽파</div>												
		정조	★시파 벽파												
		순조	벽파 ▼ 안동 김씨												
		헌종	풍양 조씨												
		철종	안동 김씨												

06 통치 구조의 변화

1. 중앙 관제



2. 지방 제도 한눈에 보기



3. 군사 제도

구분	중앙	지방	특수	방어 체제
통일신라	9서당 (민족 융합적 성격)	10정 (한주에 2정 설치)		
발해	10위			
고려	• 2군(응양군 · 용호군) • 6위(좌우위 · 신호위 · 흥위위 · 금오위 · 천우위 · 감문위)	• 주현군(5도) • 주진군(양계)	• 광군(거란) • 별무반(여진) • 삼별초(몽골)	
조선 전기	5위 (품계+녹봉 지급)	영진군 (품계만 지급)	잡색군 (예비군 특성)	진관체제(세조) → 제승방략체제(명종)
조선 후기	5군영 (훈련도감 · 어영청 · 충무청 · 수어청 · 금위영)	속오군		속오군체제(선조)

4. 교육 · 관리 임용 제도

구분	교육 제도	관리 임용 제도
삼국 시대	• 고구려 : 태학(소수림왕), 경당(장수왕) • 백제 : 박사 제도 • 신라 : 화랑도(진흥왕)	
통일신라	국학(신문왕) → 태학감(경덕왕)	• 골품제에 따른 등용 • 독서삼품과(원성왕) : 최초의 관리 임용 제도, 학문 보급에 기여
발해	주자감	
고려	• 성종 : 국자감 • 문종 : 관학 침체, 9재 학당 • 숙종 : 서적포 • 예종 : 7재(강예재:무예 교육), 양현고, 국자감 재정비 • 인종 : 경사 6학 • 충렬왕 :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 성학전, 경사교수도감 • 공민왕 : 성균관을 유학전문 순수교육기관으로 개편	• 과거제(광종, 쌍기의 건의) – 문과 : 제술과(한문학), 명경과(유교 경전) – 무과 : 거의 시행 ×(예종 때 1회) → 공양왕 때 제도화 – 승과 : 교종선, 선종선 – 잡과 • 음서제 – 문 · 무반 5품 이상, 탁음자 품계에 따라 수음자 범위가 달라짐 – 과거제보다 음서제의 영향이 더 컸음
조선	• 중앙 : 성균관 • 지방 : 향교, 서당	• 과거제 – 문과(예조) : 소과(생진과, 초시 · 복시) → 대과(초시 · 복시 · 전시) – 무과(병조) : 초시 · 복시 · 전시 – 승과 : 조선 초기 시행 → 폐지(중종) → 일시적 부활(명종) → 완전 폐지 – 잡과(해당 관청) : 초시 · 복시 • 음서제 : 2품 이상

07 사회 구조의 변화

1. 신분 제도

구분

내용

고구려

- 왕족 : 계루부 고씨(왕위 세습), 절노부(왕비 세습)
- 귀족 : 5부 출신 족장과 성주
- 평민 : 대부분 농민
- 천민 : 피정복민, 부채노비(고리대) → 진대법(고국천왕)

백제

- 왕족 : 부여씨(고구려 계통)
- 귀족 : 8성 귀족
- 평민 : 대부분 농민
- 천민 : 노비

신라

골품제도

내용	성골	신라 정통 왕족,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성골 단절
	진골	무열왕 이후 왕족, 모든 관직 진출 가능
	6두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득난’이라 불렸으며 아찬까지만 승진 가능중대에는 집사부 시랑으로서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 하대에는 지방 호족과 연결하여 신라 비판 세력 형성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짐일상생활까지 규제
2원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위제(17관등) : 왕경인을 대상으로 함외위제(11관등) : 지방 촌주들을 대상으로 함
중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진골 출신 관료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특진제도4중 아찬, 9중 대나마, 7중 나마

1	이별찬	자 색				
2	이 찬					
3	잡 찬					
4	파진찬					
5	대아찬	비 색				
6	아 찬					
7	일길찬					
8	사 찬					
9	급별찬	청 색				
10	대나마					
11	나 마	황 색				
12	대 사					
13	사 지					
14	길 사					
15	대 오					
16	소 오					
17	조 위					
등급	관등명		진 골	6두품	5두품	4두품
관 등	복 색		골 품			

발해

- 지배층 : 왕족(대씨), 귀족(고씨) 등 고구려계와 소수의 말갈인
- 피지배층 : 말갈인

구분	내용		
고려	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 호족+6두품 → 중앙관리(일부)+지방호족(향리) • 중기 : 문벌귀족(음서, 공음전) • 무신집권기 : 무신 • 원 간섭기 : 권문세족(도평의사사, 농장) + 신진사대부 성장 • 말기 : 신진사대부(과거 통해 진출, 향리 출신 多) 	
	종류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반 : 궁궐의 잡일 담당 • 군반 : 직업군인, 직역 세습, 군인전 • 서리 : 중앙 관청 실무 담당 • 향리 : 지방 행정 실무 담당, 직역 세습, 외역전 	
	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농민(백정) : 고려 시대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 부르다가 조선 초기에 화척을 백정에 편입시키면서 조선 시대에는 '백정'이 도축업에 종사하는 이를 가리키는 말로 바뀜 • 향·소·부곡민 : 거주 이전 금지, 국가감 입학 금지, 과거 응시 금지, 더 많은 세금 부여, 향·부곡은 농업, 소는 수공업에 종사 	
	천민	<div>공노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거노비(입역노비) : 궁궐, 중앙관청 등에서 잡역에 종사 • 외거노비(납공노비) : 농경을 통해 얻은 수입 중 일부를 관청에 납부, 가족·집·토지 등 소유 가능 	
조선 전기		<div>사노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거노비(입역노비) : 귀족이나 사원이 부리는 노비로 주인 집에 거주 • 외거노비(납공노비) :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경을 통해 얻은 수입 중 일부를 주인에게 납부, 가족·집·토지 등 소유 가능 	
	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문·무반 관리를 지칭(15세기) → 벼슬할 자격이 있는 특수한 신분층(16세기) • 특권 : 토지와 노비 소유, 관직 독점, 국역 면제(법률로 특권을 제도화) • 지위 : 경제적으로 지주, 정치적으로 관료 • 생활 :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유학 공부에 전념하여 관료로 진출 	
	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 양반과 상민의 중간층(15세기부터 형성되어 후기에 독립된 신분층을 이룸) • 지위 :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끼리 거주, 문과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무과나 잡과에 응시 • 종류 : 서리, 향리, 기술관, 군교, 역리, 서얼 • 서얼 : 양반과 첩 사이에서 출생(중서'라고도 불림, 중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음), 문과 응시 자격 없음 	
	상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 : 조세, 공납, 부역 의무 • 수공업자(공장) : 공장세 부과 • 상인(시전 상인, 보부상) : 상인세 부과(농민보다 천대 받음) • 권한 : 법적인 자유민으로서 과거 응시 가능(현실적으로 많은 제약) • 신량역전 : 신분은 양인이나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 	
	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 노비, 백정, 창기, 광대 등 • 노비 : 재산으로 취급, 공노비(솔거노비, 외거노비), 사노비(솔거노비, 외거노비)로 구분(고려 시대와 동일) 	

구분	내용	
조선 후기	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 :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변질로 양반 상호간의 정치적 갈등, 부농층의 양반화 • 관반 : 정권을 차지하고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독점 • 향반 : 관직에서 밀려나 향촌 사회에서만 겨우 위세를 유지 • 잔반 : 양반의 흔적만 남을 정도로 몰락 → 사회개혁, 민란에 앞장섬
	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란 이후 납속책, 공명첩으로 관직 진출 – 영·정조 때 적극적 신분 상승 운동 전개(청요직으로 진출 요구) –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용(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 : 철종 때 대규모 소청 운동 전개(청요직으로 진출 요구) → 성공 X
	상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법과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부농층 성장 • 농민의 계층 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농 : 족보 매수·위조, 공명첩 등으로 신분 상승 – 빈농 : 화전민이 되거나 임노동자가 됨
	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비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과 납속을 통해 신분 상승 – 국가에서 공노비를 입역 노비에서 납공 노비로 전환 – 도망하는 노비 증가 • 노비 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노비 해방(1801) :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천 명 해방 → 재정 확보 수단 – 사노비 해방 : 갑오개혁(1894)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해방

2. 법률 제도

구분	내용	
고조선 8조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인 → 사형 • 절도죄 → 노비 또는 50만 전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을 상해한 자 → 곡물로 배상
부여 4조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인 → 사형, 그 가족은 노비 • 간음 → 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도 → 1책 12법 • 투기죄 → 사형
고구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도죄 → 1책 12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소나 말을 죽일 경우 → 노비
백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도죄 → 2배 배상 및 귀양 • 간음한 여자 → 남편 집 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뇌물 수수 및 국가 재물 횡령 → 3배 배상 및 금고형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당률) + 관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벌 : 태 · 장 · 도 · 유 · 사형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 『경국대전』 중심+『대명률』 참고) • 형벌 : 태 · 장 · 도 · 유 · 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 관습법 중심 • 『경제육전』(태조), 『경국대전』(성종), 『속대전』(영조), 『대전통편』(정조)

08 경제 구조의 변화

1. 토지 제도

구분	토지 제도	시기	지급 대상	특징
통일신라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신문왕	관료 귀족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정전	성덕왕	정남	국가의 농민 지배력 강화
	녹읍 부활	경덕왕		국가의 토지 지배력 약화
고려	역분전	태조	개국 공신	논공행상적 성격
	시정 전시과	경종	문·무 전·현직 관리	전지·시지 수조권 지급
	개정 전시과	목종	문·무 전·현직 관리	18품 전시과, 군인전·한외과 명시
	경정 전시과	문종	문·무 현직 관리	공음전 지급, 무관 차별 개선, 한외과 소멸
조선	과전법	고려 공양왕	문·무 전·현직 관리	경기도 토지 한정
	직전법	세조	문·무 현직 관리	수신전·출양전 폐지, 현직 관리의 위기의식을 초래하여 농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됨
	관수 관급제	성종		국가가 수조권 대행,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직전법 폐지	명종		수조권 지급 제도 소멸, 지주 전호제 강화

2. 화폐

구분	내용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종 : 건원중보(최초의 철전) • 공양왕 : 저화(최초의 지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종 : 해동통보, 삼한통보, 활구(은병)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종 : 저화 • 세조 : 팔방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 조선통보 • 숙종 : 상평통보 전국적 유통

3. 조세 제도

구분	조세	공납	역
통일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량의 1/10 부과 • 민정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공물 수취를 위한 기초 자료로 촌주가 매년 조사하여 3년마다 작성 – 경덕왕 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 	인정의 다과를 기준으로 호를 9등급으로 나누어 부과	16~60세의 양인 남성에게 부과 (군역+요역)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부과 • 민전은 생산량의 1/10, 공전은 1/4, 사전은 1/2 수취 		
조선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전법에 1/10세 수취 → 공법 실시 – 전분6등법 :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과세 – 연분9등법 :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호별로 특산물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 별공, 진상 – 방납의 폐단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충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60세 양인 남성에게 부과 (군역+요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역 : 양인 개병제(정군+보인) → 방군 수포제로 인한 폐단 → 군적 수포제 – 요역 : 토지 8결당 1인, 1년에 6일 이내로 제한
조선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정법(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법(광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 – 방납의 폐단 해결 목적, 가호에 부과되던 현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포목, 동전으로 징수 – 상업, 수공업 발달 →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배경 – 공인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역법(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포 징수의 폐단 해결 목적 – 기존 1년에 군포 2필 → 1필로 감면(부족분을 결작, 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완)

4. 농업 · 상업 · 수공업

구분	농업	상업	수공업
선사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석기 : 농경 시작(잡곡류) • 청동기 : 벼농사 시작 • 철기 : 철제 농기구 사용, 저수지 축조 		<p>신석기 : 원시 수공업 시작 (가락바퀴, 뼈바늘)</p>
삼국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제 농기구 보급 • 우경 보급(신라 지증왕) • 휴한농법(시비법 미발달) • 저수지 축조(법흥왕, 영천청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에 시장 형성(신라 소지마립간) • 동시전 설치(신라 지증왕) 	관청 수공업
통일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농사 중심 • 휴한농법(시비법 미발달) • 차 재배(흥덕왕) 	서시, 남시 증설(효소왕)	나전칠기 기술 발달 (통일신라 때는 나전칠기를 당에서 수입, 고려 때는 수출)
발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농사 중심 • 목축 발달(술빈부의 말) 	현물화폐 주로 사용	
고려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한농법(불역전, 일역전, 재역전) • 2년 3작 윤작법 등장 • 심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전(개경), 향시(지방) 개설 • 관영 상점 설치(개경, 서경, 동경) • 경시서 설치(시전상인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청 수공업(공장안 등록) • 소 수공업 발달(특수 행정 구역)
고려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한농법 극복(심경법, 시비법의 발달) • 2년 3작 윤작법 확대 • 이앙법 보급 • 목화 전래(문익점) • 『농사집요』 전래(이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전 규모 확대 • 벽란도가 국제항구로 발전 (예성강 하구) • 소금 · 철의 전매제 시행(충선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수공업 발달 • 사원 수공업 발달(면역의 혜택)
조선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 소멸 • 2년 3작 윤작법 일반화 • 농종법 보편화(밭 이랑 재배) • 직파법 일반화, 남부 일부 지방 이앙법 시행 • 『농사직설』(세종), 『금양잡록』(성종)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상인인 시전상인 활동 • 시전 감시 기구로 경시서 설치 • 중농역상정책으로 상업 부진 • 15세기 후반 장시 등장 → 16세기 중엽 전국적 확대, 보부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기 관청 수공업 중심(공장안 제도, 부역제) → 16세기 부역제의 해리로 관청 수공업의 유지 곤란 • 납포장의 증가 → 관청 수공업 쇠퇴
조선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기술의 발달 : 모내기법(이앙법) 확대 → 노동력 감소, 광작 유행, 부농 등장 • 상품 작물 재배 : 쌀의 상품화, 인삼 · 면화 · 담배 · 채소 등 재배 • 일부 지방에서 타조법(정을 지대) 대신 도조법(정액 지대)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私商) : 경강 상인(서울, 경기), 송상(개성), 만상(의주), 내상(동래), 유상(평양) 등, 일부는 도고로 성장 • 장시의 발달 : 보부상, 객주, 여각 등 활동 • 대외 무역 : 17세기 중엽 이후 개시 무역(공무역)과 후시 무역(사무역) 발달 • 화폐 유통 : 상업의 발달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 수공업 발달 : 도시 인구 증가와 대동법 시행에 따른 제품 수요 증대 → 선대제 수공업 성행, 18세기 후반 이후 독자적인 물품 생산과 판매 추진

1. 불교

(1) 삼국 시대

구분	수용	전교자	대표 승려
고구려	소수림왕	전진의 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덕 : 백제에서 열반종 개창 • 혜자 :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 • 도현 : 『일본세기』 저술
백제	침류왕	동진의 마라난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익 : 백제에 율종 전파 • 노리사치계 : 성왕 때 일본에 불교 전파
신라	전교	눌지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광 : 『세속오계』와 『걸사표』 작성 • 자장 : 계율종 개창, 황룡사 9층 목탑 건립 건의
	공인	법흥왕	

(2) 통일신라

구분	내용	대표 승려
중대 (교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학 불교, 경전 중시, 귀족 · 지배층의 지지 • 권위적, 형식적 → 절 · 탑 건립 多 → 조형미술 발달 • 교종 5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반종 : 보덕, 경복사, 전주 – 계율종 : 자장, 통도사, 양산 – 법성종 : 원효, 분황사, 경주 – 화엄종 : 의상, 부석사, 영주 – 법상종 : 진표, 금산사, 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 확립(『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 극복 · 조화(『십문화쟁론』 – 일심 사상, 원융회통) – 불교의 대중화(나무아미타불, 무애가), 정토종, 법성종 창시 •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엄 사상 정립(『화엄일승법계도』) :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상 → 왕권 강화에 영향(문무왕의 자문 역할) – 관음 신앙 : 현세에서의 고난 구제 –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제자 양성, 부석사 건립, 불교 문화의 폭 확대 • 혜초 : 인도로 구법 → 『왕오천축국전』(인도, 중앙아시아 기행기) • 진표 : 경덕왕 때 점찰법회 개최
하대 (선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 9산선문 중심 • 참선, 수행 중시 • 돈오점수, 이심전심, 불립문자 • 피지배층, 호족, 6두품의 지지 • 조형 미술 침체 → 승탑(부도), 탑비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 : 풍수지리설 도입 • 이엄 : 고려 건국에 사상적 바탕 제공

(3) 고려

구분	내용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조 : 연등회와 팔관회 개최(훈요 10조) • 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종(5교)과 선종(9산)의 사상적 대립 → 통합 노력 – 승과 제도 실시 – 사원에 별사전 지급, 면역 혜택 • 성종 : 최승로의 건의로 연등회와 팔관회 폐지 • 현종 : 연등회와 팔관회 부활
중기 (교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각국사 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단 통합 운동 :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위해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 창시 – 교관겸수(敎觀兼修) · 내외겸전 주장 :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 – 화폐의 보급 주장
무신 집권기 (선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선사 결사 운동(송광사) →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힘쓰자는 운동 – 조계종 중심의 선교 통합 운동 – 돈오점수(頓悟漸修), 정혜쌍수(定慧雙修) 제창 : 참선(선종)과 지혜(교종)를 함께 수행 • 요세 :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백련결사 제창,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 강조 • 해심 :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여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 마련
원 간섭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마불교의 전래 : 불교의 미신화 • 불교의 타락 : 고리대나 양조업으로 부 축적 • 보우 : 고려 말 불교계의 타락을 지적하며 교단을 정비하려 함
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건파 신진사대부 : 불교 폐단 비판(이제현, 이색) • 강경파 신진사대부 : 불교 자체를 비판(정도전의 『불씨잡변』)

(4) 조선

- 송유억불 정책 : 도첩제 강화(태종) → 폐지(성종), 사원전 · 사원노비 몰수
- 세조 : 원각사지 10층 석탑(세조), 간경도감(세조)
- 명종 : 문정 왕후의 지원 아래 보우 중용, 승과의 일시적 부활

2. 유교

(1) 삼국 시대와 통일신라

구분	내용
삼국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려 : 태학 – 유교 경전 교육 백제 : 박사 제도 – 유교 경전 교육 신라 : 화랑도
통일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적으로 유교를 중시하기 시작 국학(신문왕, 682), 독서삼품과(원성왕, 788) 신라 중대 유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수 : 외교문서에 능통, 「청방인문표」와 「답설인귀서」 저술 설총 : 이두 정리, 「화왕계」 저술 김대문 : 진골 출신, 「계림잡전」·「고승전」·「화랑세기」 등 저술 신라 하대 유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치원 : 빈공과 장원 급제, 「토황소격문」·「시무 10조」 및 「계원필경」·「제왕연대력」·「사산비명」 등 저술 최언위 : 고려 개국 후 조정에 참여 최승우 : 후백제의 견훤 밑에 들어가 활동, 「대견훤기고려왕서」 저술

(2) 고려

구분	내용
특징	사장 중심 → 과거에서 제술업 중시, 자주적, 유교와 불교의 병행 발전(유교는 치국의 도, 불교는 수신의 도)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조 : 최언위, 최응, 최지몽 등 6두품 유학자의 건국 참여 광종 : 과거제 실시로 유학 발달 성종 : 유교 사상이 확고하게 정립됨(최승로, 「시무 28조」)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적, 사대적, 소극적, 합리적 성격 문종 : 최충의 9재 학당 건립 인종 : 김부식, 「삼국사기」 저술
무신 집권기	유학의 위축
원 간섭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교의 타락과 해심의 유불 일치설 → 성리학 수용의 토대 → 신진사대부의 성리학 수용 안향 : 충렬왕 때 원에서 성리학 도입 이제현 : 충선왕이 세운 만권당에서 원의 성리학자들과 교류
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성장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적 사회윤리 강조 → 「소학」, 「주자가례」 강조

(3) 조선

① 성리학

㉠ 훈구파와 사림파

15세기(훈구파의 집권)	16세기(사림파의 집권)
고려 말 혁명파로 조선 건국에 참여	고려 말 온건파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음
세조 때 이후 공신세력을 중심으로 정치적 실권을 잡은 후 형성	성종 때 김종직의 등용으로 중앙 정계 진출
타 사상에 포용적	타 사상에 배타적
사장 중시 → 문학 발달	경학 중시
중앙 집권적 통치 강조	향촌 자치 강조 → 향약, 사창제 실시
단군 중시, 민족적, 자주적	기자 중시, 사대적
기술학 중시(격물치지)	기술학 천시, 성리학 절대시
『주례』 중시	『주자가례』 중시

㉡ 주리론과 주기론

구분	주리론	주기론
성격	도덕적, 이상적, 내향적	현실적, 경험적, 물질적
학파	영남학파	기호학파
당파	동인	서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권 강화와 신분질서 강화 강조 농업 중심의 경제 강조 개항기 위정척사사상에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권 강화와 신분질서 완화 강조 상공업 중심의 경제 강조 북학과 실학, 개화사상에 영향
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리론의 선구자 성학군주론 → 이황의 『성학십도』와 이이의 『성학집요』에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경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론의 선구자 불교와 노장사상에 개방적, 양명학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리론의 집대성자, 동방의 주자 이기이원론, 이기호발설 주장 예산향약 → 도덕적 교화 강조 경기도 남인, 영남학파에 영향 임진왜란 이후 일본 성리학에 영향 『성학십도』, 『주자서절요』, 『전습록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론의 집대성자, 동방의 공자 일원론적 이기이원론, 기발일도설 주장 해주향약 → 경제적 안정 강조 기호학파, 조선 후기 북학과 실학자들에 영향 『성학집요』, 『격몽요결』, 『10만양병설』

㉔ 호락 논쟁

호론	낙론
서울 노론	충청도 노론
북학파, 개화사상	북벌, 위정척사
인물성이론	인물성동론
이(理) 강조	기(氣) 강조

㉕ 양명학

구분	내용
기원	명나라 왕수인, 『전습록』: 성리학의 관념성과 비실천성 비판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즉리(心卽理): 사람 마음에 곧 이(理)이다. → 신분계급질서 부정(↔ 성리학의 성즉리(性卽理))• 치양지(致良知): 사욕을 극복하고 인간의 순수한 본래성만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지선(至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지행합일(知行合一): 앎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
수용	16세기 서경덕 학파와 종친들을 중심으로 수용 (↔ 이황, 『전습록변』에서 양명학 비판)
강화학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기 초 정제두가 강화학파를 형성하여 양명학 연구• 정제두의 저서: 『존언』, 『변퇴계전습록변』(이황의 『전습록변』을 비판)
한계와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자들이 양명학자들을 사문난적이라 규탄하여 대부분 속으로만 숭상• 실학자, 한말 이후의 국학자들(박은식, 정인보)에게 계승

㉖ 실학

구분	내용	
중농학파	특징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도의 개혁 추구(토지, 조세, 교육, 관리 선발, 군사 제도 등), 지주제 철폐와 자영농 육성 주장, 경세치용 학파, 남인 출신
	유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서 : 『반계수록』(중농 실학의 체계화) – 정치·경제·군사 제도 등의 개혁 방안 제시• 토지 제도 : 균전론 주장(관리·사·농·공·상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 분배 – 자영농 육성)• 제도 개혁 : 병농 일치의 군사 조직과 사농 일치의 교육 제도 확립 주장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서 : 『성호사설』, 『곽우록』 등• 토지 제도 : 한전론 주장(농가에 영업전 지급 → 매매 금지, 그 외는 매매 허용 – 토지 소유의 평 등)• 사회·경제 : 6품론 제시(노비, 과거제, 문벌, 기교, 승려, 게으름 등 시정), 폐전론, 환곡 대신 사 창제 실시 주장
	정약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서 : 『목민심서』(지방관의 도리)·『경세유표』(중앙 관제의 개혁)·『흙흙신서』(형법 개혁)• 토지 제도 : 여전론(공동 생산 공동 분배), 정전론 주장• 과학 : 수원 화성 설계와 거중기의 사용, 한강 주교의 설계, 『마과회통』(종두법) 편찬

구분	내용	
중상 학파	특징	18세기 후반 국내 상공업의 발달과 청·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성립(북학파), 노론 집권층, 농업과 상공업의 진흥 혁신과 기술 혁신에 관심 – 이용후생 학파
	유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서 : 『우서』 상공업 : 합자를 통한 경영 규모의 확대, 상인이 생산자를 고용 → 생산과 판매 주관,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강조, 농업의 전문화·상업화, 자본을 축적하면서 사회 개발에 참여
	홍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서 : 『의산문답』, 『임하경륜』 개혁 사상 : 균전제 주장, 기술 문화 혁신과 신분 제도의 철폐,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임을 주장
	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서 : 『열하일기』, 『과농소초』, 『한민명전』, 『호질』, 『양반전』, 『허생전』 등 농업 : 한전론 중요성 인정, 영농 방법 혁신, 상업적 농업 장려, 농기구 개량, 관개 시설 확충 등 기술적 측면 상공업 : 수레·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강조 문벌 제도 비판 : 양반 문벌의 비생산성 비판
	박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서 : 『북학의』 개혁 사상 :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선박의 이용 증대, 절검보다 소비 강조 → 소비는 생산의 촉진제

3. 도교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서대묘의 사신도 연개소문의 억불양도책 → 도교 교단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수문전 사택지적비 무령왕릉 지석 	화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유신묘의 12 지신상 신라 하대 6 두품과 결합하여 반신라적 성격 	정효공주 무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교의 전성기 초제 거행 복원궁(예종) 팔관회의 도교적 성격 교단 형성은 × 	소격서 → 폐지(조광조)

10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활동

1. 근대 정치의 흐름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
18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 창시(최제우, 경주) 18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술 농민 봉기 1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선대원군 집권 18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변사 폐지 • 만동묘 철폐 • 경복궁 중건 • 삼군부 설치 • 『대전회통』 편찬 1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인박해, 병인양요 (프랑스) • 제너럴셔먼호 사건 (미국) • 당백전 주조 	18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포법 실시 • 서원 철폐 • 신미양요(미국) 1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종 친정 시작 1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요호 사건 18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 일수호조규 · 부록 체결 • 1차 수신사 파견 (김기수) 	1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책략』 유입 • 2차 수신사 파견 (김홍집) • 통리기무아문 설치 18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기군 설치 • 영남만민소(이만손) • 신사유람단, 영선사 파견 1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오군란 발발 •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 3차 수신사 파견 (박영호) 18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기창, 전환국, 박문국 설치 • 한성순보 발행 • 원산학사 설립 18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신정변 발발 • 조러수호통상조약 체결 • 우정국 설립 18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문도 사건(영국) 18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비세습제 폐지 • 육영공원 설립 18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곡령 선포(조병식) 	18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운동 • 청일전쟁 발발 • 군국기무처 설치 • 제1 · 2차 갑오개혁 1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18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관파천 • 독립협회 결성, 독립신문 창간 1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종 환궁 • 대한제국 성립 1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 헌의 6조 1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제 반포 • 조청통상조약 체결 	1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일전쟁 발발 •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체결 • 보안회 조직 1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정리사업(메가타) • 을사늑약 체결 • 독도, 시네마현에 편입 19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감부 설치 • 대한자강회 조직 • 을사의병(민중식, 최익현, 신돌석) 19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보상운동 전개 •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파견(이준, 이상설) • 한일신협약 체결 •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 신민회 설립 • 5적암살단 조직(나철, 오기호) 19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진공 작전 19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종교 창시 • 기유각서 • 간도협약 • 이토 히로부미 사살 (안중근) 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병합

2. 흥선 대원군의 대내외 정책

(1) 흥선 대원군의 대내 정책

왕권 강화	민생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동 김씨 축출, 인재의 고른 등용• 비변사 축소(의정부, 삼군부 부활)• 법전의 정비(『대전회통』, 『육전조례』)• 군사력 강화(훈련도감, 수군 강화, 화포 기술 도입 노력)• 경복궁 중건(원남전 강제 징수, 당백전 남발, 양반의 묘지림 징발, 성문세 징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정의 문란 개혁<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정 : 양전 사업(은결 색출, 토지 겸병 금지)– 군정 : 호포제(양반에게도 군포 징수, 군역의 폐단 시정)– 환곡 : 사창제 부활• 서원 철폐(47개소 제외한 나머지)

(2) 흥선 대원군의 대외 정책(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

병인박해(1866)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	병인양요(1866)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신도 8천여 명 처형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의 통상 요구 ↔ 평양 군민의 저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함대 강화도 침공• 한성근(문수산성), 양현수(정족산성)• 프랑스 군의 외규장각 도서 약탈(『의궤』)
오페르트 도굴사건(1868)	신미양요(1871)	척화비 건립(1871)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통상 요구 거절 → 남연군 묘 도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함대의 강화도 침공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점령• 어재연(광성보) → 수(帥)자기 약탈	신미양요 직후 전국적으로 척화비 건립

3.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구분	임오군란	갑신정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민씨 세력과 대원군 세력의 갈등• 일본 세력 침투에 대한 백성들의 반발• 민씨 일파의 부정부패,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도시민의 유입, 빈민들의 증가• 양반 지주들의 사치 심각, 매관매직 성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오군란 이후 친청 세력의 개화당 탄압 (온건 개화파 vs 급진 개화파)• 청불전쟁으로 청군 일부 철수• 일본 공사의 지원 약속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인 교관 살해, 일본 공사관 습격• 민겸호 살해• 흥선 대원군 재집권 → 별기군 해산, 통리기무아문 폐지• 청의 개입 → 흥선 대원군 납치, 민씨 재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 시작 → 온건 개화파(민씨 세력) 다수 피습 → 고종과 왕비를 경우궁으로 옮김• 14개조 개혁 정당 발표•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남•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일본으로 망명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약 체결<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 일본 : 제물포 조약(일본군 주둔, 배상금)– 조선 ↔ 청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청의 내정 간섭 – 청의 고문 파견(위안스카이, 마젠창, 뮐렌도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약 체결<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 일본 : 한성 조약(배상금)– 청 ↔ 일본 : 텐진 조약(조선에 유사시 양국의 동시 출병권 명시, 훗날 청일전쟁의 원인이 됨)• 청의 내정 간섭 강화

4. 동학농민 운동

구분	내용
고부 민란 (18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원인 : 고부 군수(조병갑)의 횡포 • 전봉준이 고부 관아 습격 → 관리들을 징벌한 뒤 해산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하고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
1차 봉기 (18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핵사 이용태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 →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재봉기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아산만 상륙) → 텐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일본군 인천 상륙 • 전주 화약 체결 : 동학 농민군은 외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 → 집강소 설치
집강소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 기구 • 폐정 개혁 12개조 실천 → 불량한 지주와 부호 처벌, 봉건적 신분제 폐지, 조세 제도 개혁, 관리 등용 개선, 반외세적
2차 봉기 (1894.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 간섭, 개혁 강요 →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 • 남·북접 연합 부대 형성(논산에 대본영 설치) •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퇴(11월) →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체포(12월)

5. 갑오·을미 개혁

(1) 제1차 갑오개혁(1차 김홍집 내각, 군국기무처 주도, 친일적)

구분	주요 개혁 내용
정치	개국 기원 사용, 왕실 사무(궁내부)와 국정 사무(의정부) 분리, 6조를 8아문으로 개편, 과거제 폐지(근대적 관리 임명 제도 실시), 경무청 설치
경제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은 본위 화폐제 채택, 조세의 금납화, 도량형 통일
사회	신분제 폐지(공·사노비 제도 혁파), 봉건적 폐습 타파(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고문 및 연좌제 폐지

(2) 제2차 갑오개혁 (2차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 군국기무처 폐지)

구분	주요 개혁 내용
정치	의정부를 내각, 8아문을 7부로 개편,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 지방관의 권한 축소,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재판소 설치), 독립서고문과 홍범 14조 반포
군사	훈련대와 시위대 설치
사회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신학제(한성 사범 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반포

(3) 을미개혁(3차 김홍집 내각, 친러적)

구분	주요 개혁 내용
정치	'건양' 연호 사용(1896년 원년)
군사	시위대(왕실 호위), 친위대(중앙), 진위대(지방) 설치
사회	태양력 사용, 소학교 설치, 우편 제도 실시(우체사), 단발령 실시, 종두법 시행

6. 독립 협회와 광무개혁

구분	독립 협회	광무개혁
배경	러·일의 세력 균형 → 아관 파천으로 나라의 권위 실추	고종의 환궁 → 칭제 건원(국호 '대한제국', 연호 '광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 국권 운동 :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 열강의 침투 반대(독립문 건립)• 자유 민권 운동 : 근대적 민주주의 사상, 국민 기본권 보장, 관민 공동회(현의 6조), 의회식 중추원 마련, 만민 공동회• 자강 개혁 운동 : 국력 배양의 근대화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 대한민국 국제 반포(1899) → 전제 황권 강화 표방• 경제 : 양전 사업 실시(양지아문, 지계 발급, → 근대적 토지 소유권 보장, 국가 재정 확충), 황실 중심의 상공업 진흥책(근대적 공장과 회사 설립, 실업 교육 기관 설립, 유학생 파견)
의의	민중을 바탕으로 한 국권 수호, 민권 신장에 기여한 근대화 운동	구분 신참(복고주의, 점진적 개혁) → 근대적 시설 확충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세 배척 운동이 주로 러시아를 대상• 의병을 '비도'라 비판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일본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7. 개화 운동과 위정척사 운동

구분	개화 운동	위정척사 운동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 실학(북학파) → 통상 개화론 → 개화 사상• 국외 : 양무 운동(청), 메이지 유신(일본)	성리학(正學) 수호, 사학(서양 문물)과 이단 배격
활동	<p>통리기무아문 설치, 별기군 창설, 수신사 파견(일), 조사 시찰단(일), 영선사(청)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사(일) : 2차 수신사 때 김홍집이 『조선책략』 유입• 조사시찰단(일) : 국내 위정척사파의 반대로 암행어사로 위장해 일본에 파견, 근대 시설 시찰• 영선사(청) : 텐진 일대에서 무기 공장 시찰 및 견습, 1년 만에 조기 귀국(임오군란+풍토병)• 보빙사(미) : 민영익, 서광범, 홍영식 등 파견	<p>통상, 개항, 개화 반대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60년대 : 척화 주전론(이항로, 기정진)• 1870년대 : 개항 불가론 – 왜양 일체론(최익현)• 1880년대 : 개화 반대 운동 – 『조선책략』에 대한 비판 → 영남 만민소(이만손, 홍재학 등)• 1890년대 : 항일 의병 운동(을미의병)
의의	봉건 사회 철폐 → 근대적 민족 국가 수립 지향	반외세 자주 운동 전개 →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
한계	민중과 유리	봉건 체제 유지 주장 → 근대화에 역기능

8. 애국 계몽 운동과 항일 의병 투쟁

구분	애국 계몽 운동		항일 의병 투쟁	
성격	개화 자강 계열 운동 계승(갑신정변, 독립 협회)		위정척사 운동과 동학 농민 운동의 반외세적 성격을 계승	
주도 세력	개화 지식인		유생, 전직 관료 → 을사의병 이후 평민 출신 활약	
운동 방식	실력 양성(교육과 산업 진흥, 독립운동 기지 건설)		무장 투쟁	
전개	보안회 (1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독립 협회의 정신 계승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 전개	을미의병 (1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을미사변과 단발령 계기동학 잔여 세력 참여 → 활빈당 활동국왕(고종)의 해산 권고 조치(효유 조치)으로 자진 해산
	헌정 연구회 (1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임헌 정체 수립을 목적일진회 규탄 중 해산	을사의병 (1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을사늑약 체결이 계기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 등장(신돌석)최익현 쓰시마 섬으로 압송
	대한 자강회 (1906~1907)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육과 산업의 진흥전국에 25개 지회를 두고 월보 간행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다가 강제 해산	정미의병 (1907~1909)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이후 의병 전쟁화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의 교전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서울 진공 작전(1908) : 해산 군인 합류 이후 13도 창의군 결성,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남한 대토벌 작전(1909) : 일본의 보복 작전, 삼남 지방 의병 탄압 → 다수의 의병들 만주, 연해주 일대로 이주(독립군으로 계승)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이후 의병 전쟁화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의 교전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서울 진공 작전(1908) : 해산 군인 합류 이후 13도 창의군 결성,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남한 대토벌 작전(1909) : 일본의 보복 작전, 삼남 지방 의병 탄압 → 다수의 의병들 만주, 연해주 일대로 이주(독립군으로 계승)
	신민회 (1907~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밀 결사 : 안창호, 양기탁 등 중심정체 : 최초로 공화정체 지향실력 양성 운동(태극 서관, 평양 자기 회사, 대성·오산 학교)과 군사력 양성(만주 삼원보, 신흥 무관 학교) 병행국채 보상 운동 지원		
의의	애국심과 근대 의식 고취, 민족 운동의 올바른 이념 제시		민족의 강한 독립 정신 표출, 무장 독립 투쟁의 기반 마련	

9. 근대 언론

구분	특징	대상	발간 목적 및 활동 내용
한성순보	순한문, 최초의 근대적 신문, 10일마다 발간	정부 관료, 유생	개화 정책의 취지 설명, 국내외 정세 소개
한성주보	최초의 국한문 혼용 신문	시민층	최초로 상업 광고 기재
독립신문	한글판과 영문판 발행, 최초 민간 신문, 일간지	시민층	국민 계몽(자주 의식, 근대적 민권 의식 고취)
황성신문	국한문 혼용	지식층, 유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의 침략정책과 매국노 규탄• 보안회 지원 – 황무지 개간권 요구의 부당성 지적• 을사늑약에 대한 항일논설 '시일야방성대곡'
제국신문	순한글	일반 서민층, 부녀자	민중 계몽, 자주 독립 의식 고취

10. 일제의 국권 피탈 과정

구분	주요 내용	결과
한일의정서 (1904)	일본 정부의 정치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일본군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공수 동맹)	일제의 정치적 간섭, 일제의 토지 강탈
제1차 한일협약 (1904)	외교 · 재정 분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고 중요한 안건 협의(고문 정치)	외교 · 재정 분야 외의 다른 부서에도 일제의 고문 파견, 전반적 내정 간섭
가쓰라 태프트 밀약(미국) 2차 영일 동맹(영국), 포츠머스 강화 조약(러시아)	열강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1905)	을사늑약 체결, 일제의 식민지화 추진
을사늑약 (1905)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외교권 피탈 → 이른바 보호국 체제, 통감이 외교권 장악
한일신협약 (1907)	고등 관리의 임용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고문 대신 일본인 차관 임명(차관 정치)	일본이 대한 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 → 뒤이어 군대 해산, 사법권과 경찰권도 통감에게 위임
한일병합조약 (1910)	두 나라의 행복과 동양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	국권 상실, 헌병 경찰제 실시

11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1. 민족의 수난과 항일 독립운동

구분	통치 내용	경제 침탈	독립 운동
1910년대 무단 통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총독부 설치 : 총독이 행정, 입법, 사법, 군 통수권 등 장악 • 헌병 경찰제, 태형 · 즉결 심판권 • 언론 집회의 자유 박탈, 관리 · 교사들도 제복을 입고 착검 • 중추원 설치 : 총독부 자문 기구 • 우민화 교육(제1차 조선 교육령, 보통학교 4년, 일본어를 국어로 교육, 기술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조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목 : 공정한 지세 부과 및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 실제 : 재정 확보 및 토지 약탈 – 내용 : 기한부 신고제 – 결과 : 미신고 토지를 조선 총독부 소유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불하,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 불인정(기한부 소작농 전락) • 회사령(허가제) : 민족 기업 성장 억제 • 산업 각 부문에 대한 침탈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의군부(1912~1914) : 복벽주의, 고종의 밀조로 조직 – 대한광복회(1915~1918) : 공화주의, 만주에 독립군 기지 건설 •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간도 : 삼원보 → 부민단 → 한족회 → 경학사 – 북간도 : 대한국민회, 중광단, 대한정의단 – 연해주 : 13도의군, 대한광복군정부, 권업회, 성명회, 대한국민의회 – 중국 본토 : 동제사, 신한혁명당, 신한청년당 – 일본 : 조선청년독립단
3·1 운동(1919)			
1920년대 기만적 문화 통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관 총독 파견 약속 → 파견 온 적 없음 • 가혹한 식민 통치 은폐(기만성) → 친일파 양성을 통한 민족 분열책 • 보통 경찰제, 민족계 신문 발행 허용(조선 · 동아일보), 교육 기회의 확대 표방 • 치안 유지법(1925) 제정 • 대학 설립 요구 증가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 경성 제국 대학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미 증식 계획(증산량보다 많은 수탈) : 농민층 몰락, 빈곤층 크게 증가, 식량 사정 악화 • 회사령 폐지(신고제) → 일본 자본 진출, 관세 철폐 • 신은행령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단체 : 보합단, 천마산대, 구월산대 – 사회운동 : 형평 운동(1923), 6·10 만세운동(1926) → 신간회 · 근우회(1927~1931) → 광주학생 항일 운동(1929) – 경제 운동 : 물산장려운동(1922), 암태도 소작쟁의(1923), 원산 노동자 총파업(1929) •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간도 : 봉오동 전투 → 청산리 전투 → 간도 참변 → 대한독립군단 조직(밀산부) → 자유시 참변 → 미쓰야 협정 → 신민부 – 서간도 : 서로군정서군, 대한독립단 → 정의부, 참의부 – 상해 :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제 대공황(1929), 만주 사변(1931)			

구분	통치 내용	경제 침탈	독립 운동
1930~40 년대 민족 말살 통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국 신민화 강요, 황국 신민의 서사 압송 • 중일전쟁(1937) → 국가 총동원법(1938) • 신사 참배, 궁성 요배 강요, 일본식 성명 강요 • 사상 통제(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 우리말 사용 금지, 학술 언론 단체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면 북양 정책, 조선 공업화 정책(합경도 일대 중화학 공업 육성) – 중일전쟁 이후 인적·물적 자원 수탈 강화 • 농촌 진흥 운동 • 지원병제, 징병제, 징용제, 정신대(일본군 위안부) • 전쟁 물자와 식량 공출 → 식량 배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 보급 운동(조선일보, 1929~1934), 브나로드 운동(1931~1934) •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혁명군(양세봉) : 영릉가 전투 · 흥경성 전투 – 한국 독립군(지청천) : 쌍성보 전투 · 대전자령 전투 – 만주 지역 항일 유격대 활동 : 동북 항일 연군(보천보 전투, 1937), 조국 광복회 결성 – 중국 관내 : 조선 민족 혁명당(1935, 난징), 조선 의용대 → 한국광복군 합류 – 한국 광복군 창설(총칭, 1940) → 대일 선전 포고(1941) → 인도, 미안마 전선 파견 → 국내 진공 작전 계획 – 조선 독립 동맹(김두봉)과 조선 의용군 : 중국 공산당과 화북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

2. 사회 각계각층의 민족 운동

구분	주요 개념	주요 내용
사회적 민족 운동	사회주의의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운동 이후 수용 → 청년학생 운동, 노동 운동, 농민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 • 무산 계급의 해방을 주장하여 민족주의 운동과 갈등 초래
	민족 유일당 운동(신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사회주의계 → 1927년 신간회 창립(자치론 등 기회주의 배격). • 전국에 지회 설치, 대중적 정치 운동 전개 → 일제의 탄압, 사회주의계 이탈로 해산
농민· 노동 운동	소작 쟁의	농민의 생존권 투쟁 → 항일 민족 운동으로 변화 → 암태도 소작 쟁의, 재령의 동양 척식 주식회사 농장 소작 쟁의
	노동 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합법투쟁) • 반제국주의 항일 민족 운동(지하 조직화), 원산 노동자 총파업(1929)
학생	6·10 만세 운동	순종 인산일에 전개(1926),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대 계기, 동맹 휴학 활성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전개,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
기타	여성	근우회(1927) : 신간회 자매 단체,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 노동 여성의 조직화와 여성 계몽에 노력
	소년	천도교 소년회 : 방정환 중심, 어린이날 제정, 잡지 『어린이』 간행, 소년 운동 확산
	백정	조선 형평사(1923) : 진주에서 이학찬이 중심이 되어 조직,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주장 → 1930년대 항일 민족 운동 전개

12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1. 현대 정치의 흐름

구분	내용
미군정기 (1945~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이로 회담(1943. 11) : 미, 영, 중 • 알타 회담(1945. 2) : 미, 영, 소 • 포츠담 회담(1945. 7) : 미, 영, 중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1945. 12) : 미, 영, 소 •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 3) •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 6) :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최초 발언 • 좌우 합작 운동(1946~1947) : 좌우 합작 7원칙 제시 •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7. 5) • 유엔 총회(1947. 11) : 남북한 전 지역 총선거 실시 결정 • 유엔 소총회(1948. 2. 26) :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입국 가능 지역(38°선 이남)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결정 • 5·10 총선거 실시(1948), 제헌 국회 수립(1948. 7. 17)
이승만 정부 (1948~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친일파 청산 좌절, 농지 개혁 • 6·25 전쟁 • 1차 개헌(1952.7 : 발췌 개헌, 직선제) • 2차 개헌(1954.11 :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 독재 체제 강화 : 국가 보안법, 진보당 사건 • 4·19 혁명(1960) : 3·15 부정 선거 → 김주열 사망 → 이승만 하야
장면 내각 (1960~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 운영 • 4차 개헌(부정비리, 축재자 처벌)
5·16 군사정권 (1961~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6 군사 정변(1961.5.16) • 군정 실시(반공)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 중앙정보부 설치 • 5차 개헌(1962.12 대통령 중임, 단원제, 부통령제 폐지)
박정희 정부 (1963~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개발과 반공 제일주의 • 한일 국교 정상화 : 한일회담 추진 → 6·3 항쟁(1964.6) → 한일협정(1965) • 베트남전 참전 : 미국의 경제 원조 및 기술 제공 → 베트남 특수 • 6차 개헌(1969.10, 3선 개헌)
유신 정부 (1972~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냉전 체제의 완화(7·4 남북 공동 성명 이용) • 성립 : 10월 유신 선포 →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정치 활동 금지 → 유신 헌법으로 개헌(7차 개헌, 1972.12) • 성격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간선(6년 임기), 국회·사법부 통제, 긴급 조치권(반대 세력 탄압) • 붕괴 : 부마 민주화 운동(1979.10), 10·26 사태(박정희 암살)
전두환 정부 (1981~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화 정책 : 정치에 무관심하게 하려는 정책(컬러 TV방영, 프로 야구, 씨름, 야간 통금 해지, 중·고등학생의 두발·복장 자유, 해외여행 자유, 장발 단속 완화) • 6월 민주 항쟁(1987)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4·13 호헌 조치 → 범국민적인 반독재 민주화 운동 전개 → 6·29 선언(9차 개헌, 대통령 5년 단임제, 직선제)

구분	내용
노태우 정부 (1988~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소 야대 → 3당 합당 • 북방 정책 : 소련, 중국과 수교
김영삼 정부 (1993~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재산 등록 •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 금융 실명제, OECD 가입 • IMF 금융 위기
김대중 정부 (1998~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 외환 위기 극복 •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 6·15 남북 공동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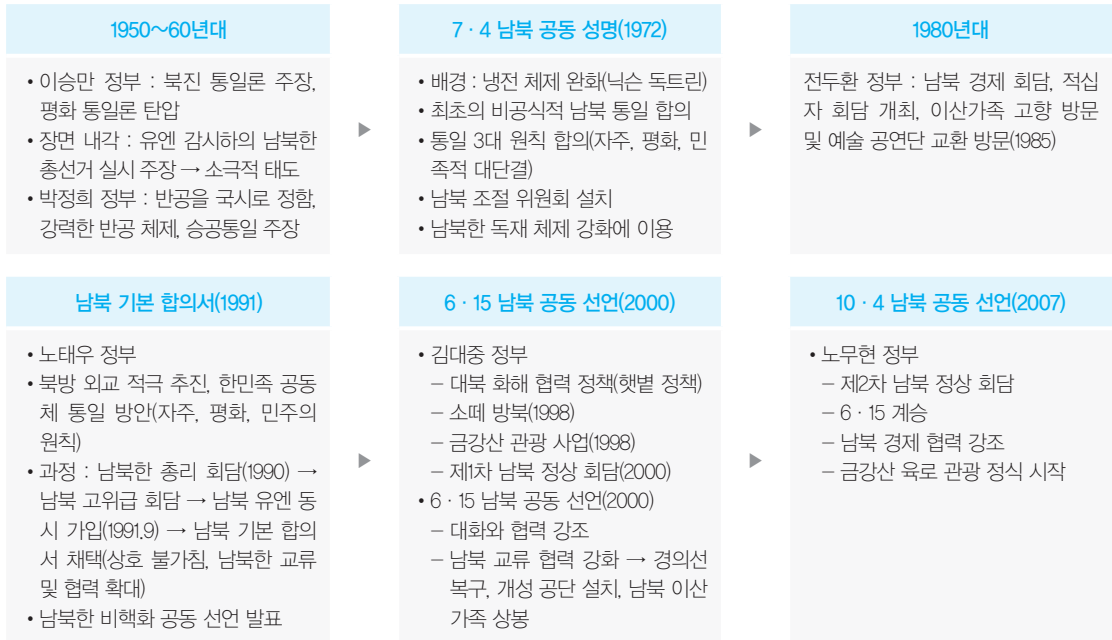
2. 남북 분단 과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3.6 · 25 전쟁

구분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 북한의 무력 통일 정책(조국 해방 전쟁론) →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약속, 이승만 정권하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 국외 : 중국의 공산화, 미군 철수, 애치슨 선언
전개 과정	북한군의 무력 남침(1950.6.25) → 국군의 낙동강 전선 후퇴 → 유엔군 참전 결정 → 인천 상륙 작전 → 서울 수복 → 압록강 진격 → 중공군 개입 → 1·4 후퇴(1951) → 전선 교착 상태 → 휴전 회담 진행 → 휴전 성립(1953)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간의 적대감 고조 •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1953.10) • 가족 제도와 촌락 공동체 의식의 악화 •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침투 • 남북한 독재 정권 유지에 이용

4. 통일 정책의 변화



5. 현대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발달

<div>이승만 정부(1950년대)</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조 경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으로부터 설탕, 밀가루, 의복 등 소비재 중심의 원조를 받음– 제분 · 제당 · 면방직 공업 발달– 값싼 농산물 유입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 → 농가 소득 감소– 1958년 유상 차관 형태로 변경 → 경제 불안 심화</div>	<div>박정희 정부</div> <table><tr><th>1960년대(경공업 중심)</th><th>1970년대(중화학 공업 중심)</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 ·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경공업 육성, 국가 주도 수출 주도형 정책• 해외 자본 유치, 기간 산업 및 사회 간접 자본 확충</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 ·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중화학 공업 육성•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 포항 · 광양 제철소, 울산 · 거제 조선소 건설• 제1차 석유 파동(중동 건설 사업으로 극복) / 제2차 석유 파동(경제 상황악화)</td></tr></table>		1960년대(경공업 중심)	1970년대(중화학 공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 ·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경공업 육성, 국가 주도 수출 주도형 정책• 해외 자본 유치, 기간 산업 및 사회 간접 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 ·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중화학 공업 육성•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 포항 · 광양 제철소, 울산 · 거제 조선소 건설• 제1차 석유 파동(중동 건설 사업으로 극복) / 제2차 석유 파동(경제 상황악화)
1960년대(경공업 중심)	1970년대(중화학 공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 ·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경공업 육성, 국가 주도 수출 주도형 정책• 해외 자본 유치, 기간 산업 및 사회 간접 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 ·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중화학 공업 육성•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 포항 · 광양 제철소, 울산 · 거제 조선소 건설• 제1차 석유 파동(중동 건설 사업으로 극복) / 제2차 석유 파동(경제 상황악화)					
<div>전두환 정부(1980년대)</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친 중화학 공업 투자, 석유 파동 → 경제 위기, 중화학 공업 투자 조정, 부실기업 정리• 3저 호황(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중화학 공업 및 반도체 자동차 기술 집약 산업 성장•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시작(1986)</div>	<div>김영삼 정부(1993~1998)</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실명제(1993)• 세계 무역 기구 출범(1995)•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 국제 통화 기금의 긴급 구제 금융 지원(IMF 금융 위기)(1997)</div>	<div>김대중 정부(1998~2003)</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정 위원회 구성,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추진• 금 모으기 운동• 외환 위기 조기 극복(2001)</div>				
<div>노무현 정부(2003~2008)</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KTX 개통(2004)•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2004, 한-칠레 FTA 최초)•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2007)</div>	<div>이명박 정부(2008~2013)</div> <div><p>한-EU 자유 무역 협정 체결(2011)</p></div>					

13 연표로 보는 한국사

1. 기원전 연표

기원전 70만 년 전	구석기 문화 시작	기원전 2000년경	청동기 문화 시작
기원전 8000년경	신석기 문화 시작	기원전 400년경	철기 문화 시작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	기원전 108년	고조선 멸망

2. 고구려 연표

기원전 37년	주몽, 고구려 건국	400년	신라에 지원군 파견, 왜 격퇴
3년	유리왕, 국내성 천도	410년	동부여 정벌
53년	태조왕 즉위, 중앙 집권 체제 정비	413년	장수왕 즉위, 광개토대왕릉비 건립(414)
194년	고국천왕, 진대법 실시	427년	평양성 천도
242년	동천왕, 요동 서안평 공격	475년	한성 함락, 백제 개로왕 전사
311년	미천왕, 서안평 점령	598년	수 문제가 30만 군대로 고구려 침입
313년	미천왕, 낙랑군 축출	600년	태학박사 이문진, 『신집』 5권 저술
314년	미천왕, 대방군 축출	612년	수 양제의 침입,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371년	백제와의 평양성 전투, 고국원왕 전사	613년	수의 제3차 침입
372년	소수림왕, 태학 설립, 불교 수용	631년	영류왕, 천리장성 축조 시작
373년	소수림왕, 율령 반포	642년	보장왕 즉위, 연개소문 집권
391년	광개토대왕 즉위	645년	당 태종의 침입, 안시성 전투
392년	백제의 관미성 함락	666년	연개소문 사후 내분 발생
398년	속신 정벌	668년	고구려 멸망

3. 백제 연표

기원전 18년	온조왕, 백제 건국	501년	무령왕 즉위, 왕권 강화, 22담로 왕족 파견
260년	고이왕, 관직 제도 정비, 공복 제정	523년	성왕 즉위, 6좌평제, 16관등제
346년	근초고왕 즉위	538년	성왕, 사비 천도, 국호 '남부여'
371년	백제의 평양성 공격, 고국원왕 전사	553년	신라의 진흥왕의 배신, 나 · 제 동맹 해체
375년	고흥, 『서기』 편찬	554년	신라와 관산성 전투, 성왕 전사
384년	침류왕, 불교 공인	641년	의자왕 즉위
433년	비유왕, 신라 눌지마립간 나 · 제 동맹	642년	신라의 대야성 획득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한성 침입으로 백제 개로왕 전사, 백제 문주왕 웅진 천도	660년	백제 멸망

4. 신라 연표

기원전 57년	박혁거세, 서라벌 건국	676년	나 · 당 전쟁 승리, 신라의 삼국 통일
356년	내물마립간 즉위, 마립간 칭호 사용	682년	신문왕, 국학 설치
399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군사 요청	685년	9주 5소경 완성, 지방군 10정 편성
433년	눌지마립간, 백제 비유왕과 나 · 제 동맹 체결	687년	9서당 편성,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689)
502년	지증왕, 순장 금지, 우경 실시	698년	대조영, 발해 건국
503년	왕 칭호 사용, 국호 '신라' 확정	722년	성덕왕, 정전 지급
512년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울릉도) 정벌	757년	경덕왕, 녹읍 부활
517년	법흥왕, 병부 설치	780년	해공왕 피살 사건, 무열왕계 왕위 세습 종료
520년	율령 반포, 공복 제정, 불교 공인(527)	788년	원성왕, 독서삼품과 설치
532년	금관가야 병합, '건원' 연호 사용(536)	822년	김헌창의 난 진압
545년	거칠부, 『국사』 편찬	828년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553년	진흥왕, 한강 유역 차지, 중국과의 교통로 확보	889년	진성여왕, 원종 · 애노의 난
554년	관산성 전투, 백제 성왕 전사	894년	최치원, 「시무 10조」 제시
562년	대가야 병합, 가야 연맹 해체	900년	견훤, 완산주 도읍 후백제 건국
579년	화랑도 창설	901년	궁예, 송악 도읍 후고구려 건국
643년	선덕여왕, 황룡사 9층 목탑 건립	918년	왕건, 고려 건국
654년	무열왕(김춘추) 즉위, 진골 최초 국왕 즉위	927년	견훤, 경애왕 피살, 경순왕 즉위

660년	김유신, 백제 계백과 황산벌 전투, 백제 멸망	935년	고려에 항복, 신라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936년	후백제 멸망, 고려의 삼국 통일

5. 고려 연표

918년	왕건, 고려 건국, 흑창 설치	1170년	무신 정변, 무신 집권
926년	거란의 공격으로 발해 멸망	1176년	망이 · 망소이의 난(공주 명학소)
935년	견훤의 투항, 신라 멸망	1193년	이규보, 『동명왕편』 집필
936년	후백제 멸망, 고려의 삼국 통일	1196년	최충헌의 집권, 최씨 무신 정권
956년	광종, 노비안검법 시행, 과거제 시행(958)	1198년	만적의 난
976년	경종, 시정 전시과 시행	1231년	몽골의 1차 침입
982년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	1232년	강화 천도, 처인성 전투
983년	성종, 12목에 지방관 파견	1236년	팔만대장경 조판 시작(1251 완성)
992년	국자감 설치	1270년	개경 환도, 무신 정권 종료, 원의 내정 간섭 심화, 삼별초의 대몽 항쟁(배중손, 김통정)
993년	거란의 1차 침입(소손녕) → 서희의 외교 담판, 강동 6주 획득	1274년	여몽 연합군 1차 일본 원정 실패
998년	목종, 개정 전시과 시행	1280년	정동행성 설치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	1281년	2차 일본 원정 실패, 일연, 『삼국유사』 저술
1018년	거란의 3차 침입 → 강감찬의 귀주 대첩(1019)	1314년	만권당 설치
1044년	천리장성 축조	1351년	공민왕 즉위, 개혁 정치 단행
1076년	문종, 경정 전시과 시행	1352년	정방 폐지, 전민변정도감 설치
1097년	의천, 천태종 창시	1363년	문익점, 원에서 목화씨 전래
1102년	숙종, 해동통보 주조	1376년	최영, 왜구 정벌(홍산 대첩)
1104년	윤관, 별무반 설치	1377년	최무선, 화통도감 설치
1107년	윤관, 여진 정벌, 동북 9성 설치	1380년	이성계의 황산대첩, 최무선의 진포대첩
1109년	예종, 7재, 양현고(1119) 설치	1388년	이성계, 위화도 회군
1126년	이자겸의 난	1389년	공양왕 즉위, 박위의 쓰시마섬 토벌
1135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391년	과전법 실시
1145년	김부식, 『삼국사기』 편찬	1392년	고려 멸망, 조선 건국

6. 조선 연표

1392년	이성계, 조선 건국, 태조 즉위	1750년	균역법 실시
1394년	한양 천도	1776년	정조 즉위, 규장각 설치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사망	1781년	초계문신제 시행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1785년	『대전통편』 편찬
1413년	태종, 호패법 시행	1791년	신해통공, 신해박해
1418년	세종 즉위	1796년	수원 화성 완성
1419년	이종무, 쓰시마 섬 토벌	1801년	순조, 신유박해
1441년	장영실, 측우기 제작	1811년	홍경래의 난
1446년	훈민정음 반포	1839년	기해박해
1453년	계유정난	1860년	최제우, 동학 창시
1466년	세조, 직전법 시행	1862년	임술 농민 봉기
1470년	성종, 관수 관급제 시행	1863년	고종 즉위, 흥선 대원군 집권
1485년	성종, 『경국대전』 반포	1865년	경복궁 중건 시작
1498년	무오사화	1866년	당백전 발행, 사창제 실시
1504년	갑자사화	1866년	병인박해, 제너럴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1506년	중종반정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
1510년	삼포 왜란	1871년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1519년	현량과 실시, 기묘사화	1875년	운요호 사건
1545년	을사사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1차 수신사 파견, 2차 수신사 파견(1880)
1555년	을묘왜변	1881년	조사 시찰단, 영선사 파견
1575년	동인·서인 봉당 발생	1882년	임오군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체결, 조미수호 통상조약체결, 제물포 조약 체결
1592년	임진왜란,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1883년	전환국 설치, 한성순보 발행, 원산학사 설립
1593년	훈련도감 설치	1884년	우정국 설치, 갑신정변
1598년	노량 해전, 임진왜란 종전	1885년	한성 조약 체결, 거문도 사건, 배재학당 설립, 광혜원 설립
1608년	광해군, 대동법 경기도 우선 실시	1886년	육영공원, 이화학당 설립
1609년	기유약조 체결	1889년	방곡령 선포
1610년	허준, 『동의보감』 완성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1623년	인조반정	1895년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1627년	정묘호란	1896년	아관 파견, 독립 협회 결성, 독립신문 발간
1635년	인조, 영정법 실시	1897년	고종, 대한제국 선포
1636년	병자호란	1898년	만민 공동회, 헌의 6조
1654년	효종, 제1차 나선 정벌, 제2차 나선 정벌(1658)	1899년	대한국 국제
1659년	기해예송, 갑인예송(1674)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러일전쟁, 제1차 한일협약 체결
1678년	숙종, 상평통보 유통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을사의병
1680년	경신환국, 기사환국(1689), 갑술환국(1694)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강제 퇴위, 군대 해산, 정미의병, 신민회 설립, 국채 보상 운동
1708년	대동법 확대 실시	1908년	전명운, 장인환 스티븐슨 저격, 서울 진공 작전
1712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1909년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저격, 간도 협약 체결
1742년	영조, 탕평비 건립, 『속대전』 편찬(1746)	1910년	국권 피탈, 한일병합 조약 체결

7. 근현대사 연표

1911년	105인 사건, 신민회 해체, 제차 조선 교육령 발표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1912년	토지 조사령 발표, 독립 의군부 결성	1960년	3·15 부정 선거, 4·19 혁명, 이승만 하야, 허정 과도 정부 출범, 장면 내각 성립
1914년	대한 광복군 정부 설립	1961년	5·16 군사 정변
1915년	대한 광복회 설립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18년	무오 독립 선언서 발표	1963년	박정희 정부 수립
1919년	2·8 독립 선언서, 3·1 운동, 의열단 조직, 대한 민국 임시 정부 수립	1964년	6·3 항쟁, 베트남 파병
1920년	조선·동아일보 창간, 물산 장려 운동, 봉오동·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1965년	한일 협정
1921년	자유시 참변, 조선어 연구회 창립	1967년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6대 대통령 선거
1923년	국민 대표 회의, 조선 혁명 선언(신채호) 발표, 조선 형평사 결성, 암태도 소작 쟁의	1969년	3선 개헌
1924년	경성 제국 대학 설립, 조선 노동 총동맹 결성	1970년	새마을 운동, 경부 고속 도로 개통
1925년	치안 유지법 시행, 미쓰야 협정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10월 유신 발표, 비상 계엄 선포,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26년	6·10 만세 운동, 정우회 선언	1976년	3·1 민주 구국 선언 발표
1927년	신간회, 근우회 조직	1977년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79년	YH사건, 부마 항쟁, 10·26 사태, 12·12 사태
1931년	브나로드 운동, 만주 사변, 한인 애국단 조직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거, 농촌 진흥 운동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1934년	조선 농지령, 진단 학회 조직	1987년	4·13 호헌 조치, 6월 민주 항쟁, 6·29 선언 발표, 제13대 대통령 선거
1937년	중일전쟁, 황국 신민 서사 제정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최
1938년	국가 총동원법 공포	1989년	동유럽 국가와 국교 수립
1939년	창씨개명, 국민 징용령, 미국 공출제	1990년	민주 자유당 창당, 소련과 수교
1940년	임시 정부 주석 중심제, 한국 광복군 창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1941년	태평양전쟁 개전, 임시 정부 대일 선전 포고	1992년	중국과 수교, 제14대 대통령 선거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	1993년	금융 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
1943년	카이로 회담	1994년	북한 김일성 사망,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표
1944년	강제 징용령, 여자 정신대 근무령	1995년	지방 자치제 실시

1945년	알타 회담, 포츠담 선언, 8·15 광복,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설치, 모스크바 3상 회의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1946년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좌우 합작 운동 전개	1997년	경제 위기, IMF 구제 금융 요청, 제15대 대통령 선거
1947년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유엔 총회(남북 총선거 통한 정부 수립 결정)	1998년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 시작
1948년	유엔 소총회 남한 단독 선거 결의, 제주 4·3 항쟁, 5·1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6·15 남북 공동 선언
1949년	농지 개혁법 제정, 김구 서거	2001년	IMF 지원 자금 전액 상환
1950년	농지 개혁 실시, 6·25 전쟁 발발, 유엔군 참전, 인천 상륙 작전, 서울 수복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제16대 대통령 선거
1951년	1·4 휴전, 서울 재수복	2003년	개성 공단 착공
1952년	발취 개헌, 제2대 대통령 선거	2004년	한국-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KTX 개통
1953년	반공 포로 석방, 휴전 협정 체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10·4 남북 공동 선언,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국-미국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1954년	사사오입 개헌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박근혜 당선)

기초의
답이다

Power

사회복지학개론

핵심 키워드로 파악하는
사회복지학개론

01 사회복지입문

1.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보완적 모형	제도적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 시장경제원칙 • 협의의 복지 : 미시적 접근 • 초기산업사회 · 자유주의 국가 • 가족과 시장 기능 실패시 보충적 개입 • 최저 생활의 보장 구현 • 선별주의 : 요보호자 대상, 자산조사 필수 • 공공부조 • 개인주의, 자유주의 • 최저의 급부 • 능력에 따른 자원 배분 • 부의 수직적 재분배 강조 •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적용 • 작은 정부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 우애 • 광의의 복지 : 거시적 접근 • 후기산업사회 · 복지국가 • 정상적 제도로 운용 • 평등과 사회통합 구현 • 보편주의 : 전 국민 대상 • 사회보험 • 사전적 · 적극적 예방과 원조 강조 • 인본주의, 평등주의 • 최적의 급부 • 욕구에 따른 자원 배분 • 자원의 사회적 재분배 강조 • 일반조세를 통한 자원 조달 • 큰 정부론

2.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사회복지모형

- 신우파 : 신우파는 자유를 강제가 없는 소극적(negative)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들은 평등보다는 자유를 명백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이 된다.
- 중도노선 : 실용주의적(pragmatic)성격을 지닌 중도노선은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경쟁적 사기업을 신봉한다는 점에서 신우파와 유사하지만, 중도노선은 중심가치들을 절대적 가치로 믿지 않으며, 조건부로 신봉한다.
- 사회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의 중심적 사회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fraternity)이다. 사회민주주의가 제시하는 평등은 과도한 불평등의 감소를 의미하며, 자유는 적극적(positive) 자유를 뜻한다.
- 마르크스주의 :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시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와 빈민들에게는 빈곤과 실업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경제적 자유와 기회의 실존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평등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페미니즘 :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복지국가는 성차별체계(gender system)의 현대적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과 여성친화적 국가라는 호의적 반응이 공존하고 있다고 본다.
- 녹색주의 : 경제성장이 지연되더라도 자연을 먼저 생각하자는 운동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성장제일주의 생산구조의 변경을 주장한다.

3. 탈상품화

-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를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성 정도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복지정책의 시장영향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 틀로 탈상품화를 제시하였다.
- 복지국가의 목표를 시장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를 탈상품화라고 한다.
- 에스핑과 안데르센은 탈상품화의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의 모형을 자유주의, 조합주의(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분류하였는데,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4. 확산이론

-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초점을 둔다.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국제적 모방과정(processes of imitation)이라고 본다.

5. 스피햄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1795)

- 스피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로써,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법령이다.
- 오늘날의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원이 되는 법령으로 최저임금법과 최저생계비의 모델이 되었다.
- 원외구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법으로, 한 가정의 생계에 드는 음식물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한 노동자를 위한 임금 보조제를 말한다.
- 빈민대책에 가족 수를 고려한 최초의 법령이다(가족 수×빵 값).

6.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산업화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당시 빈민에 대해 특권 상류층의 도덕적 정당화의 차원에서 설립된 조직이다.
- 개인적·도덕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빈민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덕적 영향을 강조하였다.
- 비조직적인 자선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 간 협력결여로 중복구제의 발생 및 자원 낭비가 난무하자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불규칙하게 난립한 자선단체들의 무질서한 구호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솔리(Henry Solly)목사에 의해 1868년 민간자선사업과 공공자선사업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제안되었고 1869년 찰머스(Thomas Chalmers), 데니슨(Edward Denison), 힐(Octavia Hill), 로크(Charles S. Loch)등의 사회 사상가들에 의해 1869년에 런던자선조직협회가 창설되었다.
- 자선단체 상호 간의 업무연락을 통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7.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 5대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3대 전제조건	관리운영의 6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아동수당 • 포괄적 의료서비스 • 완전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 포괄적 의료서비스 • 완전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일각출 • 균일급여 • 급여의 적절성 보장 • 적용범위 포괄성 • 가입대상의 분류 • 관리 · 운영의 통합

8.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 복지다원주의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사상의 산물이다.
- 사회복지주체를 다원화, 즉 사회복지책임을 정부 이외의 기업, 종교, 사회단체에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부가 직접적인 운영자의 입장에서 물러나는 대신 운영을 각종 민간단체에 맡기거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문(제3부문), 기업, 지방정부 등도 복지공급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사회사업의 기본적 가치(W. A. Frielander)

- 개인 존중의 원리 : 개인주의에 기초한 원리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원리이다.
- 자발성 존중의 원리 : 모든 사람은 당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로, 자기결정의 원리라고도 한다.
- 기회균등의 원리 : 모든 인간은 균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원리이다.
- 사회연대의 원리 :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원리로, 상호부조의 원리라고도 한다.

02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1.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 원래 정치학에서 생성된 이론으로 엘리트주의(elitism)와 대비되는 이론이다.
- 다원주의이론은 민주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다.
- 사회정책이란 복지수혜자 조직까지를 포함한 여러 이익집단 간의 민주적 타협의 결과라고 본다.
- 사회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국가는 중재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2. 빈곤

- 절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이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결여된 상태를 빈곤으로 보고, 객관적 빈곤선을 설정하여 그 선에 미달되는 소득수준을 빈곤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 상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이란 일정한 사회에 있어서 하위 계층의 소득과 비교적 상위 계층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빈곤의 개념을 정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본다.
- 주관적 빈곤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제삼자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 기준이 정해진다고 보면, 주관적 빈곤은 각자가 빈곤으로 간주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빈곤의 개념이다.
- 절대적 빈곤 계측방법(최저생계비 계측방법) : 실태생계비방식, 전물량방식(예산기준방식), 반물량방식(음식물량방식)
- 상대적 빈곤 계측방법 : 가계지출방식(household expenditure measures), 순수상대빈곤(pure-relative poverty)방식, 유사(준)상대빈곤(quasi-relative poverty, 준상대빈곤)방식
- 주관적 빈곤 계측방법 : Leyden 방법, 여론 · 합의방식
- 빈곤갭(poverty gap) : 빈곤갭(poverty gap)은 빈곤층의 평균소득(mean income)과 빈곤선과의 격차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동일한 빈곤율을 나타내는 국가일지라도 빈곤의 상대적 크기에서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로 빈곤갭을 측정한다.
- 빈곤의 덫 :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 신빈곤 :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등장한 신조어로, 기초수급자와 같은 최하위 빈곤층이 아닌 바로 윗 단계의 생활수준에 속함으로써 사회적 혜택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삶의 수준을 말한다. 대부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불안전고용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여성 가구주, 청년실업자, 조기퇴직자 등의 삶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3.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저수준 → 고수준)

-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 : 생물학적 생존의 욕구
- 안전의 욕구(safety need) : 안정, 안락, 평온, 평정의 욕구
- 사랑의 욕구(love need) : 소속과 애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
- 존경의 욕구(self-esteem need) :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의 욕구와 자존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

4. 평등 가치

수량적 평등	평등의 개념 중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결과의 평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 차이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적 평등	수량적 평등과 달리 개인의 욕구나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흔히 공평이라 부르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	가장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은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개념이다.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에서 선호하는 개념이다.

5.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의 산출분석

- 할당(allocation) : 수급대상자와 수급자격의 결정,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 급부(provision) : 급부의 형태와 수준의 결정,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 재원(finance) : 각출금(기여금)의 총원과 배분,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 전달(delivery) : 전달 담당과 과정,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6.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구분	선별주의(Selectivism)	보편주의(Universalism)
가치	개인주의	평등주의
대상	문제를 가진 소수	전 국민
전제	자산조사	욕구, 자산조사 불필요
성격	치료적	예방적
치료	개인의 노력	공공의 노력
모형	잔여적 모형	제도적 모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목표(대상)효율성• 높은 비용효과성과 효율성• 요보호자에 집중된 서비스• 자원의 낭비 방지• 낮은 수준의 의존성• 높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소득 보장 : 빈곤 예방• 수혜자의 심리사회적 낙인감 제거• 간편한 행정절차• 급여의 공정성 : 사례의 균일성• 모든 시민의 일정수준의 구매력•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 사회통합 : 정치적 지지 확보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행정절차• 자산조사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발생• 낙인감(stigma) 발생•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 기피•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갈등 야기• 급여의 불공정성 : 사회분열• 정치적 지지기반 협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용 증가• 한정된 자원에 대한 낮은 효율성• 높은 수준의 의존성• 낮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범위 협소

7. 급부

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후진국인 미국의 경우 현물급여 비중이 크다. •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경제적 필요가 매우 높은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어 대상효율성이 높다. • 수급자들에게 현물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치적으로 선호된다. •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는 정부관료들에 의해 선호된다. • 지출 용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납세자가 선호한다. • 현물 생산자 집단들에 의해 선호된다. • 평등 평가시 보통 물품의 평등을 중시하는 일반 국민들이 선호한다.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현금급여의 비중이 커진다. • 수급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 수급자의 직접 소비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다. • 수급에의 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살릴 수 있다. •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높일 수 있다. • 프로그램의 운용비용이 적게 든다.
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제3의 급여 형태이다. •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 유발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도모된다. • 목표효율성이나 대상효율성을 부분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제한적으로 수급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 현물급여에 비하여 관리, 운영에 비용이 적게 든다. • 정치적 측면에서 현물급여와 비슷한 효과로 정치적으로 선호될 수 있다.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들에게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제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 • 불이익집단(소수인종, 여성,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학, 취업, 진급 등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무형의 급여 형태로,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문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고용과 교육에서 특히 강조된다. • 대표적인 예로 양성평등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학입시제도 중 농어촌 자녀 특별전형, 미국의 적극적 소수민족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의 고용을 부분 보장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는 정책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수급자들이 이용된다. • 원론상 수급자들의 이익을 높이는 가장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형태이다. • 현실에서는 수급자들의 참여가 다분히 명목적이어서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못 미친다.

8.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한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가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운영 : 국세청
- 근로장려금의 크기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작아진다.

구 분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100분의 150
	홀벌이 가족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족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1천900분의 300
자녀장려금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2,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2,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1천500분의 20]

9. 사회보장(「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사회보험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공부조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평생사회안전망 :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10.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민간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민간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합성을 강조하여 결국 복지 요소에 초점을 두나, 민간보험은 개인적 공평성을 강조하여 결국 보험 요소에 초점을 둔다.
-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민간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1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주의 • 보편주의 • 자산조사 불가 • 기여금(보험료)으로 자원 조달 • 기여와 위험발생에 따른 급여 • 급여량 예상 가능 • 하한선 최저 생활 보장 • 권리성 • 사전적·적극적·예방적 사회보장 • 1차 안전망 • 참여자 중 조건 구비자만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주의 • 선별주의 • 자산조사 필수 • 조세로 자원 조달 • 요구에 따른 급여 • 급여량 예상 불가능 • 상한선 최저 생활 보장 • 시혜성 : 낙인감(stigma) 발생 • 사후적·소극적·치료적 사회보장 • 2차 안전망 • 참여자가 모두 수혜자

12.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 1963년 제정, 1964년 시행
- 국민건강보험 :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1977년 시행,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국민연금 : 1986년 제정, 1988년 시행
- 고용보험 : 1993년 제정, 1995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13.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14.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

- PERT는 하나의 과업(project)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세부 사업을 단계적 결과와 활동으로 세분하여 관련된 계획 공정을 관계도식(network)으로 형성하고 이를 최종 목표로 연결시키는 종합계획 관리기법이다.
- PERT는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의 측정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기회고가 관리를 위한 전략 모형으로, 시간으로 구성된 그림으로 표시한다.
- 과업의 선후 및 소요 시간 등을 도표로 표시함으로써 전체 과정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 실행 과정 중의 조정이 용이하며, 실행 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 실행 과정에서 작업 종료에 위한 대안 경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그림이 복잡한 경우에는 실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 도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프로그램 실행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PERT의 활용이 어렵다.

15. 예산편성방법

- 품목별 예산(LIBS : Line-Item Budget System) :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지출 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예산편성방법이다. 다가올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지출의 항목들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되며 일정비율의 증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증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제 기능이 강하다.
- 성과주의 예산(PBS : Performance Budget System) :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 · 활동별로 구분하고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표시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 · 평가하고자 하는 예산편성기법이다. 다양한 산출물에 관심을 갖고 개별항목들을 조직활동들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강조한다.
- 기획예산제도(PPBS : 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 : 기획예산제도는 계획 중심의 예산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있게 행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예산제도는 종래의 품목별 예산과 같은 점증주의적 예산결정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과학적 · 분석적 사고방식과 기법을 이용한다. 자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 영기준예산제도(ZBB : Zero Base Budgeting) : 영기준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해서 각각의 효율성과 효과성 및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예산의 감축기능을 중시하여 예산 절약과 예산관리 과정에서의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16. 사회복지 프로그램 인구의 유형

- 일반 인구 : 대상지역의 전체인구
- 위험 인구 : 일반 인구의 하위집단으로 특정사회문제에 노출된 인구
- 표적 인구 : 위험 인구의 하위집단으로 프로그램 수혜자격 인구
- 클라이언트 : 표적 인구의 하위집단으로 서비스참여 인구

1.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접근방법 등장 배경

- 복잡다기해지는 사회변동과 사회문제에 대해 과거 방법론별 접근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대두되었다.
- 전통적인 방법은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서비스를 파편화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 1960년대에 이르러, 대공황 등의 여파로 개인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실천이 근본적 문제해결을 이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인식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방향이 사회변화 및 사회적 개입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다.
- 실천대상이나 문제별로 분화 및 전문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 통합방법론은 통합적 맥락에서 수행되는 문제해결과정이다. 이것은 사회사업가가 확인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생태체계 이론적 준거들을 사용하며, 광범위한 이론과 개입방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선택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수준에서 용이하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과거 사회복지의 개입은 주로 인간에게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 초점을 두는 2계도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통합적 방법은 이 양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둬으로서 인간과 환경의 공유영역, 즉 사회적 기능수행 영역에 사회사업가가 개입해야 함을 강조한다.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윤리적 딜레마

-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 : 사회복지사는 때때로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전문가로서의 가치의 상충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종교적 가치가 상충될 수 있다.
-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 클라이언트, 동료, 상사, 기관, 사회 등이 서로 상충된 기대를 가질 때,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우선으로 의무를 행사해야 하는지 갈등하게 된다.
-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 원조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신을 위태롭게 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할 때 갈등할 수 있다.
- 전문적 동료관계 또는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동료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권위를 남용해 클라이언트나 전문직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나 기관의 규정위반, 부정수단이나 속임수를 사용했음을 발견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회복지사는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할 수 있다.
- 규칙과 정책 준수 :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기관정책에 어긋날 때 사회복지사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 자원의 공정한 분배란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똑같이 제공해야 하는 형평성 기준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4. 로웬버그와 돌고프(Lo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원칙(1996)

- 윤리원칙 1: 생명보호의 원칙
- 윤리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윤리원칙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 윤리원칙 4: 최소 손실의 원칙
- 윤리원칙 5: 삶의 질의 원칙
- 윤리원칙 6: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 윤리원칙 7: 진실성과 완전공개 원칙

5. 사회복지실천기술: 비에스텍(Felix Biestek)의 7대 원칙

- 개별화(Individualization)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내용과 방법,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의도적 감정표현(Purposeful Expression of Feelings)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인식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통제된 정서적 반응(Controlled Emotional Response)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성을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해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수용(Acceptance)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단점, 약점 등을 포함하여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여 받아들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비심판적 태도(Non-Judgemental Attitude)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문제의 원인이 클라이언트에게 있는지 아닌지 등을 심판해서는 안 되고,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가치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Client Self-Determination)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문제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관계에서 노출된 정보를 전문적 치료외에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6. 사회복지실천의 면접

- 면담 기관과 상황 : 사회복지면접에는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장 : setting)이 별도로 존재하며, 면담 내용도 특정 상황(맥락, 전후관계 : context)에 한정된다.
- 목적지향적 활동 : 사회복지면접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다는 점에서 목적지향적 활동이며, 의사소통은 개입목적에 관련된 내용들로 제한된다.
- 한정적 · 계약적 활동 : 사회복지면접은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가 목적달성을 위해 같이 활동하지만, 한정적이고 계약적인 활동으로 상호 합의한 상태에서 수행된다.
- 특정한 역할 : 사회복지면접은 면접자인 사회사업가와 피면접자인 클라이언트가 각각 특정한 역할을 규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특수한 역할관계에 기초한다.
- 공식적인 활동 : 사회복지면접은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으로, 계획성, 역할의 명확성, 내용의 일관성, 통일성을 갖는다.

7. 전이와 역전이

- 전이 : 클라이언트가 어린 시절 경험한 누군가에 대한 바람, 원망, 사랑, 두려움 등의 무의식적인 감정들을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자신을 거부했던 어머니에 대한 감정 때문에 여자 사회복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의 경우이다. 전이반응은 상황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왜곡을 낳아 변화에 대한 강한 저항을 일으킨다.
- 역전이 : 전이와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마치 자신의 과거 경험 속의 어떤 인물인 것처럼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역전이 반응도 강한 비현실적인 감정으로 왜곡을 낳고 건전한 변화를 방해한다.

8. 과제중심모델

- 과제중심모델은 1960년 후반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1972년 시카고 대학교의 Reid와 Epstein에 의해서 소개된 실천이론모델이다.
- 과제중심모델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 정신분석이론에 기초한 장기 심리치료가 비판을 받으면서 시간제한적인 단기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 과제중심모델은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고 사회복지사의 임상실함과 실천적 경험에 의해서 비롯된 실천모델이다.
- 과제중심모델은 시간제한성 · 명확한 목표 · 예리한 초점 · 체계적 이행의 특징을 가진 계획된 단기치료적 개입모형이다.
- 클라이언트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동의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 이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특징이 있다.
- 계획된 단기성을 가지며, 고도의 구조성이 요구된다.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문제해결을 위한 계약관계로 이어짐에 따라 중도개입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9. 권한부여(Empowerment) 모델

-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해 강점관점(Strength Perspective)을 적용하여 다양한 차원을 반영하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현실화시키고자 한다.

구분	병리(Pathology) 관점	강점(Strength) 관점
개인관	사례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자	독특한 존재, 강점을 가진 재능 · 자원을 가진 자
치료의 초점	문제	가능성
클라이언트의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에 의해 재해석되어 진단에 활용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회의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사람을 알아가고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긍정적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	성인기의 병리를 예측할 수 있는 전조	개인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는 자원
치료의 핵심	실무자가 고안한 치료 계획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
삶의 전문가	사회복지사	개인, 가족, 지역사회
개인적 발전	병리에 의해 제한	항상 개방
변화를 위한 자원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장점, 능력
원조 목적	행동, 감정, 사고, 관계의 부정적인 개인적, 사회적 결과와 증상의 영향을 감소하는 것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며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

- 임파워먼트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 임파워먼트모델은 클라이언트체계가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면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본다.
- 임파워먼트는 협동과정으로 클라이언트와 실천가는 협력적 파트너로 함께 일한다.

10.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개자 (Broker)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을 찾아 활용하도록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옹호자 (Advocacy)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계약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변 ·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조력자 (Enabler)	클라이언트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원의 발견과 활용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중재자 (Mediator)	클라이언트와 상대방이 갈등을 해결하도록 설득과 화해의 절차들을 통해 공동의 기반을 발견하도록 조력한다.
교육자 (Educator)	정보 제공, 행동과 기술의 지도 등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11. 가계도(Genogram)

- 가계도란 2~3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도표로 제시함으로써 당면 문제의 근원을 찾는 사정도구이다.
- 각 가족성원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생물학적, 법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도표로 묘사하는 것이다.
- 가족을 시계열적으로 조명하여 지도화함으로써 여러 세대를 살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가족들 스스로가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유형을 찾고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12. 사례관리

- 사례관리란 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 전문가의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 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기법이다.
-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의 전반적인 목적보다는 소비자의 전반적인 목적에 기반을 둔 실천과정이다.
- 사례관리는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서비스라기보다는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기반을 둔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실천이다.
- 사례관리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인해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나타난 서비스의 단편성, 분산성, 불연속성, 비접근성, 중복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13. 사례관리의 등장배경

- 탈시설화의 영향
-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체계의 연계 필요성 증가
-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증가
- 서비스 비용 억제
- 사회적 지원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
-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 인구사회적 변화
- 기존 서비스의 단편성
- 대인복지서비스 비용효과에 대한 인식의 증가

14. 로스먼의 지역사회개발모델(Community Development Model)

- 지역사회개발모델 : 과정(process)중심의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통합과 협동적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에 주된 관심을 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이다.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리적 측면에서의 지역사회전체를 대상집단으로 본다.
- 사회계획모델 : 과업(task)중심의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제적인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계획을 강조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보다는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과업의 성취에 관심을 둔다.
- 사회행동모델 : 사회행동모델은 기본적으로 과업(task)을 중시하는 과업중심모델이지만, 과정(process)도 무시하지는 않는다. 사회행동이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disadvantaged segment)에 속한 주민들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그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지역사회는 혜택과 권한의 분배에 따른 계층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서, 사회에는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집합적 행동을 통해 공정한 자원 배분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

구분 \ 모델	지역사회개발(모델A)	사회계획(모델B)	사회행동(모델C)
지역사회활동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통합 • 능력의 향상 • 과정지향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 과업지향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관계와 자원 변경 • 기본적인 제도의 개혁 • 과업 · 과정의 병행
지역사회의 구조 ·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노미상태 • 문제해결능력의 결여 	실제적인 사회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리한 상황의 집단 • 사회적 불공평, 박탈
기본적인 변화 전략	광범위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사실의 수집 • 합리적 행동과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 구체화 • 목표 집단의 행동을 위한 사람의 조직화
변화를 위한 전술	합의 · 집단토의	합의 또는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또는 경쟁 • 대결, 직접적인 행동 • 협상
실천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매자, 조정자의 역할 • 지도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의 수집, 분석가 • 프로그램 수행, 촉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 선동자 • 중재, 협상자
변화의 매체	과제지향적 소집단	공식적 집단이나 조직	대중조직
권력구조	공동사업의 협력자	고용자 또는 후원자	전복되어야 할 압제자
지역사회와 대상주민	전 지역사회	전 지역사회나 일부	지역사회의 일부
하위집단들의 이해관계	조정가능한 이해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가능한 이해관계 • 갈등적인 존재 	갈등적 이익관계
공동이익의 개념	합리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
대상 집단	시 민	소비자	희생자
클라이언트	참여자	소비자 또는 수혜자	고용인 · 고객 · 성원

15. 초점집단기법

- 초점집단기법은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또 다른 기법으로, 명목집단기법이나 대화기법을 대신하여 자유롭게 지역사회의 제반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지역사회포럼의 맥락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 초점집단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다양한 관점 또는 문제들을 조정하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
- 사회복지사 또는 실천가는 지역사회의 집단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관심 및 이해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6~8명 선출한다. 여기서 선출된 대표들은 하나의 초점집단을 형성한다.
- 초점집단의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는 자유로이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 초점집단기법은 특정 문제의 관련 당사자들의 모임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 즉, 조사결과와 외적 타당성이 낮다.

16.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사업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기능보완사업 • 가정문제해결 · 치료사업 • 부양가족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교육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 청소년 사회교육 • 성인기능교실 • 노인 여가 · 문화 • 문화복지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기능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개발 •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 ·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17. 조사의 시간적 기준에 따른 분류

횡단적 조사	일정 시점에서 특정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거나, 특성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는 조사이다.	
종단적 조사	패널조사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조사이다.
	추이조사	동일한 주제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지만 응답자는 매 조사마다 동일하지 않은 조사로, 경향조사 또는 추세조사라고도 한다.
	동년배조사	386세대의 변화, n-세대의 변화, 베이비붐 세대의 변화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인구집단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으로, 동시집단연구라고도 한다.

18. 타당도(Validity)

-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what)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 준거(criteria)의 개념이 수반된다.
- 검사의 진실성 또는 검사의 정직성이라고 한다.
-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등이 있다.
- 실험연구의 타당도(Campbell&Stanley) :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19.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 역사(History) : 소설 창작력 향상 연구시 졸업생인 유명 작가가 우연히 방문한 경우나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학업 스트레스 감소 연구시 교내 예술제의 개최와 같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 발생하는 실험변인 이외의 통제 불가능한 특수 사건이나 우연한 사건
- 성숙(Maturation) : 줄넘기와 신장 증가와의 상관 연구시 줄넘기의 영향 이외의 아동의 자연 성장과 같은 나이의 증가나 피로의 누적과 같은 실험처치 이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피험자의 내적 변화
- 검사(Testing)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증 취득점수 향상과의 상관연구에서 훈련의 결과 외의 자격증 취득 시험에 숙달되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사전검사에 대한 기억이나 사전검사 후의 의도적 노력 등과 같은 사전검사와 관련된 경험이 사후검사에 주는 테스트 효과
- 측정도구(Instrumentation)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증 취득점수 향상과의 상관연구에서 훈련 전후에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사전검사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했었거나 엄격한 채점을 하고 사후검사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출제하거나 후한 채점을 하게 되었을 때 점수 향상이 훈련의 결과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측정도구의 변화나 채점자의 변화로 인하여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에 변화가 생기는 것
- 피험자의 선발(Selection) : 선발요인(편향된 집단 선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눌 때 편의적으로 선발, 편견을 가지고 선정, 편향된 선별을 통해서 관찰할 때 발생함.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만들기 위하여 피험자를 선발할 때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결여되어 편차가 나타나는 현상(S형 오차)
- 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 : 더 이상 성적이 떨어질 수 없는 부진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하였을 때 사후검사에서의 성적 향상은 방과 후 교실의 영향일 수도 있으나 극단적인 점수층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집단선정에 있어서 극단적인 점수를 기초로 하여 선정할 때 나타나는 통계적 현상

20.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 유층표집)

- 모집단을 집단 내의 특질이 같은 여러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유층화), 각 하위 집단으로부터 무선표집하는 방법이다.
- 유층(strata)이란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전집의 여러 하위 집단을 말한다.
- 하위 집단의 내부는 동질적이나, 하위 집단 간은 이질적이다.
- 전집의 중요 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표집하게 되므로 대표적인 표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하위 집단 간의 상호특성 비교가 가능하다.
- 표집방법 중 표집오차가 가장 적어 가장 정확하고 엄밀한 방법이다.
- 유층표집 방법 : 비례유층법, 비비례 유층법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①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04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를 검토하여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모델

재활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없어서 일상적 활동이 부적절하게 수행되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고용에 의한 유급취업이 부적절하다고 전제한다. ·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장애인 개인에게 있으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직업 재활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재활의 성공은 환자나 클라이언트가 이미 규정된 치료체계에 얼마나 잘 순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 중증장애인에 있어 재활모델은 한계가 있다.
자립생활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은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 체계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본다. · 장애인들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44조)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그 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쉼터

4.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장애인활동법」 제16조)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5.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기초의
답이다

Power

행정법총론

통으로 암기하는
행정법총론

01 행정법총론

1. 행정

행정의 의미	국가작용의 한 부문으로 입법과 사법에 대비되는 행정부의 법집행작용
통치행위	국가최고기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행위

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미 : 행정의 조직 ·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2)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내용상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주체의 우월성 : 공정성, 불가쟁성, 자력집행성 등 인정 • 공익의 우선성 • 평등성
형식상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문성 :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 • 형식의 다양성 : 단일법전 내지 통일법전 없음
성질상의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일 · 성문성 • 기술 · 수단성 • 명령규정성(단속규정성) • 행위규범성

(3)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식근거

① 성문법원(원칙)

- ㉠ 헌법 : 가장 기본적인 법원, 최고법원
- ㉡ 법률 : 가장 중요한 법원
- ㉢ 명령

종류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원성 인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명령의 법원성 : 긍정 • 행정규칙의 법원성 인정 여부 : 다수설(광의설, 행정기준설) 긍정, 판례(협의설, 법규설) 부정

- ㉣ 조례
- ㉤ 규칙

② 불문법원(예외, 보충)

㉦ 행정관습법

성립요건	행정관행의 계속 · 반복성(객관적 요건)과 법적 확신성(주관적 요건)에 의해 성립(통설 · 판례)
종류	행정선례법, 민중적 관습법
효력	보충적 효력(통설 · 판례)

㉠ 판례법

대륙법계	동종사건에서의 선례구속력 부정, 법원성 부정
영미법계	동종사건에서의 선례구속력 긍정, 법원성 긍정, 판례법주의 확립

㉡ 조리(법)

개념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의미
기능	최후의 보충적 법원 및 행정법 해석의 기본원리

(4)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 ① 민주행정의 원리 : 행정작용 · 조직의 민주화 실현,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
- ② 법치행정의 원리 :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 ③ 자치행정의 원리 : 지방자치 실현
- ④ 사회국가의 원리 : 복지국가의 원리 구현
- ⑤ 사법제도국가주의 등

(5)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 ① 행정면에서의 법치주의를 의미
- ② 근대적 법치주의
 - ㉠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 오토 마이어에 의해 체계화
 -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 형식적 법치주의의 형해화
 - 시민주적 법치주의의 변질
 - 법의 형식적인 면만 강조, 내용적인 면 경시 : 법치주의 악용, 극단적 폐해 나타남
 - ㉡ 영미법계 국가의 법치주의
 - 법의 지배원리 : 다이시(A. V. Dicey)에 의해 체계화
 - 법의 지배원리의 내용
 - 권력의 자의적 지배에 대한 정당한 법의 지배(법의 절대적 우위)
 - 법적 평등원칙(행정권도 보통법 적용의 예외가 아님)
 - 인권에 관한 일반법원의 판례법상의 원칙 확립(법의 내용이 인권보장에 합치, 일반법원에 의한 담보)
- ③ 현대적 법치주의
 - ㉠ 대륙법계의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 법치행정의 원칙의 일반적 적용
 -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 합헌적 법률의 우위
 - 법치행정원리의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강화

- 법률유보(법률의 근거)의 적용범위의 확대

침해유보설	침해행정
권력행정유보설	권력행정
급부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	침해행정, 급부행정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설, 본질사항유보설)	헌법상 기본권 관련 중요사항(본질사항), 의회유보 관련 학설
신침해유보설	침해행정, 특별권력관계, 급부행정(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님)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영역

- ㉔ 영미법계의 법치주의 : 법의 지배원리, 즉 보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한 수정 · 조화발전

(6) 행정법의 일반원칙

- ① 성질 : 주로 헌법으로부터 유래한 불문법상 원리, 법의 일반원칙

- ②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함
적용영역	사법으로부터 발전해온 법의 일반원칙

- ③ 평등의 원칙

개념	불합리한 차별금지, 공평처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동종사안에 대한 동종판단

- ④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개념	행정목적 실현과 수단 간의 합리적인 비례관계 유지
내용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 ⑤ 신뢰보호의 원칙

개념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이 정당성 · 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경우 그 신뢰를 보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 •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처리보호 • 인과관계 •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행위의 존재

- ⑥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개념	공권력적 조치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 결부시켜서는 안 됨
내용	권한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내용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 관련성의 명령

(7) 행정법의 효력

- ① 개념 : 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 ② 시간적 효력

효력발생시기	법령 등은 시행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시 효력발생	
효력소멸시기	한시법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때, 비한시법은 명시적 폐지가 있거나 모순되는 법령이 사후 제정된 때 효력소멸	
소급입법의 문제	진정소급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 이미 종료된 사실에 소급적용 • 소급효 인정여부 : 원칙적 부정(불리한 경우), 예외적 긍정(유리한 경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
	부진정소급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 계속되는 사실에 소급적용 • 소급효 인정여부 : 원칙적 긍정, 예외적 부정

③ 지역적 효력

원칙	행정부규를 제정하는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 가짐
예외	조약 등에 의한 외교공관 등에 대한 주권제한

④ 대인적 효력

원칙	속지주의에 의한 내 · 외국인 모두에 적용
예외	외국원수나 외교관에 대한 주권제한

3. 행정상 법률관계

(1) 개념 : 행정주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행정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

(2) 공법과 사법

- ① 대륙법계 : 공 · 사법 이원론
 - ㉠ 공법 : 국가와 국민의 지배복종관계,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 인정, 부대등관계
 - ㉡ 사법 : 사인과 사인의 관계, 사적자치의 원칙 인정, 대등관계
- ② 영미법계 : 공 · 사법 일원론

(3) (광의의) 행정상 법률관계

- ① 행정조직법적 관계
 - ㉠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 ㉡ 행정조직 내부관계
- ② 행정작용법적 관계 : 협의의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	권력관계	공법적용, 행정소송
	관리관계	사법적용, 민사소송
사법관계	(협의의) 사법관계(국고관계)	사법적용, 민사소송
	행정사법관계	사법적용, 민사소송

(4)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① 의미 : 권리 · 의무의 주체,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② 행정주체
 - ㉠ 의미
 - 개념 : 행정권을 행사,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 행정기관과의 구별 : 행정기관은 행정주체를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행정주체에게 귀속하게 하는 행정사무 담당자
 - ㉡ 종류
 - 국가 : 고유의 행정주체
 -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재단, 영조물법인
 - 공무원수탁사인 : 조세원천징수 의무자(판례 부정), 사인인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호적 · 경찰사무를 행하는 상선의 선장,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총장
 - ㉢ 행정객체(상대방) : 사인, 공공단체 **cf** 국가 ×

(5)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① 공권
 - ㉠ 개념 :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
 - ㉡ 종류 :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공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공권을 의미)
 - ㉢ 특수성

원칙	이전 · 포기 제한, 금지
예외	주로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권은 이전, 포기 허용 예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 등

- ㉢ 공권의 성립요건, 발생근거 및 확대화 경향

성립요건(2요소)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의 존재, 사익의 보호성
발생근거	법률, 헌법, 법규명령, 행정행위, 관습법, 조리, 공법상 계약 등
확대화 경향	재량영역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이론에 의한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등

- ② 공의무 :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 타인을 이익을 위하여 의무자의 의사에 가하여진 공법상의 구속

(6)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① 개념 : 특별한 공행정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성립, 당사자 일방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은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
- ② 특징 : 법치주의나 법치행정의 원리 적용 배제
- ③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성립배경	19C 후반 입헌군주정 배경, 입헌주의 발달에 따라 군주가 의회와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자, 군주와 의회의 권한관계 확정 · 조정과 군주에 대한 법률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확보 기여이론
이론적 기초	P. Laband, G. Jellinek의 국가법인설, O. Mayer에 의한 체계화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주의의 제한 • 기본권의 제한 • 사법심사의 제한 • 행정규칙의 비법규성

④ 성립과 소멸

성립	법률의 규정, 상대방의 동의
소멸	행정목적의 달성, 임의 탈퇴, 권력주체에 의한 일방적 배제

⑤ 종류

근무관계	국가와 국가공무원의 근무관계 등
영조물 이용관계	국공립학교에서 학생의 재학관계 등
특별감독관계	공공조합, 특허기업자 등의 국가의 특별감독을 받는 관계
사단관계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

⑥ 현대적 특별권력관계이론 : 오늘날 통설 · 판례는 부정

(7)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①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문제

- ㉠ 행정법의 영역은 단일법전(통일법전)이 없으며 법의 원리가 이론상 확립되어 있지 않음
- ㉡ 개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법의 흠결문제가 발생
- ㉢ 공사법이원론의 입장에 있는 대륙법계의 문제

② 명문으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 사법적용

③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소극설(공법적용설)

㉡ 적극설(사법적용설)

- 직접적용설
- 유추(간접)적용설(통설 · 판례) :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결정
 - 직접적용 : 일반법원리적인 사법규정 **예** 신의성실의 원칙
 - 유추적용 : 법기술적인 사법규정 **예** 시효
 - 기타의 사법규정 : 행정법관계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함

4.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개념	법률요건	행정상 법률관계의 변동, 즉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또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법률사실의 종류	용태	사람의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 • 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적 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 발생 예 사법행위(매매 · 증여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와 공법행위(행정입법 ·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내부적 용태 :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정신상태 예 선의 · 악의, 고의 · 과실
	사건	사람의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사실 예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 연령에의 도달, 일정한 장소에의 거주 등

(2) 행정법상의 사건

시간의 경과	기간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기산점 · 만료점이 기본 구성요소
	시효	진실한 법률관계와 배치되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이 기간 내 권리불행사 권리소멸 예 행정소송법상의 소제기 기간 등
주소	개념	권리주체의 장소특정, 이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결정 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요건, 주민세의 납세요건 등
	공법상 주소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가 주소지, 주관주의(의사주의) · 형식주의 · 단수주의 취함
	공법상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 행정법규에 의하여 규율되기도 함

(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공법상 사무관리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민법의 규정 적용, 강제관리 · 보호관리 · 역무 제공 있음
공법상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재산상의 이해조정을 위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짐, 행정주체의 부당이득과 사인의 부당이득 있음

(4)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개념	행정법관계에서 국가 등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행위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행위	
종류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 국가 등이 행정주체가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 예 행정행위, 행정입법으로서의 명령, 확약, 행정계획 등 • 사인의 공법행위 :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로써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 예 투표행위, 각종의 신청, 청구, 동의 · 승낙 · 협의 등
	단독행위와 쌍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행위 :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 행정행위 • 쌍방행위 : 쌍방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예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02 행정작용법

1. 행정입법

(1) 의의

① 개념 : 행정기관이 일반적 ·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일반적 의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
추상적 의미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반복하여 적용

② 종류

협의의 행정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 : 법규성 있는 법규명령 + 법규성 없는 행정규칙(행정명령) 법규의 의미 : 일반적으로 법규범 중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광의의 행정입법	협의의 행정입법(법규명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조례 · 규칙)

(2) 법규명령

① 개념 :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 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성을 가지는 것

② 종류

효력 및 내용에 의한 분류	법률대위명령 (독립명령)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 경제명령
	법률종속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법형식에 의한 분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 : ~법 시행령 총리령 · 부령 : ~법 시행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법규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원규칙 : 감사원법 근거 법령보충규칙

(3) 행정규칙

개념	행정주체의 내부적 질서나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을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성질	법규성 부정(통설·판례)		
종류	내용에 의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규칙 • 근무규칙 • 재량준칙 • 규범해석(법령해석)규칙 • 규범구체화행정규칙 • 법률대위규칙 	
	형식에 의한 구분	광의의 훈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의 근무규칙(지시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 예규 :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 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고시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일정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

2. 행정행위

(1) 의의

- ① 개념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 학문상 용어, 최협의설(통설·판례)
- ② 개념정립의 실익
 - ㉠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등의 특질은 행정행위에만 인정
 - ㉡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

(2) 행정행위의 특성

- ① 법률적합성
- ② 공정성
- ③ 구성요건적 특수성
- ④ 존속성(확정성) : 불가쟁성(형식적 존속성), 불가변성(실질적 존속성)
- ⑤ 강제성 : 자력집행성, 행정제재성
- ⑥ 권리구제의 특수성 :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배상·손실보상),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

(3) 행정행위의 종류

-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의사표시의 의무에 의한 분류
- ②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근거법규의 구속정도에 의한 분류
- ③ 수익적 행정행위 · 침익적 행정행위 · 복효적 행정행위 :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 ④ 대인적 · 대물적 · 혼합적 행정행위 : 대상에 의한 분류
- ⑤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여부에 의한 분류
- ⑥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행위형식 여부에 의한 분류
- ⑦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기존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지의 여부
- ⑧ 수령(도달)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도달)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수령(도달)을 요하는지의 여부

(4) (협의의) 복효적 행정행위 : 제3자효 행정행위

개념	일개의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3자(타방)에게는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협의의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를 의미
특색	상대방과 제3자의 이해상반관계에 의한 이익형량,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 행정쟁송에서의 청구인 적격 확대화 및 참가인 적격 인정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① 개념

기속행위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 행위효과 측면의 문제
재량행위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속재량 :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재량 자유재량 : 무엇이 공익목적에 보다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재량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재량 : 일정한 행정행위를 발동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의 자유가 인정되는 재량 선택재량 : 복수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재량

- ② 구별실익 : 행정쟁송과의 관계, 공권성립과의 관계, 부관의 허용성 여부
- ③ 구별기준 : 법문언기준설(다수설 · 판례)
- ④ 재량하자에 대한 통제법리 : 재량하자는 위법, 행정소송의 대상

재량의 일탈	법규상 한계 · 외적한계 위반 예 법규상 6월 이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1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재량이 남용	내적 한계 위반 예 행정의 목적, 동기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경우
흠결	재량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는 행정조치가 없는 경우
해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

⑤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불확정 개념	행정법규의 구성요건부분이 “공익” 또는 “상당한 이유” 등 다의적이며 불명확한 용어로 기술된 경우, 행위요건 측면의 문제
판단여지	행정법규의 요건상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될 경우, 행정기관은 그 개념의 해석 · 적용 시 그 개념의 범주 내에서는 일정한 포섭의 자유가 인정되어, 그 자유의 한도 내에서는 사법심사를 제한하려는 이론

(6) 행정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	작위 · 부작위 · 급부 ·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행정행위	
		하명	작위 · 부작위 · 급부 ·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여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허가	부작위의무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
		면제	작위 · 급부 · 수인의무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
	형성적 행위	새로운 권리 · 법률상의 지위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권행위(광의의 특허) :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 능력설정행위, 포괄적 법률관계설정행위 • 변권행위 • 멸권행위
		제3자를 위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의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 보충행위 • 대리 : 제3자가 행할 행위를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행정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공적인 권위 하에서 판단 표시행위, 준사법행위 예 합격자 결정, 당선인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등	
	공증	행정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예 각종 공부에의 등기 · 등록, 각종 증명서의 발급행위 등	
	통지	행정청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특정한 사실 또는 의사를 알리는 행위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 계고, 대집행실행행위의 통지 등	
	수리	행정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예 각종 공부에의 등기 · 등록, 각종 증명서의 발급행위 등	

(7) 행정행위의 부관

개념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종류	조건	행정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의 성부(成否)에 매이게 하는 부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기한	행정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확정기한(시기와 중기)과 불확정기한
	부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철회권 유보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어 있는 특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정한 부관
	법률효과일부배제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
	부담유보	행정청이 사후적으로 부담을 설정·변경·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해 두는 경우의 부관
	사후부관	원칙적으로 부정, 예외적으로 긍정(법률의 근거, 상대방의 동의, 부담유보, 사정변경 있는 경우)

(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성립요건	내부적 성립요건(주체, 내용, 형식, 절차상 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표시)이 충족된 경우에는 행정행위는 존재, 불충족된 경우는 부존재	
효력요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 도달주의(도달시점 :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	
	특정인에 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 통지(고지) 예외 : 공고(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경우	공고, 14일 후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9) 행정행위의 효력

내용상 구속력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관계인 및 행정청을 구속하는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
공정력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변경하기 전까지 그 유효성을 추정해주는 법상의 힘으로서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처분청 이외의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며, 스스로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효력

존속력	불가쟁력 (형식적 존속력)	행정행위에 대하여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모두 가진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효력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일정한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성질상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는 효력
강제력	자력집행력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힘
	행정제재력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벌의 제재를 과할 수 있는 힘

(10) 행정행위의 하자

① 의의

㉠ 개념 :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말함

㉡ 하자의 유형 :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및 부존재

② 행정행위의 부존재 :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어서 행정행위로서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

③ 무효·취소

무효	행정행위로서의 외관은 존재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효과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
취소	행정행위가 성립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한 행위로 추정을 받아 쟁송 절차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통용되는 행정행위
구별기준	중대·명백설(다수설·판례)
구별실익	선결문제, 행정소송의 방식과 요건,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 하자의 승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신뢰보호·공무 집행방해죄의 여부, 공정력 기타 효력의 유무, 불가쟁력 등

④ 하자의 치유·전환

㉠ 원칙 - 부정, 예외 - 긍정

㉡ 하자의 치유 :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으나 사후에 그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만큼 경매해진 경우에, 그 성립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

㉢ 하자의 전환 : 본래 의도한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이나, 일정 요건 하에 흠 없는 다른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

⑤ 하자의 승계

㉠ 원칙 - 부정, 예외 - 긍정

㉡ 동일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을 발생한 선행행위가 지는 흠을 이유로 흠 없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

(11) 행정행위의 철회 :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12) 행정행위의 실효 :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3. 그 밖의 주요한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상 확약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를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성 판례부정	
다단계 행정작용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최종적인 행정행위가 있기 전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에 대해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 행정행위, 행정행위성 긍정
	예비결정(사전결정)	중국적인 행정결정이 행해지기 전에 사전적인 단계로서 여러 요건 중 하나 또는 일부요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내린 결정, 행정행위성 긍정
	부분허가(부분승인)	단계적 행정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허가, 행정행위성 긍정
행정계획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계획행정과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으로서의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	
공법상 합동행위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의 동일방향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되는 공법 행위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행하는 행정작용	
비공식(비정식) 행정작용	위의 요건·효과·절차 등이 법에 의해 정해지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 일체의 행정작용	
행정의 자동화작용	행정과정에 컴퓨터 등 전자데이터 처리장치를 투입하여 행정업무를 자동화하여 수행하는 것	

03

행정과정의 규율

행정절차	의의	행정의사의 결정에 관한 대외적 사전절차를 의미
	일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처분, 제3장 신고,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5장 행정예고,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제8장 부칙
정보공개	의의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정책결정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
	일반법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부칙
개인정보보호	의의	국가가 개인정보를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호하는 것.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하고, 외부로 표현함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짐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부칙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강제

(1) 행정상 강제집행

의의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수단	행정대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작용 • 근거 : 일반법, 행정대집행법 • 요건 :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 절차 : 계고, 대집행명장에 의한 통지, 실행행위, 비용징수
	이행강제금 (집행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져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 • 근거 : 개별법
	직접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근거 : 개별법
	행정상 강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국민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행정법상의 금전급부义务的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 근거 : 일반법, 국제징수법

(2) 행정상 즉시강제

의의	목적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예 광견의 배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예 감염병환자의 입원명령) 즉시 국민이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법적 근거	일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종류	대인적·대물적·대가택적 즉시강제

(3) 행정조사

의의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
법적 근거	일반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제3장 조사방법, 제4장 조사실시,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제6장 보칙·부칙

2. 행정벌

의의	개념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정목적상의 명령·금지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부과하는 처벌
	종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형벌	의의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벌, 형법상의 형벌 부과
	법적 근거	일반법 없음, 단행법에서 개별규정, 결여 시 형법총칙·형사소송법 적용
	과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부과 • 예외 : 통고처분, 즉결심판
행정질서벌	의의	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행정을 간접 침해)이 있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반법), 각 개별법에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5장 보칙·부칙

3. 새로운 형태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의의	개념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전통적인 이들 수단만으로는 오늘날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
	성질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강제, 행정벌)에 대하여 새로운 성질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종류	금전상의 제재,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의 공표 등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금전상의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조세채권에 대한 일종의 연체금 •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납부불성실행위 또는 신고불성실행위 •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행정청이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 행정행위 • 부과금 :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 • 부당이득세 :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자에게 그 초과이익을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
	공급거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허가나 인가 등을 거부하거나 이미 부여한 허가 등을 취소 또는 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
	명단의 공표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명예를 위협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05 행정구제편

1. 행정구제 제도

의의	개념	행정청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익의 침해당한 자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자가 행정청이나 법원에 대하여 그 행정작용의 시정이나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절차를 총칭함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청함
	사후구제 원칙, 사전구제 중요성 증대	사후적 구제가 원칙적인 형식이지만, 최근에는 사전구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됨
종류	사전구제 제도	청원, ombudsman제도, 정당방위 등
	사후구제 제도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2.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보전)

(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	
법적 근거	일반법, 국가배상법	
종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행위 : 작위, 부작위 포함 • 직무행위 : 권력·비권력작용(사경제 작용 제외), 입법·행정·사법, 부작위 포함 • 직무를 집행하면서 : 외형설(통설·판례) • 고의·과실 : 추상적 과실(통설·판례) • 법령위반 : 위법, 불법 • 타인에게 손해발생 : 재산상·비재산상 모든 손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배상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등 : 학문상 공물을 의미, 일반재산(집중재산) 제외 •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흠) : 객관설,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 결여(통설·판례) •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 면책사유가 없을 것(판례) : 불가항력이 아닐 것
배상책임의 주체	헌법	국가, 공공단체
	국가배상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과 불복절차	다수설	공권, 행정소송
	판례	사권, 민사소송

(2) 행정상 손실보상(공용침해)

의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가해진 개인의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	
근거	이론상 근거	특별희생설
	실정법적 근거	개별법
요건	공공의 필요	비례의 원칙(공익과 사익의 형량)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침해	위법한 침해는 국가배상청구권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희생보상청구권
	의도적인 재산권 침해	비의도적 · 비전형적 침해는 수용적 침해이론
	특별한 희생 발생	사회적 제약 해당 보상 불요, 특별한 희생 해당 보상 필요
	보상규정의 존재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는 수용 – 유사침해이론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및 불복절차	다수설	공권, 행정소송
	판례	사권, 민사소송

(3)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침해	위법한 공용침해의 경우,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권적 침해이기는 하지만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한 경우에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수용적 침해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형적 · 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

(4) 희생보상청구권,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희생보상청구권	국민의 생명 · 신체 · 명예 등과 같은 비재산적 가치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위법한 공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 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3. 행정쟁송

(1) 의의

개념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기관이 심리 · 판정하는 절차
기능	국민의 권리구제, 행정의 자기통제

(2) 행정심판

의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행정심판 사항의 개괄주의(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부작위)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방식 : 서면주의 • 청구서의 제출 :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선택주의(처분청 경유주의 폐지) • 청구의 변경 :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 내 인정 • 청구효과 : 심리·재결의무, 집행부정지의 원칙, 가구제(집행정지결정)
심리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대심구조의 원칙,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원칙, 직권심리주의, 비공개 원칙 등
재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 각하재결, 인용재결, 기각재결, 사정재결 • 효력 : 형성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기속력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시 불복가능성, 필요절차를 알려주는 제도 • 직권에 의한 고지, 신청에 의한 고지 •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3) 행정소송

의의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4) 항고소송

① 의의

개념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소송물	행정행위의 위법성 그 자체(행정행위의 위법성 일반)
종류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② 취소소송

㉠ 개념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소송요건

- 대상적격 : 처분 등의 존재
- 관할법원 : 행정법원

삼심제	제1심 원심인 행정법원, 제2심 항소심인 고등법원, 제3심 상고심인 대법원
토지관할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당사자와 참가인

당사자	당사자능력	소송상 당사자(원고 · 피고 ·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자격)
	당사자자격	개별 · 구체적인 사건에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격) • 원고자격 :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피고자격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참가인	개념	타인 간의 소송 계속 중에 소송 외의 제3자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소송절차에 가입하는 자
	종류	제3자의 소송참가와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의 전치

원칙	임의적 전치주의
예외	필수적 전치주의

- 권리의 보호필요 : 협의의 소의 이익
- 소제기의 효과

주관적 효과	심리의무, 중복제소 금지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

- ㉠ 보안요건 : 수소법원의 보안판단 대상, 처분의 위법성 여부, 청구이유의 유무
- ㉡ 소의 변경 : 소의 종류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 가구제 : 집행정지제도
- ㉣ 심리의 원칙 : 처분권주의, 구두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보충, 공개주의, 기타(직권주의, 자유심증주의, 직접심리주의)
- ㉤ 판결 : 간판결 · 종국판결, 송판결(각하판결) · 본안판결(인용판결 · 기각판결 · 사정판결), 부분결 · 일부판결, 성판결 · 확인판결 · 이행판결

③ 무효등확인소송

의의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종류	무효등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적용법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의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적용법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

(5) 당사자소송

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공권과 공의무)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
행정소송법 규정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6) 민중소송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현행법상 민중소송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국민투표법상의 국민투표무효소송,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소송,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 등

(7) 기관소송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현행법상 기관소송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분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과 지방의회 간의 분쟁

기초의
답이다

Power — 사회

출제 포인트를 짚 잡아주는
마무리 사회

01 법과 정치

1. 민주정치와 법

(1) 민주정치의 이념과 유형

① 민주주의 어원과 아테네의 민주정치

구분		내용
민주주의의 어원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 민중)와 크라토스(kratos, 권력 또는 지배)란 말의 합성어인 demokratia(민중의 지배)에서 유래
아테네의 민주정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민주주의 :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 제한적 민주주의 :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정치 참여에서 배제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회 : 모든 시민(성인 남자)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 평의회 : 최고행정기관(집행기관) 재판소 :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배심원단 행정관 : 평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일상적인 행정업무 처리
	도편추방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투표하여 10년 동안 해외로 추방

→ 도편추방제의 추방자 결정방식은 이른 봄 민회에서 시행의 가부를 거수로 결정하고, 아고라에서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도편에 기입하는 비밀투표를 하였다. 민주적 대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는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2) 민주주의의 유형

구분	내용		
직접 민주주의	모든 국민이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형태		
간접 민주주의	국민의 대표를 뽑고 대표들이 모여 정치를 하는 형태		
혼합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혼합 직접 민주주의 구현 방법 		
	구분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시행여부
	국민투표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헌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헌법) 주민투표제 시행(법률)
	국민발안제	대표자로서 의원들의 고유영역인 법안을 발의하는 기능을 국민도 할 수 있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시행 주민발안제 시행(법률)
	국민소환제	일정 비율의 찬성이 있으면 국민의 의사로 대표자를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시행 주민소환제 시행(법률)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투표제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민주정치의 발전과정

① 사회계약설

구분	홉스	로크	루소
인간의 본성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 (성악설)	환경과 선택에 따라 결정 (성무 선택설)	선한 성품을 가진 존재 (성선설)
자연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극단적 투쟁은 없으나 갈등 상존	자유와 평등 존재
사회계약의 형태	전부 양도, 포기설	부분(일부) 양도설	양도 불가설
주권이론	군주 주권론	국민주권론(대의제)	국민주권론(직접 민주주의)
국가형태	절대 군주국(전제 군주정치)	입헌 군주국(대의 민주정치)	민주 공화국(직접 민주정치)
저항권	인정하지 않음	인정	언급 없음

→ 루소의 일반의지 : 루소 사회계약설의 기본 이념으로 특수한 이해에 입각한 개개인의 의지인 특수의지의 총합과는 구별된다. 일반의지는 공익의 핵심적 가치로 이기심을 버리고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를 말한다.

② 법치주의

구분	내용
형식적 법치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주의의 속성 중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법의 형식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경우로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가 도출됨 • 통치의 정당성을 무시하여 합법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함
실질적 법치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논리가 도출됨 •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

→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표현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로 표현한다.

2.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1) 정부형태와 정치 제도

① 대통령제

구분	내용
정부구성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
지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각료(장관)는 겸직이 불가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보유하며 의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동의나 거부할 수 있으며 탄핵 소추권을 보유 • 사법부는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통해 3권이 견제 및 균형을 유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임기 동안 정국 안정되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 • 의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보유한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더라도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견제가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해 질 경우 독재화의 위험을 내포 •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 시 해결이 곤란하여 정국이 불안 •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함
----	--

→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임을 나타내며 국가 원수로써의 지위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임을 나타낸다.

②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구분	내용
정부구성	국민의 선거를 통해 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행정부)을 구성
지위	수상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지만 국가 원수의 지위는 보유하지 않음. 왕 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통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로 존재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보유하며 수상과 각료는 의원 겸직이 가능 •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으며 반대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보유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 • 내각과 의회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당이 없을 경우는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하게 되므로 정당 간 이해관계 충돌 • 군소 정당의 난립 시 정국이 불안 •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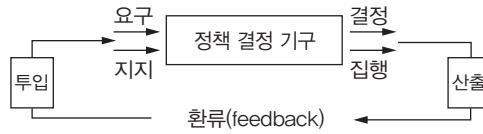
→ 연립내각 :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한 정당의 힘만으로 정권을 담당하기가 어려울 때 정치적 성격이 가까운 정당 간의 제휴에 의하여 의회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정권을 맡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구분	내용
특징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
대통령제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 • 최고 통치권자로서 국가긴급권과 헌법개정안 발의권, 국민투표 회부권, 법률안 거부권 보유
의원내각제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제를 두고 있고,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인 점,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점 • 국회는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점

→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④ 정책결정 과정(David Easton의 모형)



구분	내용
투입	정당이나 이익 집단, 시민단체 등의 여론 형성, 입법 청원, 해결책 요구 등
정책결정기구	국회, 정부의 법령 및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
산출	정책결정기구가 만들어낸 법령 및 제도의 결과, 또는 이를 집행하여 산출한 결과물
환류	산출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차기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활동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책결정 과정 중 특히 투입활동이 활발히 나타나지만, 독재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으므로 투입이 제한된다.

(2)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성

① 선거구제의 유형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 선출 다수대표제와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자 선출 소수대표제와 결합

→ 소선거구는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최다득표자 1인이 선출되는 다수대표제와 결합되고,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자가 선출되므로 소수만 득표해도 당선 가능한 소수대표제와 결합된다.

② 대표결정 방식

구분	내용
다수대표제	최다득표자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로 절대 다수대표제와 상대(단순) 다수대표제로 구분
소수대표제	최다득표자 한 명만이 아니라 소수의 지지를 받은 소수득표자에게도 일정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당선 이 가능한 형태
비례대표제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대표자를 배분하며 단기 이양식과 정당명부식(우리나라)으로 구분

→ 직능대표제란 직업별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민의에 반영시키는 형태로 이해관계의 대립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3. 우리나라의 헌법

(1) 기본권

구분	세부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평화적 생존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평등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부인, 영전일대의 원칙, 근로영역에서의 여성의 차별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 평등, 교육의 기회 균등, 평등선거, 경제 질서에 있어서의 균형성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 * 소극적 권리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엑세스권 해석상 인정됨),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신체적 자유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 경제적 자유 : 재산권, 직업의 자유
사회적 기본권(생존권) * 적극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사회보장권 :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기타 : 교육의 권리와 의무, 근로의 권리와 의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보건권, 환경권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선거권
		국민투표권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 * 수단적 권리	공무담임권 : 피선거권, 공직취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권 : 국회에 대한 청원,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 • 재판청구권 : 법관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 신속한 재판, 공개재판, 공정한 재판,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 국가배상청구권 :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헌법규정),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국가배상법 규정) • 형사보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 	

→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소극적 성격의 권리이며, 사회권은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통해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또한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수단이 되므로 수단적 권리라 표현한다.

(2)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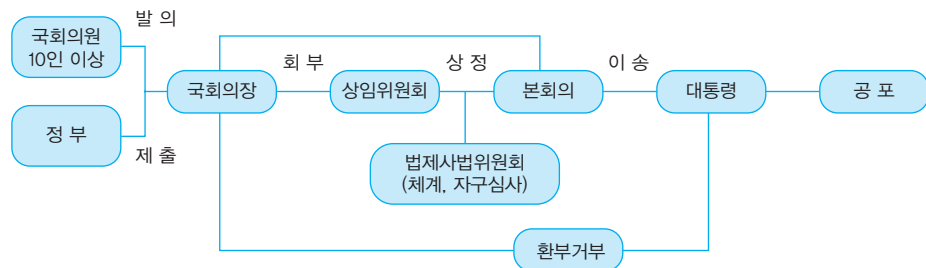
①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운영

구분	세부 내용								
국정 통제 기관	탄핵 소추권 :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의하여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을 의회가 소추하는 제도로 탄핵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임								
임명동의 및 선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대통령 선출권 국무총리, 대법원장, 탄핵판,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국회의 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됨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국회의 의사원칙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일사부재의 원칙</td><td>회기 중에 의결한 문제에 대해서 동일 회기에 다시 의안을 제출할 수 없음</td></tr> <tr> <td>의사공개 원칙</td><td>의사의 진행을 공개하여 국민의 비판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알 권리를 보장</td></tr> <tr> <td>회기계속의 원칙</td><td>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나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td></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일사부재의 원칙	회기 중에 의결한 문제에 대해서 동일 회기에 다시 의안을 제출할 수 없음	의사공개 원칙	의사의 진행을 공개하여 국민의 비판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알 권리를 보장	회기계속의 원칙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나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구분	내용								
일사부재의 원칙	회기 중에 의결한 문제에 대해서 동일 회기에 다시 의안을 제출할 수 없음								
의사공개 원칙	의사의 진행을 공개하여 국민의 비판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알 권리를 보장								
회기계속의 원칙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나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 국정감사권 : 정기회 회기 중의 법정 기간 동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 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국정조사권 : 특별한 사안이나 혹은 특정 문제가 이슈가 될 경우 국회 의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② 국회의 입법절차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공포 :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재의결에 의해 법률로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국민참여재판(2008.1.1부터 시행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구분	내용
용어의 정의	배심원이란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 함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뇌물, 특수강도강간, 살인사건 등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
배심원의 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은 9인, 그 외에는 7인, 이러한 인원이 결격될 경우를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둠
강제성 여부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음
활동 과정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관한 평의·평결 진행
배심원 자격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평결의 기속 여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그림자 배심원 제도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관한 평의·평결을 한다는 점에서 무작위 추천되는 주배심원단과 같은 역할을 하나 이들의 평결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결과정도 판사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주배심원단과 다름

→ 배심원은 사실 인정은 물론 법령 적용뿐만 아니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

구분

내용

위헌법률심판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위헌여부를 결정

- 결정유형

구분	내용
각하결정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합헌결정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위헌의견이 6인을 넘지 못하는 경우
위헌결정	헌법재판소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경우
헌법 불합치 결정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기까지만 효력이 있고 이후에 새로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라는 입법촉구결정을 함께 함

- 위헌결정의 효력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함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 구제받는 제도
-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구분	내용	특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	전형적인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기각된 경우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과 밀접

-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요건 :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하고(직접성),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하며(현재성), 다른 법률에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가능(보충성)
-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

기타 권한

탄핵심판, 위헌정당 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중독심리에 관련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개인 생활과 법

(1) 민법의 기본원리

① 민법의 원리

근대민법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자유 원칙	과실 책임 원칙
개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하는 것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폐단	경제적 약자에 대한 유산계급의 지배와 횡포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약자에게 일방적 강요	기술과 자본을 통해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회피
수정 (현대민법의 원리)	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 환경오염, 제3물 결합에 따른 피해발생의 경우 피해자가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하여 무과실 책임 원칙을 실현한다.

②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구분	내용
권리능력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 완전한 권리 능력을 보유하나 태아는 법에서 특별 규율
태아의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아를 자연인(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 상속, 유류분권, 유증과 같은 예외적 사항에 한정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
인간이 되는 시점	완전 노출설에 따라 모체에서 태아가 완전히 분리된 시점
권리능력의 소멸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 소멸 심폐기능정지설에 따라 호흡과 심장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가 사망시점이 됨

→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며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한다.

(2) 계약과 불법행위

① 물권과 채권의 구별

구분	물권		채권	
개념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징	절대권	모든 사람에 대해 권리 주장 가능	상대권	채무자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 가능
	강행규정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대부분 법으로 규제	임의규정	당사자가 자유로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사적자치 강조

→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 위에 물권이 성립하면 그와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② 불법행위(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구분	내용
손해배상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그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함 • 전보란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하여 금전 또는 기타 물질적 가치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 •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대표적
불법행위의 개념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징벌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③ 특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구분	내용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사용하여 일정한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고용주)는 피용자(종업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 배상책임 발생 •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고용관계 또는 사무 감독 관계와 같은 수직적 관계가 존재해야 함
공작물 또는 동물 등 점유자·소유자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 했을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 •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
공동 불법행위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의 공동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 • 여러 사람의 행위가 있었는데 어디에서 손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연대하여 배상

→ 미성년자가 책임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책임능력), 미성년자 본인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미성년자가 책임을 식별할 능력이 없다면(책임무능력), 미성년자 본인은 책임이 없고 감독자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상속

① 상속의 의의

구분	주요 내용
범위	동산, 부동산은 물론 채권과 지적재산권 등 모든 재산을 포함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 배우자는 전순위(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하되, 전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이들과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5할을 가산한다.

② 기타 상속의 쟁점

구분	주요 내용	
사망에 대한 쟁점	구분	내용
	사건	본인(부)과 자가 탑승한 비행기 사고
	본인이 자보다 먼저 사망	직계비속(자), 배우자(처)가 상속인이 되나 자의 사망으로 처가 자의 유산을 상속하여 결과적으로 처는 단독으로 상속
	자가 먼저 사망	직계비속이 없게 되므로 직계존속인 모와 배우자인 처가 공동 상속하되 처에게는 5할 가산
	동시사망	동시사망의 경우 사망자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직계존속인 모와 처가 공동 상속하되 처에게는 5할 가산

→ 유류분권 :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중 보장받을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보장된다.

(4) 주택임대차 보호법

구분	주요 내용	
의의	세입자의 주거와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고, 과도한 집세 인상 등에서 세입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	
특징	대항력인정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 발생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 계약한 것으로 보아 최소 2년 이상 거주 가능
	갱신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종전에 계약한 기간까지 자동으로 연장
	보증금 우선면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무 계약에 해당한다.

→ 주택이 경매로 낙찰될 경우 1순위는 소액임차보증금이며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의 경우 설정 날짜에 따라 우선권이 있다.

5. 사회생활과 법

(1) 범죄와 형벌

① 죄형법정주의

구분	내용
법인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의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국가 형벌권의 확장을 막고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다.

②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구현원리)

구분	내용	쟁점
관습형법금지 원칙 (성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관이 적용할 형벌에 관한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임을 의미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포 	위임입법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임입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위임하는 법률에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히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사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며 포괄위임입법은 금지
명확성의 원칙	법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형법에 의해 금지하는 행위와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나 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형의 장기와 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되며 장기와 단기를 정해 놓은 상대적 부정기형은 가능
유추해석 금지 원칙	형벌과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사항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석자인 수사기관, 재판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
형벌 불소급의 원칙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
적정성의 원칙	범죄행위와 형벌 간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	—

→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의 사례이다.

③ 위법성 조각사유

구분	내용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며 예로서 개가 달려들어 인근 상점의 창문을 부수고 피한 경우, 옆 차선의 차량이 충돌하려 하자 피하려다 다른 차를 추돌한 경우 등을 말함
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력에 의한 권리구제 행위
정당행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사형집행, 구속 등), 징계행위(학교장의 처벌, 친권자의 징계 등), 일반인의 현행 범인 체포,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 의무의 충돌 : 여러 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긴급 상태에서 그중 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로 정당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행정구제 제도

①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

구분	행정상의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실보상
특징	위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함	적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함
책임 발생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	공공의 필요에 의한 사유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

→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며 행정상의 손해배상은 재산상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 또한 구제 범위에 포함된다.

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정기관	행정기관	법원
심리방법(절차)	서면심리, 구두(말)변론 병행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주의
적용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의 대상은 위법행위는 물론 부당행위도 포함되나 행정소송은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6. 국제정치와 법

(1)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구분	현실주의	이상주의
전제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	국제기구(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 기구 등)와 같은 제도를 통해 세계평화 이룩 가능
특징	진정한 평화란 실현 불가능하므로 세력 균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교류를 통해 협력 달성 가능

→ 현실주의는 국제사회를 개별 국가들 간의 권력투쟁 관계로 보고 있으나 이상주의는 집단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태로 보고 있다.

(2) 국제법의 법원

구분		내용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 (자국이 체결한 조약)		조약, 협약, 협정, 규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 간 문서에 의한 합의를 의미하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일어업협정 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 관습법	포로의 살해금지와 그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시국제법상의 기본원칙, 외교관의 대우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 조약준수의 원칙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	유엔헌장의 일부, 집단학살(Genocide)의 금지협정,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 국제인권 규약

→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02 사회·문화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1) 기능론과 갈등론

구분	기능론	갈등론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전체의 유지·존속·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봄 • 역할과 기능 및 방식들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바탕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대립하거나 불일치·갈등적 관계를 상정 • 역할과 기능 및 방식들은 기득권의 강제와 억압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간주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과 통합 • 안정과 지속성 • 사회구성원들의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과 강제 및 변동의 속성 • 긴장과 변화 가능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 유지적 균형의 측면 • 보수주의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불평등 현상에 초점 • 진보주의적 관점

→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관점이고,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전체적인 구조에 입각한 거시적 관점이다.

(2) 방법론적 일원론과 이원론

구분	방법론적 일원론	방법론적 이원론
주장자	콩트(Comte, A)	베버(Weber, M)
의미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자연 현상의 탐구가 비슷하다고 보는 관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자연 현상의 탐구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관점
전제	사회·문화 현상에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과법칙이 존재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측정이나 실험과 같은 실증적 방법을 통하여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일어나고, 인간의 행위에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탐구해야 함
연구목적	인과관계 및 일반적 법칙 발견	인간 행동의 동기 및 의미 파악
특징	사회 현상은 연구자와 독립된 객체에 있기 때문에 분리 가능	사회 현상에는 연구자 자신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연구자의 가치와 관점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불가능
연구방법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발전	해석적 연구방법으로 발전

→ 실증적 연구는 양적 연구라고도 하며,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해석적 연구는 질적 연구라고도 하며, 주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현상을 대상으로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2. 개인과 사회 구조

(1) 개인과 사회

구분	사회명목론	사회실재론
내용	개인만이 참다운 실재이고 사회는 한낱 개인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함	실재로 존재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사회뿐이고 개인은 단지 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함
관점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개인주의적 사회관)	사회적 우월성을 강조(전체주의적 사회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이외에 전체사회의 존재나 구조적 특성은 인정하지 않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사상적 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보다 사회가 더 근원적인 실재자• 전체는 개인들의 모임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특성과 구속력을 가짐

→ 사회계약설은 사회명목론의 입장이며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실재론에 입각해 있다.

(2)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① 토니슨의 분류

구분	공동사회	이익사회
결합의지	본질의지에 의한 결합	선택의지에 의한 결합
집단의 형성	구성원의 상호이해와 공동의 신념 및 관습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과 규칙에 따라 인위적으로 결합
집단의 목적	결합을 통한 집단의 존속 차제를 목적으로 함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
인간관계	애정적, 인격적, 감정적, 영속적, 포괄적, 비공식적 관계	형식적, 계약적, 합리적, 공식적, 일시적, 현실적, 비인격적 관계
가입·탈퇴의 자유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없음	자유 의사에 따라 가입과 탈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가족, 친족, 촌락공동체는 공동사회의 사례이며 회사, 정당, 조합, 협회 등은 이익사회의 사례이다.

② 쿨리의 분류

구분	1차 집단	2차 집단
형성과정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특정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
친밀성 정도	친밀한 대면적 관계	친밀감이 적은 형식적 관계
목적	관계형성 그 자체가 목적	관계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구성원과의 관계	포괄적	부분적
사회적 특성	인격적, 비형식적, 자연적, 지속적	비인격적, 형식적, 공리적, 목표지향적, 비지속적
규모	소규모	대규모
사례	가족, 유흥집단, 또래집단, 촌락	학교, 회사, 노동조합, 군대 등

→ 1차 집단은 원초집단이라고도 하며 도덕, 관습 등 주로 비공식적 통제를 활용한다. 이와 비교하여 2차 집단은 법, 규칙과 같은 공식적 통제를 활용한다.

③ 섬너의 분류

구분	내용
내집단	공동체意識이 강한 우리 집단을 말하며, 자신을 인정받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배움
외집단	소속감이 없고 이질감을 느끼거나 대립관계에 있는 타인집단을 말하며, 집단의 성격을 비교하는 대상이 됨

→ 준거집단이란 개인이 닮고자 하는 혹은 기준을 제공해 주는 집단을 말하며 내집단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 일탈이론

구분	내용				
아노미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르켐의 이론 : 자신의 저서 『자살론』에서 '규범이 없다'는 의미로 아노미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의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할 때인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이 나타난다고 주장 • 머튼의 이론 : 뒤르켐의 아노미이론을 발전시켜 한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에 괴리(간격)가 발생할 때 아노미가 일어난다고 하였음 				
상호작용이론 (차별교제이론)	서덜랜드(Sutherland)의 이론으로, 일탈행위는 차별교제의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는 이론				
낙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한 사람 또는 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일탈'이라는 낙인 혹은 딱지가 붙으면, 그는 곧 '일탈자'가 된다고 주장 • 레머트(E. Lemert)는 일탈행위를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일차적 일탈</th><th>이차적 일탈</th></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을 어긴 최초의 행위이나 발견되지 않아 낙인이 찍히지 않은 행위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것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도 자신을 일탈자라고 생각하지 않음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낙인이 찍힌 후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생기는 행위 • 일차적 일탈이 다른 사람들인 친구나, 부모, 고용주, 선생님, 경찰관 등에 의해 공개되면 일탈자라는 낙인이 찍힘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됨 • 그 결과 자기 자신이 일탈자라는 자아상 및 정체감을 갖게 되어 계속된 일탈을 저지름 </td></tr> </tbody> </table>	일차적 일탈	이차적 일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을 어긴 최초의 행위이나 발견되지 않아 낙인이 찍히지 않은 행위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것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도 자신을 일탈자라고 생각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낙인이 찍힌 후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생기는 행위 • 일차적 일탈이 다른 사람들인 친구나, 부모, 고용주, 선생님, 경찰관 등에 의해 공개되면 일탈자라는 낙인이 찍힘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됨 • 그 결과 자기 자신이 일탈자라는 자아상 및 정체감을 갖게 되어 계속된 일탈을 저지름
일차적 일탈	이차적 일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을 어긴 최초의 행위이나 발견되지 않아 낙인이 찍히지 않은 행위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것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도 자신을 일탈자라고 생각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낙인이 찍힌 후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생기는 행위 • 일차적 일탈이 다른 사람들인 친구나, 부모, 고용주, 선생님, 경찰관 등에 의해 공개되면 일탈자라는 낙인이 찍힘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됨 • 그 결과 자기 자신이 일탈자라는 자아상 및 정체감을 갖게 되어 계속된 일탈을 저지름 				

→ 머튼은 아노미에 대한 개인적 적응방식으로 동조형, 개혁형, 의례형, 패배형, 반역형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 비행소년집단에 들어간 소년이 비행을 학습하고 다른 성원들과 같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혹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장부를 위조하는 방법을 배워서 탈세를 하는 중산층의 범죄행위 등은 차별교제이론의 사례이다.

3. 문화와 사회

(1) 문화변동의 원인

구분	내용
발명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요소를 만들어 내는 것
발견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거나 알아낸 경우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사회의 문화요소들이 다른 사회로 전해져서 그 사회의 문화과정에 통합되어 정착되는 현상 • 직접 전파 : 두 문화 체계간의 이민, 식민, 전쟁, 교역, 선교활동 등을 통한 전파 • 간접 전파 : 매개체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 · 사상의 전파 • 자극 전파 :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자극(아이디어)을 받아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예로써 기성 종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창안한 신흥 종교가 있음

→ 발명과 발견은 문화의 내재적 변동에 해당하며 전파는 외재적 변동에 해당한다.

(2) 문화접변

구분	내용
개념	허스코비츠(M. J. Herskovits)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본래 문화유형에 변화를 가져올 때 일어나는 제 현상을 문화접변이라 정의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수용 : 두 개의 이질적인 문화가 접촉을 하면서도 각각 자체 문화의 가치관과 특성을 그대로 유지 • 문화동화 : 여러 가지 독특한 하위문화를 가진 집단이 그 사회의 지배문화로 통합 • 문화변형(문화융합) : 두 개의 이질적인 문화가 오랜 기간 접촉하는 동안 각각 본래의 문화유형을 잃어가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

→ 강제적 문화접변은 무력에 의한 정복이나 식민통치 등을 통해 강제적인 외부적 힘으로 문화접변이 일어나는 경우, 자발적 문화접변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수용한 경우다.

(3) 문화지체

구분	내용
의의	문화가 변동할 때 문화 내용의 제 측면이 골고루 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는 현상을 문화지체라고 함
실증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그번(W. F. Ogburn)은 한 사회에서 기술발달이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가치관과 같은 정신적인 발달이 동반되지 않을 때 문화의 부조화 현상이 생긴다고 주장함 • 문화지체란 정신문화가 기술발달에 따른 물질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귀결됨

→ 문화지체와 비교하여 기술지체란 정신적 측면의 발달에 비해 기술적 측면의 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에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과 같은 관념 문화가 유입되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졌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해서 겪는 갈등과 좌절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4. 사회계층과 불평등

(1) 계층과 계급의 구분

구분	계급	계층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실제적 · 객관적 지위가 경제적이라는 단일지표에 의하여 분류된 사회불평등 구조 • 비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층으로 주관적 · 심리적 서열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선상에 있는 지위의 서열로서 다원적 지표에 의하여 분류되는 불평등 구조 • 비교적 고정적 · 위계적 개념
이론	마르크스의 일원적 계급 이론	베버의 다원적 계층 이론
특징	계급 간의 지배와 피지배, 갈등화 대립이 불가피함을 전제, 계급의식 강조, 소속감 강함, 사회적 이동 제한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화하여 이해하려는 분석적 의미로, 계층들은 수직적으로 하나의 연속선상에 배열되고 사회적 이동이 자유로움

→ 계급은 경제적 요인(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 자본가(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프롤레타리아) 계급 대립집단의 개념이며 계층은 다양한 요인(경제적 계급,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력 등)에 의해 서열화된 위치가 비슷한 집단으로 상류층 · 중류층 · 하류층으로 표현한다.

(2)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한 관점

구분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전제	계층화는 필수불가결한 보편적 현상임	계층화는 보편적일지 몰라도 필수불가결하지는 않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화는 사회기능의 수행을 위한 최선의 장치임 • 계층화는 구성원의 합의된 가치의 반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화는 개인 · 집단의 최선의 기능수행에 장애요인(기득권 유지 장치) • 계층화는 지배집단의 가치의 반영임

→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희소가치는 합법적 방법과 절차에 의해 분배된다. 반면 갈등론에 따르면 사회적 희소가치는 권력과 환경 등에 의해 차등 분배된다.

5. 현대 사회와 사회변동

(1) 종속이론

구분	내용
대두 배경	1960년대에 들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학자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 문제를 다루면서 제시한 이론
주요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는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저발전의 원인을 세계 체제의 주변부적 위치에서 찾음 • 주변부는 저발전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부는 중심부의 착취에 의해 성장할 수 없음을 제시

→ 종속이론에 따르면 중심에는 고도의 공업선진국, 즉 소수의 산업국가가 세계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중심을 형성하고, 전 세계의 다양화된 기술을 근간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며, 주변부를 상대로 유리한 무역을 전개한다.

03 경제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1) 민간경제의 순환 모형

구분	내용
의의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순환하는 관계를 갖고 있음
순환 모형	<p> —————> 실물의 흐름 - - - - -> 화폐의 흐름 </p>
시장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물 시장 : 생산물인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 • 생산 요소 시장 :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

→ 화폐의 흐름(금융 경제) : 돈을 주고받는 형태의 흐름을 나타내며, 가계의 소비, 기업의 판매 수입, 생산 요소에 대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지급이 해당된다.

→ 실물의 흐름 :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형태의 흐름을 나타내며, 노동, 토지, 자본의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흐름을 의미한다.

(2) 생산가능곡선

구분	내용
의의	희소성에 따른 선택의 문제는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에서도 발생하며 생산가능곡선으로 설명
생산가능곡선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가능곡선은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량을 나타냄 • 생산가능곡선상의 점(A, B, C)의 모든 점들은 X재와 Y재의 생산수량이 다를 뿐 모두 효율적인 생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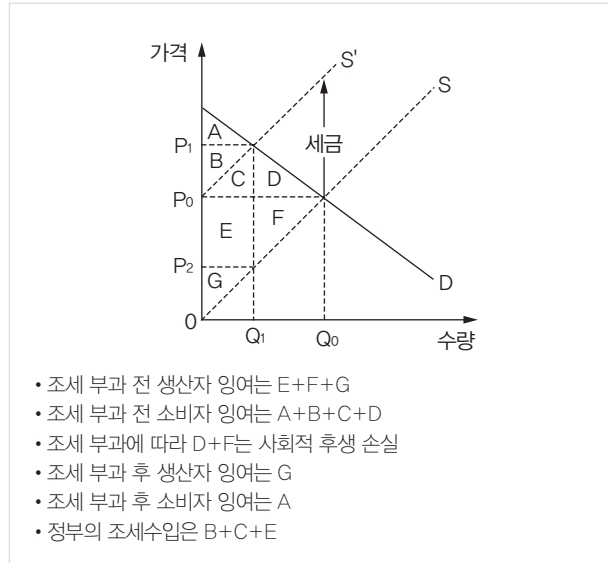
→ 생산가능곡선의 내부에 위치한 D는 현재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비효율적인 생산이며, 외부에 위치한 E는 현재의 기술과 자원으로 달성 불가능한 점이다.

2.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1)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	직접세	간접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소득의 원천(수입)에 부과 조세 전가성이 없음 행정의 편리성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와 담세자의 불일치 소득의 지출(소비)에 부과 조세 전가성이 있음 행정의 편리성이 큼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진세 적용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 있음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 과세 가능 세원이 확실하고 신축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 저항이 적음 징수가 간편 소비 억제로 저축 효과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 저항이 나타남 과세 기술이 복잡함 가계, 기업에 세금 압박을 주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례세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불리 물가 상승의 자극 세원의 불확실성과 비신축성
종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2) 조세 부과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 조세는 징수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세율 기준에 따라 누진세와 비례세로,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3. 시장과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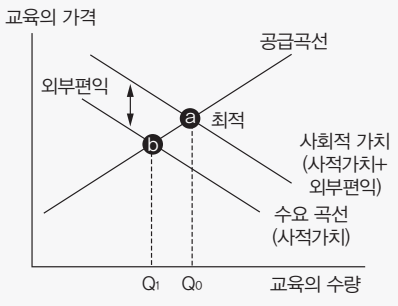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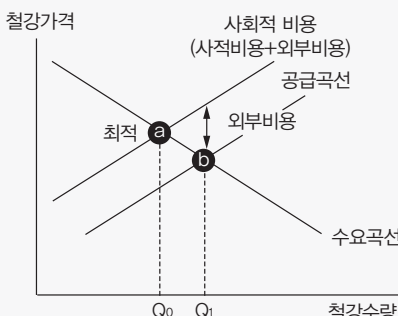
(1) 탄력성과 총판매 수입

탄력성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	가격인상 시	가격인하 시
탄력적($e > 1$)	가격 변동률 < 수요량의 변동률	총판매 수입 감소	총판매 수입 증가
비탄력적($e < 1$)	가격 변동률 > 수요량의 변동률	총판매 수입 증가	총판매 수입 감소

→ 탄력성 계산 공식 : 수요량(공급량)의 변동률(%) ÷ 가격의 변동률(%)

(2) 시장실패

① 외부성에 의한 실패

구분	내용	
개념	시장의 가격 기능이 경제의 기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최선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로 외부성, 공공재, 불완전경쟁에서 기인함	
외부성에 의한 실패	의의	외부성이란 특정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경제적인 대가 없이 피해를 주거나 혜택을 주는 경우를 의미함
	외부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성이 타 경제 주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외부경제라 표현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활동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행위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장려되는 것이 바람직함 
	외부불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성이 타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외부불경제라 함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활동은 사회 전체에 가져다주는 편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킴 정부를 통해 외부불경제가 규제는 되고 있다 해도 불이익의 수준이 미미함 

→ 외부경제는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누리려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수준이 미달되므로 시장 실패가 발생된다. 외부불경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과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3) 공공재에 의한 실패

구분	내용	
공공재에 의한 실패	의의	골목의 가로등, 도로, 공원과 같이 설치비용을 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 함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제성 :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비배제성이라 표현• 경합성 : 특정 주체가 공공재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준다면 경합성이 있는 것이므로 그렇지 않다면 비경합성이 있다고 표현
경합성과 배제성의 양상	구분	
	경합성	
	유	

→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으며 공공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혜택을 독차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미루게 되며 무임승차의 유인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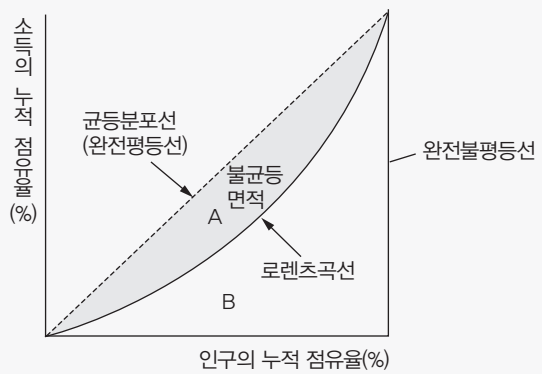
4. 국민 경제의 이해

(1) 명목 GDP와 실질 GDP

구분	명목 GDP	실질 GDP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 그 해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 •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물의 수량에 변화가 없더라도 GDP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 • 당해 연도 가격 대신 기준 연도 가격을 사용함 • 가격 변화로 인한 GDP 변동의 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한 생산량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경제성장률	$\text{경제성장률} = \frac{\text{금년도 실질 GDP} - \text{전년도 실질 GDP}}{\text{전년도 실질 GDP}} \times 100$	
GDP 디플레이터	물가 수준의 지표로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수치 $\text{GDP 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높아지면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가치의 하락을 나타내며 수치가 낮아지면 물가 하락에 따른 화폐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2) 국민소득의 분배 -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의 이해

구분	내용
로렌츠 곡선의 이해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창안한 모델
로렌츠 곡선의 해석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의 삼각형 면적(A+B)에서 차지하는 불균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완전평등의 지니계수는 0, 완전불평등의 지니계수는 1의 값을 갖는다.

(3) 경제활동인구의 구별

구분	내용		
경제활동 인구	개념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 중 취업능력과 일할 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	
	유형	취업자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일자리를 보유한 사람
		실업자	일할 의사와 취업능력은 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
비경제활동 인구	• 생산 활동 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인, 구직단념자 등		

→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4) 필립스 곡선의 이해

구분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 사이에 역의 함수관계가 있음을 발견 • 실업률이 낮을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곡선으로 도출
필립스 곡선	

→ 스태그 플레이션 : stagnation(경기 침체, 불황)이란 말과 inflation(물가 상승)의 합성어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으로 1970년대에 석유 파동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험하였다. 필립스 곡선은 물가와 실업률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스태그 플레이션을 설명하지 못한다.

(5) 경기 변동과 경기 안정화 정책

① 재정 정책

구분	내용		
개념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조세와 정부지출을 조절하는 정책		
세율 조절	구분	특징	효과
	세금인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 감소	총수요 감소
	세금인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늘기 때문에 소비 증가•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 증가	총수요 증가
정부 지출조절	구분	특징	효과
	지출증가 시	정부의 지출 역시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구성	총수요 증가
	지출감소 시	정부가 사회보장, 교육, 경제 개발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지출을 줄일 경우 총수요에 영향을 끼치게 됨	총수요 감소

→ 경기가 과열될 경우는 세율을 인상하고, 정부지출을 줄여서 총수요를 억제시키며 불경기에는 세율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서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② 확대 재정정책과 긴축 재정정책

구분	확대 재정정책	긴축 재정정책
형태	불경기에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세금은 낮추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형태	호경기 총수요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총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 세금은 높이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형태
특징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정부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 재정이 됨	재정 수입은 늘어나고 정부 지출은 줄어들기 때문에 흑자 재정이 됨
효과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의 증가는 소비 지출의 증가로 연결되어 총수요는 증가	정부가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물가 상승은 억제할 수 있으나 기업의 생산 활동 역시 위축되어 고용도 감소하게 됨

→ 확대 재정정책은 적자 재정정책이며 긴축 재정정책은 흑자 재정정책이 된다.

③ 통화정책

구분	내용		
개념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나 경제 성장을 위하여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		
통화량과 이자율의 관계	구분	특징	효과
	통화량증가 시	이자율이 낮아짐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서 총수요 증가,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고용 증가 및 소득 향상
	통화량감소 시	이자율이 높아짐	소비, 투자가 저조하여 총수요는 감소하고 생산이 줄어들어 실업 증가
재할인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할인율의 의미 :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 • 재할인율 정책의 개념 :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의 양과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은행의 대출액을 조절하려는 정책 • 정책 효과 		
	구분	특징	효과
	재할인율 인상 시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올림으로써 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의 이자율을 인상하도록 유도하여 대출액을 감소시킴	통화량 감소
	재할인율 인하 시	재할인율을 내림으로써 은행의 대출액을 증가시킴	통화량 증가
공개시장 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시장 조작의 의미 :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국·공채 등의 채권을 매매함으로써 자금의 공급을 조절하려는 정책 • 채권의 개념 :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리고 지급하는 증서를 의미 • 정책 효과 		
	구분	시기	특징 및 효과
	채권 구매 = 국·공채 매입	시중에 통화량이 적어서 늘릴 필요가 있을 경우(경기침체 시)	채권은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고 돈은 시중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
	채권 판매 = 국·공채 매각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서 줄일 필요가 있을 경우(경기 과열 시)	중앙은행이 채권을 판매하면 현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화량 감소
지급준비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준비율의 개념 : 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보유자금을 모두 대출해 주지 않고 남겨 두는 일정 비율을 의미 • 정책효과 		
	구분	시기	특징 및 효과
	지급준비율 인하 시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게 됨	통화량 증가
	지급준비율 인상 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됨	통화량 감소

→ 경기 과열시 통화 공급을 줄임으로써 이자율을 높여 총수요 억제시키고 불경기 시는 통화 공급을 늘림으로써 이자율을 낮추어 총수요 증대시킨다.

5.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1) 국제교역-비교우위론

구분	내용	
의의	비교우위란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을 의미	
사례 (비교우위 적용 전)	구분	상품 단위당 필요 노동량
		신발 가방
	갑국	4 5
	을국	2 3
절대우위에 따르면 을국은 신발과 가방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왜 무역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음		
사례 (비교 우위 적용 후)	구분	상품 단위당 필요 노동량
		신발의 기회비용 가방의 기회비용
	갑국	$5/4 = 1.25$ $4/5 = 0.8$
	을국	$3/2 = 1.5$ $2/3 = 0.67$

→ 비교우위론은 리카도(David Ricardo)가 주창한 것으로 무역 이익은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절대 우위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두 재화가 모두 절대 우위에 있을 때에도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2) 환율

구분	환율 상승	환율 하락
개념	환율 상승은 외국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	환율 하락은 외국 돈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의미
특징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원화의 평가 절하가 되며 원화의 약세라고도 함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원화의 평가 절상이 되며 원화의 강세라고도 함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출 증가수입 감소외채 상환 부담 증가해외여행 불리통화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출 감소수입 증가외채 상환 부담 감소해외여행 유리통화량 감소

→ 외화의 수요 증가요인은 외국에 외화를 지급하는 것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상황(상품의 수입, 해외로 외화 송금, 해외여행, 외채 상환)이며, 외화의 공급 증가 요인은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수취하는 것으로 외화가 유입되는 상황(상품의 수출, 외국으로부터의 송금, 해외 취업)이다.